

코로나 확산에 따른 충남 중도입국 자녀 돌봄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2021. 7. 15.

연구책임자 : 전 세경
공주교육대학교

제 출 문

충남사회혁신센터장 귀하

본 보고서를 연구용역과제인 ‘코로나 확산에 따른 충남 중도입국 자녀 돌봄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 년 7 월 15 일

주관연구기관명 : 공주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공주교육대학교 글로벌다문화센터

연구책임자 : 전세경(공주교육대학교)
공동연구원 : 박찬석(공주교육대학교)
공동연구원 : 백인옥(공주교육대학교)
연구보조원 : 김계숙(공주교육대학교)
연구보조원 : 설순복(공주교육대학교)
연구보조원 : 윤현주(공주교육대학교)
연구보조원 : 정규성(공주교육대학교)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용역과제 연구팀의 의견이며, 충남사회혁신센터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보고서 초록

관리번호			연구기간	2021 년 4 월 15일 ~ 2021 년 7 월 15 일	
정책과제명	코로나 확산에 따른 충남 중도입국 자녀 돌봄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caring for and support measures for children mid-immigrant in Chungcheongnam-do due to the spread of Corona19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	전세경 (공주교육대학교)	참여 연구원수	총 7 명	연구 용역비	20,000천원
요약					면수 : 148
<p>■ 이 연구는 충남에 거주하는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들의 코로나로 인한 돌봄의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여 이들의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p> <p>■ 연구대상자로서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 22명, 학부모 18명, 교사 및 기관 종사자 9명 총 49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하여 코로나 이후 중도입국 자녀 돌봄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 문제를 검증하고자 하였다.</p> <p>■ 연구 결과를 통해 중도입국 학생으로서 고려인 재외동포의 대상 특수성에 대한 고려, 교육과 돌봄을 통합한 프로그램과 정책, 한국어교육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방안, 코로나 이후의 교육격차와 정보격차의 문제를 쟁점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p> <p>■ 논의를 통하여 충남 중도입국 자녀 돌봄 정책의 다섯 가지 방향을 설정하고 실제 수행할 수 있는 계획안으로서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프로그램에는 목표, 내용, 방법, 평가에 이르는 프로그램 개발의 요소별로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수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중도입국 학생 돌봄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선도적 모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p>					
색인어	한글	코로나19, 다문화학생, 중도입국학생, 재외동포 자녀, 고려인, 돌봄, 돌봄 정책, 충남 다문화정책			
	영어	Corona19, multicultural students, mid-immigrant students, children of overseas Koreans, Korean((корёйский), care, care policy, Chungnam multicultural policy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6
3. 연구 방법	7
가. 연구대상	7
나. 연구대상 지역	8
다. 질문 내용	8
라. 분석 방법 및 절차	8
4. 연구의 분석 틀	9
가. 면접 대상자별 질문 항목	9
나. 연구 디자인	12
5. 연구수행 인력 및 연구 추진 일정	13
가. 연구수행 인력	13
나. 연구 추진 일정	14
II. 관련 내용 고찰	15
1. 국내 및 충남 체류 외국인 현황	15
가.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15
나. 충남 체류 외국인 현황	19
다. 다문화 학생 현황	22
라. 충남 다문화학생 현황	26

2. 코로나 이후의 가족 및 사회생활의 변화	30
가. 코로나 이후 사회의 변화	31
나. 코로나 이후 가족생활의 변화	34

Ⅲ. 연구 결과 39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39
가. 대상별, 지역별 분포	39
나. 일반적 특성 :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	39
다. 일반적 특성 :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 학부모	41
라. 일반적 특성 :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 돌봄종사자(학교, 기관)	42
2. 한국 입국 전 생활 및 입국 배경	42
가.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	43
나.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 학부모	46
3. 한국 입국 후의 생활	49
가.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	49
나.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 학부모	54
다.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 돌봄 종사자(학교, 기관)	57
4. ‘코로나19’ 이후의 생활	61
가.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	61
나.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 학부모	67
다.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 돌봄 종사자(학교, 기관)	71
5.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돌봄 정책에 대한 요구	83
가.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	83
나.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 학부모	86
다.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 돌봄 종사자(학교, 기관)	90

IV. 쟁점별 논의 및 돌봄 정책 방향 탐색 93

1. 충남 중도입국 학생 돌봄 실태 및 요구에 대한 결과 요약 93
 - 가. 중도입국 학생의 한국 입국 후 생활 실태 93
 - 나.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의 코로나19 이후의 생활 실태 97
 - 다.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돌봄 정책에 대한 요구 100

2. 결과 분석을 통해 나타난 쟁점별 논의 103
 - 가. 중도입국 학생으로서 재외동포, 고려인의 대상 특수성에 대한 고려 103
 - 나. 교육과 돌봄을 통합한 프로그램과 정책 105
 - 다. 한국어교육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방안 108
 - 라. 코로나 이후의 교육격차, 정보격차의 문제 110

3. 충남 중도입국 학생 돌봄 정책의 방향 112
 - 가. 충남의 다문화학생 유형의 특징에 따른 맞춤형 교육정책 전개 113
 - 나. 공교육 진입 단계에서부터 한국어교육을 우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114
 - 다. 교육과 돌봄을 통합한 형태와 내용으로 전개 115
 - 라. 자립적 생활력 향상을 위한 생활역량 교육의 강조 116
 - 마.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의 정보 소양 교육 포함 117

V. 충남 중도입국 학생 돌봄 프로그램 모델 개발 119

1. 프로그램 제목의 의미 119
2. 프로그램 개발의 취지 120
3. 프로그램의 타당성 122
 - 가. 대상의 타당성 : 왜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인가 122
 - 나. 내용의 타당성 : 왜 한국어교육인가 122
 - 다. 접근 방식의 타당성 : 왜 교육과 돌봄이 통합되어야 하는가 123

4.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123
5. 프로그램의 내용 선정 및 조직	124
6. 프로그램의 전개 방법	126
7. 프로그램의 평가	127
 VI. 결 론	 129
1. 연구 요약	129
2. 결론 및 제언	132
 참고문헌	 135

표 목 차

<표 2-1>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감 추이	16
<표 2-2> 등록 자격별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16
<표 2-3> 연도별 외국 국적 동포 현황(2016~2020)	17
<표 2-4> 연도별 주요 국적별 외국인 현황(2016년~2020년)	18
<표 2-5> 외국 국적 동포 거소 신고자 국적별 현황(2021.4)	18
<표 2-6> 연도별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현황(2016년~2020년)	19
<표 2-7> 외국 국적 동포 거소 신고자 거주지역별 현황	19
<표 2-8> 등록 외국인 거주지별 현황	20
<표 2-9> 충남 등록 외국인의 지역별, 연령별 현황	21
<표 2-10> 충남 등록 외국인 20세 이하 2019~2020년 증가현황	22
<표 2-11> 충남 다문화 학생 가족 유형별 현황 (2020)	25
<표 2-12> 국제결혼가정 자녀 지역별 부모출신국가별 분포(2020)	28
<표 2-13> 외국인가정 자녀 지역별 부모출신 국가별 분포(2020)	29
<표 3-1> 면접자 대상별, 지역별 인원수	39
<표 3-2> 연구대상자: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의 일반적 사항	40
<표 3-3> 연구대상자: 고려인 중도입국 자녀 학부모의 일반적 사항	41
<표 3-4> 연구대상자 :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 돌봄 종사자의 일반적 사항	42
<표 5-1> 프로그램 내용 체계 예시 (일부)	125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목표 및 내용, 방법	12
[그림 1-2] 연구 구성 및 절차	13
[그림 2-1] 다문화 학생 수 및 비율의 변화 추이	23
[그림 2-2] 초·중·등 다문화 학생 수	24
[그림 2-3] 학교급별 다문화 학생 수	24
[그림 2-4] 다문화학생 유형별 변화 추이	24
[그림 2-5] 지역별 다문화학생 수 및 다문화학생 비율	25

I

서론

코로나 확산에 따른 충남 중도입국
자녀 돌봄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보육, 자녀 돌봄에서 가족과 부모, 기관의 역할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20년 2월 27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육아 지원기관의 전면 휴원, 휴업, 휴관 조치가 이루어졌고 기관이 긴급돌봄 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자녀 돌봄과 양육은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자녀 양육과 돌봄 현황을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자녀 양육 가구들은 평균적으로 가구의 소득과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돌봄 공백을 경험하였으며 자녀양육을 위한 서비스의 이용에도 변화가 있다(최윤경, 2020)고 보고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위기가 고조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되면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자녀 돌봄을 위해 그간의 양육방식과는 다른 돌봄을 선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가정 내 돌봄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부모들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경험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정 내 돌봄을 선택할 수 없는 일부 계층에게는 자녀 돌봄 문제는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였다. 어떠한 대안도 없는 경우는 부모가 일을 포기하거나 혹은 자녀가 가정 내에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긴급돌봄 시스템이 운영되기도 하였으나 일부 계층들 중에는 이의 사각지대에 놓인 집단도 있었다. 많은 연구들에서 저소득층의 경우를 지적하지만 또 다른 대표적 케이스 중 하나가 외국인 가정과 그 자녀들이다.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이 증가함과 동시에 외국인 가정 등 국내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충남의 경우, 2019년 거주 외국인 주민은 12만 7천여 명으로 인구 대비 5.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수치는 충남이 전국에서 외국인 거주자가 세 번째로 많다는 것을 말해 준다. 외국인의 증가는 이들 자녀들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충남의 다문화가정 학생은 2020년 기준 9,994명이며, 이 중 국내출생 다문화가정은 7,970명, 중도입국 학생은 495명, 외국인가정 자녀는 1,529명이다(교육개발원, 2020). 실제 충남은 상대적으로 국내 출생 학생 수보다 중도입국이나 외국인 가정 학생 수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 서울, 인천의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 중에서는 가장 많고(전체 4위), 특히 그중에서도 외국인 자녀 학생 수는 월등히 많다. 5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남지역과 비교해 볼 때, 중도입국 학생 수의 차이는 얼마 안 되지만, 외국인 자녀 학생수는 1.5배 가까이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충남의 다문화학생 분포의 특징으로는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 자녀 학생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특히 외국인 자녀 학생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인 자녀들의 부모 국적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충남의 외국인 가정 자녀의 부모 출신 국가별 분포를 보면, 2020년 기준 중국(365명), 우즈베키스탄(341명), 러시아(290명), 중앙아시아(259명), 중국(한국계)(127명)의 순이다(법무부, 2020).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충남에는 특히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출신 자녀들이 많다. 이같이 특정 국가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충남에는 우리가 흔히 ‘고려인¹⁾’이라고 칭하는 재외동포 가족의 자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충남이 수도권 제외 타지역 보다 외국인 주민의 분포나 증가가 많은 것은 재외동포의 유입 증가와도 관련이 있어 보이고 그 중 고려인의 증가가 주목할 만하다. 2020년 기준 충남에는 26,595명의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는데(법무부, 2020), 이는 경기, 서울,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숫자이다. 충남 내 지역에서 아산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재외동포 거주인 수가 많은 도시이다. 우리가 흔히 다문화가정이라고 부르는 가족의 유형은 대부분 국제결혼한 가정, 이주노동자 가정으로만 대

1)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 연합 전체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통칭하는 말이다. 1860년대 조선에서 흉년과 수탈이 계속되자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로 이주해 토지를 개척하며 정착해서 살았고, 한일합병 이후에는 일제 식민 통치의 압제를 피하거나 또는 민족해방운동을 위해 이민하였다. 1930년대 말 소련당국에 의해 이들 한인들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당하는 수난을 겪었고, 이들과 이들의 후예를 고려인, 카레이스키라고 한다.

별하고 있고 수적으로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재외동포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 가정으로서 또 다른 다문화가정의 유형으로 존재함을 말해 준다.

한편, 현재 교육부나 법무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문화학생 유형에 의하면, 다문화 학생은 크게 국제결혼가정 학생과 외국인가정 학생으로 나누고, 국제결혼가정 학생을 다시 국내출생 학생과 중도입국 학생으로 나누고 있다. 이때 국내출생 학생은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모(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 중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를 말하며, 중도입국 학생은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모(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한국 국적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자녀를 말한다. 외국인가정 학생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며 한국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자녀(외국인 근로자 자녀, 재외동포 자녀 등)로 정의하고 있다.

이 중 ‘중도입국’이라는 개념은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국내 거주자 중, 한국인과 타민족과의 결합(혼인)과 외국인들 간의 결합에 대해서 그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했을 경우 ‘국내출생’ 자녀(국내출생 다문화학생)이라고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중도입국’(중도입국 학생, 중도입국자녀)이라는 대상으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이 용어와 개념은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에게만 적용되고 있어 외국인 가정 학생들은 본국에서 태어나 이후 실제 부모와 함께 혹은 후에 따로 한국으로 입국했다 하더라도 행정적 용어와 개념으로는 ‘중도입국’ 학생이나 ‘중도입국’ 자녀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들은 입국의 시점으로 볼 때 엄연히 본국에서 태어나 중도에 한국에 입국한 ‘중도입국’ 학생이다.

다문화교육 정책에서 ‘중도입국’ 학생을 별도의 정책대상으로 여기고자 하는 이유는 이들이 겪는 한국 생활 적응에서의 특수성 때문일 것이다. 즉, 한국어 습득을 통한 학습과 생활에서의 소통의 문제와 정서적 적응의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국내출생 다문화학생의 경우 한국어 습득이나 정서적 문제는 중도입국 학생 보다 안정적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국제결혼한 가정에서 이주 배경 배우자는 일정 시간이 지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고, 그 자녀도 태어나면서부터 한국인 국적을 갖게 되고 자라나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키워나가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들 가정에 이주 배경 배우자의 전 자녀가 유입되는 경우, 중도입국 자녀가 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입양의 형태로 한국인 새 아버지와 친자관계를 맺고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 이후 이들은 한국의 가정환경에서 생활하게 되고 부모자녀 관계, 조

손 관계, 형제자매관계 등 가족 내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상호소통하면서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간다. 이러한 조건은 같은 중도입국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인 자녀들보다는 한국어의 습득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게 된다. 가정 내에서 가족 간에 한국어로 소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초기 한국어 습득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어 습득의 속도는 훨씬 빠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들은 새로 형성된 가족관계 내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정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같은 중도입국 상황이라 하더라도 외국인 가정, 재외동포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이들은 본국에서 태어나 유아,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성장한 후 한국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시점으로 보면 분명히 중도입국 자녀(학생)이지만, 한국인 아버지에게 입양되어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결혼 가정의 중도입국 학생과는 상황이 다르다. 한국에 온 이후에도 이들은 가족 내에서 그들의 언어나 디아스포라적 삶이 비교적 견고히 유지되기 때문에 한국어나 한국 생활 적응 등을 경험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이들 자녀들은 국제결혼 중도입국 학생보다 한국어 습득이 늦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생활 터전은 달라졌으나 자신의 원가족과 지속적으로 함께 생활하므로 정서 심리적 어려움은 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들의 한국 생활 적응은 국제결혼 가정의 중도입국 학생과는 다른 면모를 보인다. 따라서 이들을 지원하는 다문화정책도 그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같이 한국 사회에 이주노동자, 재외동포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입국하는 이들의 자녀도 증가하게 되어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으나, 이들은 국적 및 체류자격 기준이 없는 국제법과 국내법에서 한국 국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상황을 파악할 통계자료도 부족할 뿐 아니라 지원정책에서도 배제되어 있게 된다. 실제로 코로나19로 많은 가정에서 자녀 양육 및 돌봄의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 및 돌봄 지원은 내국인 아동에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돌봄의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조례에 명시적 국적 및 체류자격 기준이 없는 경우, 이들은 보육 및 돌봄에 대한 정책대상에 거의 포함되지 않는다. 게다가 외국인, 재외동포 자녀의 부모들은 한국에서의 언어와 문화 적응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자녀의 보육과 돌봄뿐 아니라 경제적 활동까지 이루어야 하므로 이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코로나 이전에도 그러했을 것으로 짐작하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게

된다. 또한, 자녀가 학령기 이전인 경우 여러 기관에서의 돌봄으로 한국어/문화/사회성 등의 학습으로 사회에 필요한 적응 및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지만, 소득 대비 비용부담이 커 보육 및 교육을 중단하기도 하는 실정이다. 아울러 학령기 중도입국자녀를 둔 부모들은 학교 공부 진도에 대한 걱정과 더불어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진행되어도 부모가 이를 지도하기 어렵고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의 부족으로 정보 불평등뿐 아니라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져 결국은 교육격차를 가져오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자녀들도 한국어 학습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에 다니게 될 경우, 자존감 저하 및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므로 학교 적응 및 또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할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가정 학생 중 상당수는 학교 밖에 머물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이들에 대한 돌봄 및 교육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우복남, 2010)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충남의 여러 다문화정책 중, 외국인 가정으로서 재외동포, 특히 고려인 중도입국 자녀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충남에는 고려인 재외동포 가족 및 자녀들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한다면 이들의 상황은 돌봄 및 교육에서 부나 모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 결과 상당수 방치로 이어져 자녀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인 중도입국 자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지역에서조차 아동 시설이 부족하거나 낙후되어있는 경우도 많다. 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 인력자원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충남은 다른 어느 시도에 비해서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권 재외동포들의 수가 많고 아산, 당진 등 지역에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이렇듯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가정의 증가와 이들 중도입국 자녀의 상황, 코로나로 인한 돌봄의 문제와 같은 이들의 특수한 상황과 요구를 고려한다면 충남 지역에는 고려인 중도입국 자녀들을 위한 돌봄의 공간이 조성되어 교육·보육·돌봄이 통합된 서비스로서의 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이 현재 처해 있는 돌봄의 실태와 요구의 실재를 파악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이에 부합할 수 있는 차별적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어느 시도와는 차별적으로 이들을 위한 돌봄 실태 및 요구 검토를 통한 차별적 정책 전략을 수립할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권

재외동포인 ‘고려인’이 갖는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이들을 위한 충남의 다문화정책 접근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충남 중도입국 자녀 중 고려인 재외동포 자녀를 대상으로 이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아동과 청소년 학생, 학부모, 그리고 실제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학교 교사와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하여 이들이 생활 중 특히 코로나 이후 자녀들의 삶의 실제, 학부모님들의 자녀 돌봄의 실제, 학교나 기관의 돌봄 제공자의 돌봄의 실재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욕구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인터뷰를 통해 밝혀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충남의 한국 국적이 없는 고려인 재외동포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돌봄 정책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방향을 탐색해 보고 이에 따른 정책 디자인 모델을 제안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고려인 재외동포 중도입국 학생의 성장환경 및 돌봄의 사회적 기능을 재고하고 이들이 충남의 미래 인적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과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충남의 외국인 가정으로서 재외동포의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돌봄 정책 지원 방향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타 시·도 대비 선도적 정책 모델을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한다. 이는 충남의 다문화 관련 정책이 사회적 수요 및 전문적 검증에 기반한 정책이 되는 과정일 것이므로 실제와 정책의 간극을 최소화함으로써 정책의 적합성을 높일 수 있게 하는 노력이 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충남소재 다양한 돌봄 주체들의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내용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재외동포의 중도입국 자녀 돌봄의 실태를 파악한다. 특히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비교함으로써 코로나 사태로 인한 돌봄의 문제들을 파악한다.

둘째,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돌봄에 대한 요구들을 파악한다. 이들의 생활 실태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어떠한 요구들이 존재하는지, 특히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비교하여 모색해 본다.

셋째, 충남의 고려인 재외동포 중도입국 자녀 돌봄에 관한 지원 사업의 내용과 실태를 파악한다. 학교나 지역 아동 센터와 같이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의 중도입국 자녀 대상 돌봄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을 파악하여 실태 및 요구와의 부합성을 검토한다.

넷째, 고려인 중도입국 자녀 및 학부모의 돌봄 실태 및 요구, 제공되고 있는 돌봄 지원 사업의 실태 등을 기초로 고려인 중도입국 자녀 돌봄 정책 방향 및 전략을 제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획안을 도출한다.

3. 연구 방법

가.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총 3그룹이며, 충남 6개 지역(천안, 당진, 논산, 서산, 예산, 아산)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F-4) 비자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고려인 재외동포와 그들의 자녀인 중도입국 학생(방문 동거(F-1))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와 함께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을 돌보는 초등학교 교사와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선정은 지역 다문화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면접에 동의하는 대상을 섭외하여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지역별, 자녀 발달단계별 분포를 고려하였다. 구체적으로 학부모 그룹은 18명, 자녀 그룹은 청소년 6명, 아동 16명, 돌봄 담당자는 9명으로서, 총 49명을 심층 면접하였다.

중도입국 자녀의 부모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 수준에 따라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역자와 함께 면접을 진행하였다.

이상 연구대상으로서 고려인 재외동포 중도입국 자녀와 이들의 학부모들은 ‘고려인’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한정하여 진행하였으나 본 연구의 서술에서는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 학부모가 정확한 연구대상의 명칭이나 편의상 통상 중도입국 자녀(학생), 중도입국 학생 학부모와 혼용하여 쓰기로 한다.

나. 연구대상 지역

충남의 15개 시·군·구 중 관내 외국인 노동자와 재외동포의 중도입국 자녀의 분포도가 높은 지역 순위를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자녀와 학부모는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논산 지역으로 하고 이에 더해 학교 교사는 예산을 포함하였다.

다. 질문 내용

외국국적동포(F-4)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고려인 재외동포의 중도입국 자녀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후로 가정 내에서의 생활 변화, 자녀의 생활 변화, 돌봄 실태와 만족도, 돌봄 서비스에 있어서 개선점 등을 중심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중도입국 자녀를 위해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학습지원이나 경제적 지원 등을 중심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에 따른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중심으로 심층 면접을 하였다. 또한, 고려인 중도입국 자녀의 돌봄을 현장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교사와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자를 통하여 이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라. 분석 방법 및 절차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조사와 심층 면접 조사로 진행하였다. 문헌조사로는 국내 또는 충남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실태, 돌봄에 대한 내용, 코로나로 인한 사회 변화 등 기초 자료 및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고, 심층 면접 조사는 위 6개 지역

의 연구 대상자를 중심으로 2021년 5월 4일부터 16일까지 13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심층 면접 조사에 앞서 조사원이 되는 연구진들은 심층 면접 시 유의점 등을 포함한 사전 교육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면접은 면접 대상자가 편하게 면접에 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면접 시간은 대상자 1인당 약 1시간~1시간 반 정도 소요되었다. 의도된 질문 내용 이외에도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질문을 진행하였다. 면접 내용은 면접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모두 녹음하였으며, 녹음된 내용은 모두 전사하였다.

연구 결과로 정리된 내용 및 이를 통한 쟁점별 논의, 정책 제안 내용들은 모두 전문가 자문 및 연구진 협의를 거쳐 제시하였다.

4. 연구의 분석 틀

가. 면접 대상자별 질문 항목

각 연구 대상자별 인터뷰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문 항목들은 입국 이전과 입국 이후, 특히 코로나 이후로 시기별 생활 실태를 질문하고, 이에 따른 요구를 파악하고자 세부 내용들을 구성하였다. 질문 항목들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고 연구진들의 논의를 거쳐 최종 내용들을 구성하였다.

1) 중도입국 학생

시기	세부 항목
입국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 입국하기 전 본국(나라)에서의 생활상태 (가정생활, 학교생활, 친구관계 등) • 처음에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고 했을 때의 느낌과 그 이유 • 부나 모와의 별거 기간 • 부나 모와 떨어져 있는 동안 가장 어려웠던(힘든 점) 점 • 본국(나라)에서 한국인과의 교류 정도, 한국에 대해 들은 얘기, 한국에서 살게

	될 가족들이나 생활에 대해 들은 얘기
입국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으로 들어와서 가장 좋은 점과 가장 힘든 점 • 한국에 들어와서 가족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실태 • 학교생활 실태(학습, 교우관계 등) •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학교나 지역 센터에서 받아왔던(경험했던) 교육 경험 및 내용 • 교육에 대한 느낌, 도움 정도 • 학교생활 및 방과 후 생활 (코로나 이전 방과 후 돌봄 등) • 입국 이후 가장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 그 이유
‘코로나 19’ 확산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의 기분, 그 이유 • 코로나19 이후 가족들 생활의 변화, 그 이유 • 코로나로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루 일과(돌보아 준 사람) • 코로나로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돌보아 주었을 때의 기분 • 온라인 학교 수업 수행정도, 어려운 점 • 온라인 기기, 디지털 활용 정도 • 온라인 수업에서 가장 필요한 것 • 온라인 수업에서 부모님의 도움 정도, 도움의 내용, 도움을 주시지 못한다면 그 이유 • 온라인 수업 중 부모가 안 계실 경우 다른 행동을 한 경험 여부, 있다면 얼마나 자주, 주로 어떤 행동 • 학교 수업도 없고, 혼자 있을 때의 하루 일과 • 학교에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 학교에 가고 싶은지, 친구 관계 • 학교생활 만족도(학업, 친구 관계), 그 이유 • 코로나 이후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나 시간, 장소 등에 대한 변화와 만족도,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 돌봄 시간에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만족도 • 부모님이 나를 돌보시거나 다른 사람에게 돌봄을 부탁하기 위해 느끼는 어려움 •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가장 힘든 점
향후 요청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학교 공부 중 가장 어려운 것, 필요한 것 • 한국 생활을 안정되게 하기 위해 나라에서 어떤 것을 지원하면 좋은지 • 중도입국 자녀의 교육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원하는 지원 내용 • 앞으로 크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 장래 희망 •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바라는 것

2) 중도입국 학생 학부모

시기	세부 항목
자녀의 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본국 생활(성장배경, 가족관계, 가정 및 학교생활, 성적, 교우관계 등) • 자녀가 입국하게 된 배경과 과정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자녀의 반응, 자녀의 한국입국을 결정하게 된 배경 • 자녀가 부나 모와의 별거 기간 중 가장 어려웠던(힘든 점) 점, 자녀와 떨어진 지 얼마 만에 자녀가 입국하게 된 것인지 • 부나 모와의 별거 기간 동안 자녀 돌봄 주체 및 내용 • 자녀가 가장 힘들어했던 점
자녀 입국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입국 후 가족들과의 생활 • 자녀 입국 후 적응 정도, 힘들어하는 내용 • 자녀 입국 후 학교생활 시작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학습, 교우관계 등) • 자녀가 학교에서(혹은 센터 등 기관) 한국어교육, 맞춤형 학습지도, 교우관계 형성 프로그램, 정서 지원 상담 등을 받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 평소 자녀의 방과 후 돌봄 주체, 방과후 자녀 일과 • 자녀의 입국 후 함께 살게 된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도 • 중도입국한 자녀와 관련하여 부모님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우신 점
‘코로나 19’ 확산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정 내 생활에서 가장 큰 변화 • 자녀의 학교 온라인 수업 수행 정도(온라인 학습 기기, 교과목에 대한 이해, 디지털 조작 능력, 언어 문제 등) • 자녀가 혼자서도 온라인 수업에 잘 집중하고 있는지 • 수업을 듣지 않고 다른 행동을 했을 때(게임 등)의 부모님 행동 • 자녀의 온라인 수업 도움 정도, 도움 내용, 도와주지 못한다면 그 이유 • 코로나로 자녀가 학교에 가지 않았을 때의 하루 일과 • 부모님께서 돌보지 못하는 경우 자녀 돌봄의 주체와 내용 • 코로나 이전과 이후 자녀 생활의 변화 • 학교나 지역 센터 등에서 자녀를 위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도 서비스 지속 여부 •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돌봄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이에 대한 자녀와 부모님의 만족도와 개선점 • 자녀의 돌봄을 위해 필요한 내용 및 프로그램
향후 요청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한국 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어려움 • 중도입국한 자녀들을 위한 학교나 사회에서의 지원 요구 내용 • 자녀를 위한 돌봄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 그 이유 • 자녀의 진로에 대한 희망 • 자녀에게 바라는 것

3) 중도입국 학생 돌봄 종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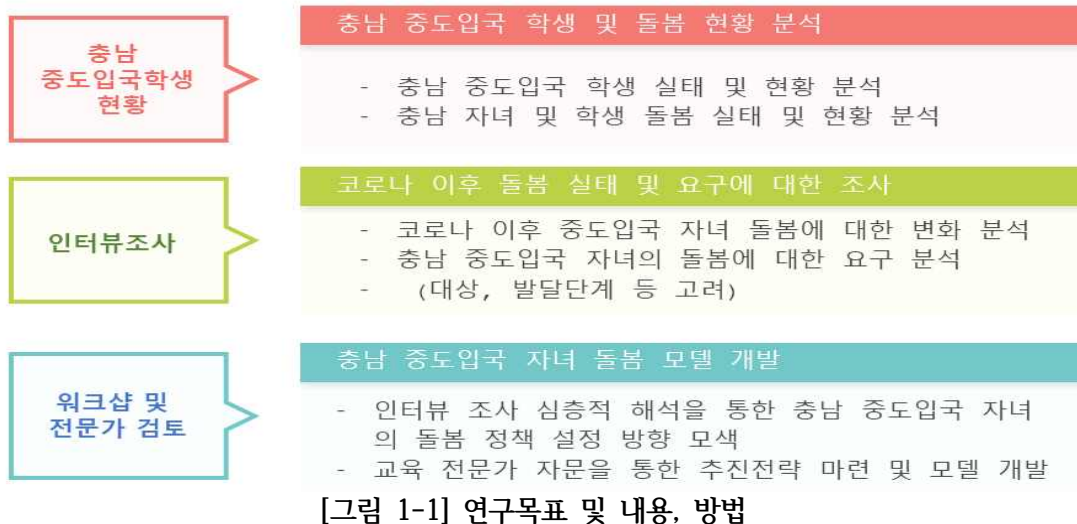
구분	질문 내용
학생실태	• 선생님 학교(기관)의 중도입국 학생 실태(연령, 출신 국가, 한국어 수준 등) 실태
한국 생활	• 중도입국 학생의 한국 생활(가정생활, 학교생활 등) 실태
지원 프로그램	• 학교(혹은 기관)에서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종류

‘코로나19’ 이전 프로그램	• ‘코로나19’ 이전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수행 내용 및 정도 (한국어, 학력 향상, 교우관계, 상담 등)
‘코로나19’ 이후 프로그램	• ‘코로나19’ 이후 프로그램 (수업, 급식 등) 수행 내용 및 정도, 어려운 점
온라인 수업 실태	• 중도입국 학생의 온라인 수업실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변화	• 코로나 이전과 이후 중도입국 학생의 삶의 변화(학업, 돌봄 등)
돌봄의 실태	• 전반적으로 중도입국 학생의 (가정 내·외) 돌봄의 실태
프로그램의 실효성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도입국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
프로그램의 개선점	• 현재 중도입국 학생 돌봄 프로그램이 실효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개선점
‘코로나19’를 고려한 특별 프로그램	• 코로나 시대를 고려하여 앞으로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이 계획된다면 가장 필요한 것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요구사항	•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조건

나. 연구 디자인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 방법을 고려한 연구의 디자인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 [그림 1-1], [그림 1-2]와 같다.

충남 중도입국 자녀 돌봄 실태 및 요구를 통한 돌봄 정책 모델 개발





[그림 1-2] 연구 구성 및 절차

5. 연구수행 인력 및 연구 추진 일정

연구수행인력과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연구수행 인력

역할	성명	소속	직위
책임연구원	전세경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박찬석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백인옥	공주교육대학교	강사
연구원	김계숙	공주교대 대학원 다문화교육 전공	석사 재학
	윤현주	공주교대 대학원 다문화교육 전공	석사 재학
	정규성	공주교대 대학원 다문화교육 전공	석사 재학
	설순복	공주교대 대학원 다문화교육 전공	석사 재학

자문위원	김경제	동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다문화학과	교수
	윤향희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학로	당진역사문화연구소	소장
	김혜정	대전 서구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정책국장

나. 연구 추진 일정

세부 내용	기간	4월	5월	6월	7월
가. 착수보고					
나. 연구설계					
다. 연구진 인터뷰 오리엔테이션					
라. 인터뷰 조사 및 분석					
마. 자문회의					
바. 연구진 회의					
사. 중간보고					
아. 최종보고서 작성					
자. 내용 보완 및 확정					

II

관련 내용 고찰

코로나 확산에 따른 충남 중도입국
자녀 돌봄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1. 국내 및 충남 체류 외국인 현황

가.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1) 국내 체류 외국인 추이

법무부의 자료인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감 추이(<표 2-1>)를 살펴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9년 12월 기준 약 252만여 명이었으나, 2020년 12월 기준으로 약 203만여 명으로 줄어들었고, 감소 추세는 계속되어 2021년 4월 기준으로 약 199만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그 이전의 약 10년간의 증가 추이를 볼 때, 2020년 초 발생한 팬데믹이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행과 이동이 금지되면서 2020년 단기체류자는 2019년도에 비해 53%로 감소하였다. 2021년 단기체류자의 수는 2020년과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는 것은 약 5개월간 (2020년 12월 기준~ 2021년 4월 기준) 국내로의 유입인구가 큰 변동이 없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외국인의 거소 신고는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인 2019년과 2020년에 4,787명이 증가하였으며, 2021년 4월 현재에도 꾸준히 증가하며 2021년에 비해 8,134명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코로나로 인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중 단기체류자는 급격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고, 장기체류자도 감소하였다. 그러나 장기체류자의 감소는 대부분 등록 외국인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거소 신고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표 2-1>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감 추이 (단위 : 명)

연도	총 계	장기체류			단기체류
		소 계	등 록	거소신고 ²⁾	
2010년	1,261,415	1,002,742	918,917	83,825	258,673
2011년	1,395,077	1,117,481	982,461	135,020	277,596
2012년	1,445,103	1,120,599	932,983	187,616	324,504
2013년	1,576,034	1,219,192	985,923	233,269	356,842
2014년	1,797,618	1,377,945	1,091,531	286,414	419,673
2015년	1,899,519	1,467,873	1,143,087	324,786	431,646
2016년	2,049,441	1,530,539	1,161,677	368,862	518,902
2017년	2,180,498	1,583,099	1,171,762	411,337	597,399
2018년	2,367,607	1,687,733	1,246,626	441,107	679,874
2019년	2,524,656	1,731,803	1,271,807	459,996	792,853
2020년	2,036,075	1,610,323	1,145,540	464,783	425,752
2021년 4월	1,990,228	1,572,345	1,104,215	468,130	417,883

출처: 법무부(2021년 4월,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2) 등록자격별 외국인 현황

다음 <표 2-2>는 2021년 4월 기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등록별 현황이다.

<표 2-2> 등록 자격별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단위 : 명)

문화예술 (D-1)	유학 (D-2)	일반연수 (D-4)	취재 (D-5)	종교 (D-6)	상사주재 (D-7)	기업투자 (D-8)	무역경영 (D-9)
31	107,173	46,208	114	1,220	1,042	5,552	1,988
교수 (E-1)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비전문취업 (E-9)
2,165	12,537	3,229	206	313	2,840	19,623	219,425
선원취업 (E-10)	방문동거 (F-1)	거주 (F-2)	동반 (F-3)	영주 (F-5)	결혼이민 (F-6)	방문취업 (H-2)	기 타
16,803	98,021	42,984	19,576	163,158	132,422	134,347	73,238

출처: 법무부(2021년 4월,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2) 매해 신고한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 현황

<표 2-2>를 보면 국내 체류자격의 수는 비전문취업(E-9), 영주(F-5), 방문취업(H-2), 결혼이민(F-6), 방문동거(F-1)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방문취업(H-2)와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자들의 자녀는 주로 방문동거(F-1)의 체류자격과 재외동포(F-4)의 체류 자격으로 생활하고 있다. 전자인 방문동거(F-1)는 한국에 먼저 입국 한 부 또는 모가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 발급받는 체류자격이며, 후자인 재외동포(F-4)는 2019년 7월 2일부터 재외동포 직계비속인 경우, 1인에 한해 한국입국을 허용하여 재외동포비자를 받고 입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때 발급받는 비자가 F-4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20세가 넘어도 체류 기간을 변경하여 체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그 외의 자녀인 경우에는 방문동거 F-1의 발급이 가능하며 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외 거주(F-2)와 영주(F-5) 그리고 결혼이주(F-6)자의 가족으로 국내 입국하는 경우에도 방문동거(F-1)의 체류자격이 부여된다.

3) 국내 외국인 동포 현황

<표 2-3>에서 보듯이 국내 체류 외국 국적 동포는 878,439명으로 매년 3만 명에서 10만 명씩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의 상황을 맞이한 2020년 외국국적동포는 811,211명으로 전년 대비 7.7%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2-3> 연도별 외국 국적 동포 현황(2016~2020) (단위: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외국국적동포	775,715	841,308	878,665	878,439	811,211

출처 : 법무부(2021). 출입국통계

이어서 연도별 주요 국적별 외국 국적 동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2-4>와 같다. 외국 국적 동포를 국적, 지역별로 보면 2020년 기준 중국이 81.7%(662,845명)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미국 5.4%(44,039명), 우즈베키스탄 3.9%(31,962명), 러시아 3.3%(26,871명) 순이다³⁾. 이 수치는 2016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년 감소한 것으로, 이 역시 코로나19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근현대의 이민사에서 미국이나 캐나다로의 이민은 주로 경제활동이나 자

3) 법무부(2021). 출입국 통계, 외국 국적 동포.

녀교 육을 위해 전개되어 온 것에 비해,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국가는 일제강점기의 일제의 탄압을 피해 만주 지역으로 이주했던 한민족이 이후 다시 강제 이주되는 과정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현재 이 지역의 재외동포는 그 후손들이 많다. 흔히 이들을 고려인이라고 하나, 외국 국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국내 외국인 동포(재외동포)라는 지위를 갖게 되었다.

<표 2-4> 연도별 주요 국적별 외국인 현황(2016년~2020년) (단위: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중국	652,028	702,932	728,539	719,269	662,845
미국	46,050	45,177	45,011	45,655	44,039
우즈베키스탄	26,385	31,081	34,355	36,752	31,962
러시아	15,555	21,264	25,302	28,020	26,871
캐나다	15,959	15,947	15,933	16,046	15,975
카자흐스탄	5,236	9,223	12,586	14,992	13,033
오스트레일리아	4,609	4,617	4,624	4,783	4,430
뉴질랜드	2,387	2,395	2,436	2,490	2,393
기타	7,506	8,672	9,879	10,432	9,663

출처 : 법무부(2021). 출입국 통계

이 중 <표 2-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국 국적 동포의 거소 신고자는 2021년 4월 기준 468,130명으로, 국적별로는 중국이 352,234명으로 가장 많으며 미국, 러시아, 캐나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5> 외국 국적 동포 거소 신고자 국적별 현황 (2021.4) (단위 : 명)

총 계	중 국	미 국	러시아	캐나다	우즈베키 스탄	카자흐 스탄	기 타
468,130	352,234	42,660	24,564	15,516	14,440	6,197	12,519

출처: 법무부(2021년 4월,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 월보)

또한, <표 2-6>의 외국 국적 동포의 거소 신고 현황을 보면 2020년 기준 464,783명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2-1> 함께 참조)

<표 2-6> 연도별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 현황(2016년~2020년) (단위: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거소신고자	368,862	411,337	441,107	459,996	464,783

출처 : 법무부(2021). 출입국통계

한편, 외국 국적 동포 거소 신고자의 거주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표 2-7>), 2021년 4월 기준 경기, 서울, 인천, 충남 순으로 많이 분포되어 나타나고 있다. 주로 경기, 서울, 인천의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 볼 때, 충남에는 다른 시·도지역에 비해 외국 국적 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충남 지역이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한 이유도 있겠으나, 충남 지역, 특히 천안, 아산지역에 소재한 산업시설의 규모나 유형, 이에 따른 근로 및 생활환경으로 인해 집단으로 거주하게 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충남에 외국 국적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유로 유추할 수 있다.

<표 2-7> 외국 국적 동포 거소 신고자 거주지역별 현황 (단위 : 명)

계	경기	서울	인천	충남 ⁴⁾	충북	경남	경북	울산
468,130	196,021	141,852	30,588	26,595	13,294	12,797	8,423	6,425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전남	강원	제주	대전
	6,353	4,801	4,534	3,511	3,430	3,281	3,139	3,086

출처: 법무부(2021년 4월,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나. 충남 체류 외국인 현황

충남에 등록,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충남 등록 외국인 현황

<표 2-8>에 따르면, 2021년 4월 현재 충남 등록 외국인은 66,971명이다. 이 수는

4) 세종특별자치시 1,323명 포함

전국 시도 중 경기,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서 많은 외국인들이 충남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표 2-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충남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 국적 동포가 26,595명으로 경기, 서울, 인천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인천 지역과는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경기, 서울의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의 시도에서 재외동포를 포함하여 외국인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8> 등록 외국인 거주지별 현황 (단위 : 명)

계	경기	서울	충남 ⁵⁾	인천	경남	경북	부산	충북
	363,505	231,140	66,971	65,834	64,842	51,442	40,033	35,726
	전남	전북	대구	제주	광주	울산	대전	강원
	31,990	30,529	27,547	22,108	21,203	17,157	17,237	16,951

출처: 법무부(2021년 4월,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2) 충남 등록 외국인의 지역별, 연령별 현황

2020년 기준 충남에 등록,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분포로서 충남의 15개 시군구 지역 및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표 2-9>와 같다. 우선 지역으로 보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천안(18,188명)이고, 이어서 아산(16,972명), 당진(5,450명), 서산(4,078명), 논산(3,865명)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천안과 아산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세 번째로 많은 지역인 당진에 비해서도 3배 이상의 인원을 보이고 있어 천안과 아산은 충남에서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대규모의 산업시설이 이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요구하는 노동력에 따라 취업 여건이 유리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연령 별로는 20~29세가 20,384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30~39세(19,257명), 40~49세(9,181명) 순으로 외국인이 많이 체류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자녀 연령대에 속하는 20세 미만 인원 중 10세 미만과 10~19세까지의 인원은 각 2,982명과 2,117명으로 10세 미만의 어린 자녀들이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세종특별자치시 5,014명 포함

<표 2-9> 충남 등록 외국인의 지역별,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지역	총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룡	209	2	2	67	49	30	46	13
공주	1,991	36	62	830	554	215	214	80
금산	2,148	17	27	1,298	454	195	112	46
논산	3,865	77	68	1,674	1,194	444	294	114
당진	5,450	107	47	999	1,348	534	363	86
보령	2,859	17	29	974	1,120	497	174	49
부여	1,118	4	9	394	422	140	120	29
서산	4,078	230	120	1,143	1,151	698	579	157
서천	1,277	4	8	479	487	213	69	30
아산	16,972	1,336	825	5,123	4,972	2,505	1,766	442
예산	2,208	45	30	621	726	304	234	68
천안	18,188	1,024	824	5,327	5,292	2,719	2,358	644
청양	623	5	5	215	209	74	93	22
태안	1,384	14	9	378	525	306	119	33
홍성	2,356	64	52	862	754	307	240	67
계	64,726	2,982	2,117	20,384	19,257	9,181	6,781	1,880

출처: 법무부(2021). 2020년 등록 외국인 지역별·연령별 현황 통계 재구성

특히 충남 등록 외국인 중 20세 이하 연령대의 지역별 분포와 지난 2019~2020년 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표 2-10>과 같다. 2020년 기준 20세 이하 연령대의 분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아산(2,161명)과 천안(1,846명)이다. 이 결과는 <표 2-9>의 지역별 분포에서 천안, 아산에 집중되어 나타난 것과 유사하다. 단, 충남에서 전체 등록 외국인 수가 많은 지역은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논산의 순이었으나, 20세 이하 연령대가 많이 분포되어있는 지역은 아산, 천안, 서산, 당진, 논산의 순이다. 천안과 아산 지역에 등록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나, 특히 자녀 연령대인 20대 이하는 아산에 가장 많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당진보다 서산에 많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또한, 2020년 기준 20세 이하의 인원 및 분포는 2019년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충남 지역에서는 1년 전에 비해 총 930명이 감소하였으며, 감소 인원이 많았던 지역은 천안, 당진, 아산, 서산, 금산의 순이다. 2020년 코로나19의 상황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가 줄어든 것과 같이 충남 체류

외국인의 수도 줄었으며 그들의 자녀의 수도 함께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표 2-10> 충남 등록 외국인 20세 이하 2019~2020년 증가현황 (단위 : 명)

지역	2019년	2020년	증가
계룡	6	4	-2
공주	124	98	-26
금산	102	44	-60
논산	175	145	-30
당진	335	154	-181
보령	58	46	-12
부여	21	13	-8
서산	422	350	-72
서천	23	12	-11
아산	2,267	2,161	-106
예산	87	75	-12
천안	2,256	1,846	-410
청양	8	10	+2
태안	16	23	+7
홍성	127	116	-11
충청남도	6,027	5,097	-930

출처: 법무부. 2019년, 2020년 등록 외국인 지역별·연령별 현황 통계 재구성

다. 다문화 학생 현황

일반적으로 다문화학생 유형은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 가정 자녀로 구분한다. 또한 국제결혼 가정 자녀는 국내 출생과 중도입국 학생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교육부의 2020 교육 기본 통계에 의하면 2020년 현재 초·중·고 다문화 학생 수는 147,378명으로 2019년 전년(137,225명) 대비 10,153명(7.4% ↑) 증가하였다. 2012년 처음 조사 시행 당시 46,954명이던 다문화학생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5년간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하여 2020년 14만 명을 초과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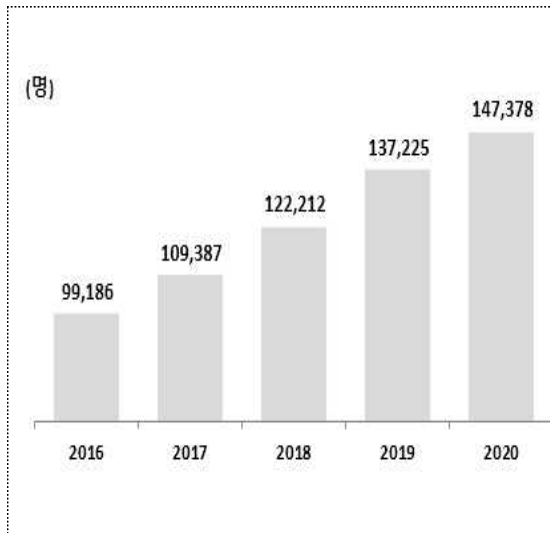
학교급별로 보면, 2019년 대비 2020년 다문화학생 초등학생은 107,694명으로 3,813명(3.7%↑), 중학교는 26,773명으로 5,080명(23.4%↑), 고등학교는 12,478명으로 1,244명(11.1%↑), 각종학교 433명으로 16명(3.8%↑)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전체 학생 수는 2020년 기준 536만 명이며, 2018년 563만 명, 2019년 546만 명에서 점차 줄고 있는 추세이다. 전체 초·중등 학생 중 다문화 학생 비율은 2020년 2.8%로 전년(2.5%) 대비 0.3%p 상승하였다. 이 중 초등학교가 4.0%, 중학교 2.0%, 고등학교 0.9%로 전년 대비 초등학교 0.2%p, 중학교 0.3%p, 고등학교 0.1%p 상승하여 전체 학생 중 다문화학생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다문화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어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비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1] 다문화 학생 수 및 비율의 변화 추이

출처 : 교육부(2021).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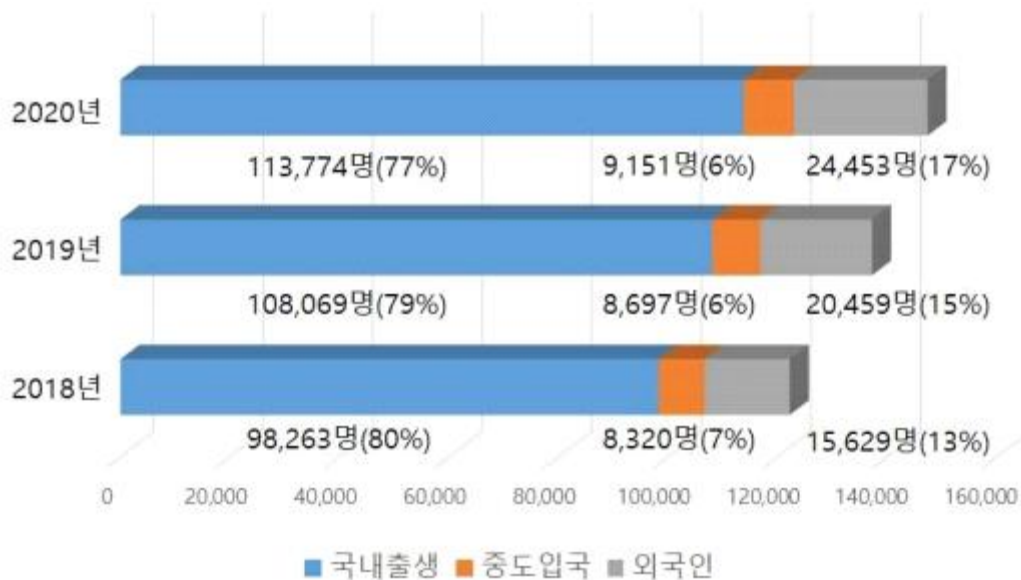
[그림 2-2] 초·중·등 다문화 학생 수



[그림 2-3] 학교급별 다문화 학생 수

출처 : 교육부(2020). 2020 교육기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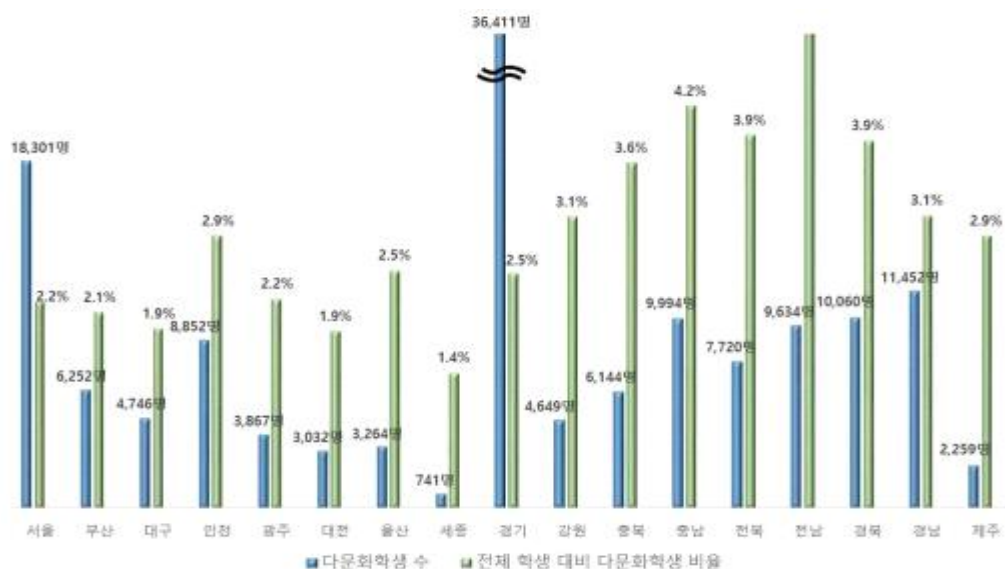
유형별 다문화 학생 비율은 2020년 기준 국제결혼가정(국내출생)이 77.2%(113,774명)로 가장 높았고, 외국인가정 16.6%(24,453명), 국제결혼가정(중도입국) 6.2%(9,151명) 이다. 2018년 이후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 학생의 증가세가 뚜렷하여 2019년 대비 약 15%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4] 다문화학생 유형별 변화 추이

출처 : 교육부(2021).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한편, 지역별로 보면 다문화학생은 경기, 서울에 가장 많이 재학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학생 비율은 전남, 충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출신국 별 다문화 학생 비율은 베트남 31.7%, 중국(한국계 제외) 23.7%, 필리핀 10.3%, 중국(한국계) 8.3%, 일본 5.9%이다.



[그림 2-5] 지역별 다문화학생 수 및 다문화학생 비율

출처 : 교육부(2021).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다문화학생 유형 중 국내출생과 중도입국 학생의 전국 지역별 분포는 다음 <표 2-11>과 같다.

<표 2-11> 충남 다문화 학생 가족 유형별 현황 (2020) (단위 : 명)

시도	총계		가족유형별					
			국내출생		중도입국		외국인자녀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합계	147,378	72,857	113,774	56,106	9,151	4,645	24,453	12,106
서울	18,301	9,129	10,928	5,483	1,728	853	5,645	2,793
부산	6,252	3,139	5,427	2,732	463	239	362	168

대구	4,746	2,450	4,007	2,059	308	166	431	225
인천	8,852	4,412	5,936	2,980	718	373	2,198	1,059
광주	3,867	1,902	3,070	1,471	162	79	635	352
대전	3,032	1,510	2,675	1,343	160	81	197	86
울산	3,264	1,602	2,734	1,335	182	108	348	159
세종	741	372	623	298	65	37	53	37
경기	36,411	17,942	23,694	11,538	2,894	1,471	9,823	4,933
강원	4,649	2,288	4,333	2,129	163	85	153	74
충북	6,144	3,033	5,021	2,504	362	171	761	358
충남	9,994	4,902	7,970	3,930	495	255	1,529	717
전북	7,720	3,744	7,273	3,524	239	118	208	102
전남	9,634	4,701	9,142	4,471	295	137	197	93
경북	10,060	4,942	9,077	4,446	277	144	706	352
경남	11,452	5,681	10,009	4,957	460	229	983	495
제주	2,259	1,108	1,855	906	180	99	224	103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20), 교육통계서비스 재구성

위의 내용을 보면 2020년 다문화학생은 총 147,378명이며, 전국적으로 다문화 학생이 많은 지역은 경기, 서울, 경남, 경북, 충남, 전남의 순이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내 출생 다문화학생 수는 경기, 서울, 경남, 전남, 경북, 충남 순으로 많으며, 중도입국 학생 수는 경기, 서울, 인천, 충남, 부산, 경남의 순이다.

라. 충남 다문화학생 현황

전체적으로 충남의 다문화 학생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충남 체류 다문화 학생 유형별 현황

위의 <표 2-11>에서 보듯이 충남의 다문화가정 학생은 2020년 기준 9,994명이며, 이 중 국내출생 다문화가정은 7,970명, 중도입국 학생은 495명, 외국인가정 자녀는 1,529명이다. [그림 2-5]를 통해서 충남의 다문화학생 비율은 전남에 이어 2위를 차



지하고 있어 전국에서 상위에 해당되는 것을 파악하기도 하였다.

충남의 다문화가정 학생은 전체 시도의 분포를 볼 때, 경기, 서울, 경남, 경북에 이어 5번째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충남의 국내출생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경기, 서울, 경남, 전남, 경북에 이어 6번째로 많으며,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 학생은 경기, 서울, 인천에 있어서 각각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남은 상대적으로 국내출생 학생 수보다 중도입국이나 외국인가정 자녀 학생 수가 지역 비교에서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경기, 서울, 인천의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 중에서는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서 충남의 외국인 자녀 학생 수는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다. 5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남지역과 비교해 볼 때, 중도입국 학생 수의 차이는 얼마 안 되지만, 외국인 자녀 수는 1.5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충남의 다문화학생 분포의 특징은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 자녀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특히 부모의 국적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충남 체류 다문화 자녀 부모국적별 현황

국가교육통계센터(2020)의 자료에 따라 지역별 국제결혼가정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의 부모 출신 국가별 분포를 정리, 제시한 내용은 <표 2-12>, <표 2-13>과 같다.

우선, 충남의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부모 출신 국가별 분포를 보면 베트남(3,562명)이 가장 많고, 이어서 중국(1,441명), 필리핀(1,361명), 일본(467명), 중국(한국계)(420명), 캄보디아(350명), 태국(176명), 몽골(128명), 우즈베키스탄(126명)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나머지 국가들은 비교적 100명 이하의 분포를 보인다.

아울러 충남의 외국인 가정 자녀의 부모 출신 국가별 분포를 보면, 중국(365명), 우즈베키스탄(341명), 러시아(290명), 중앙아시아(259명), 중국(한국계)(127명)의 순이다. 나머지 국가들은 비교적 100명 이하의 분포를 보인다.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충남에는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출신 자녀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충남에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의 자녀가 타 시·도에 비해 비

교적 많다는 것은 충남의 다문화 학생을 위한 정책에도 차별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이들은 한인 이민사를 고려할 때 재외동포로서 지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본다.

<표 2-12> 국제결혼가정 자녀 지역별 부모 출신 국가별 분포(2020)

지역	전체다문화학생	소계	일본	중국	중국(한국계)	대만	몽골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합계	147,378	122,925	8,458	25,571	7,629	712	2,215	14,804	45,998	2,094	491	1,069	751
서울	18,301	12,656	1,335	3,548	1,504	165	296	1,062	2,883	169	45	114	83
부산	6,252	5,890	389	1,111	276	55	47	617	2,410	55	33	49	29
대구	4,746	4,315	195	861	239	26	33	356	1,914	35	19	38	15
인천	8,852	6,654	366	2,161	499	92	150	641	1,759	113	23	60	62
광주	3,867	3,232	163	558	173	8	79	516	1,236	69	9	28	20
대전	3,032	2,835	161	536	88	14	39	396	1,097	42	26	14	9
울산	3,264	2,916	133	586	171	15	57	279	1,320	19	16	32	30
세종	741	688	45	147	23	10	4	79	268	7	-	7	4
경기	36,411	26,588	2,080	7,423	2,113	183	626	2,522	7,460	560	160	282	193
강원	4,649	4,496	349	629	260	19	53	793	1,636	98	4	39	66
충북	6,144	5,383	320	949	255	13	188	788	2,256	120	10	36	21
충남	9,994	8,465	467	1,441	420	34	128	1,361	3,562	176	35	54	47
전북	7,720	7,512	560	1,250	340	9	94	1,197	3,063	113	13	65	27
전남	9,634	9,437	748	1,113	377	12	194	1,705	4,063	230	16	59	33
경북	10,060	9,354	397	1,399	448	16	93	1,052	4,947	121	41	59	43
경남	11,452	10,469	617	1,469	352	26	115	1,072	5,399	153	40	98	59
제주	2,259	2,035	133	390	91	15	19	368	725	14	1	35	10

<표 2-12> 국제결혼가정 자녀 지역별 부모 출신 국가별 분포(2020)-계속

지역	미국	러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기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	인도	서남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중남미
합계	1,173	1,444	707	245	236	1,517	5,101	71	396	94	209	1,677	263
서울	247	202	154	67	55	179	278	4	32	11	35	145	43
부산	56	167	57	17	22	125	226	1	26	12	13	70	27
대구	49	50	22	4	8	32	312	1	7	4	9	73	13

인천	69	144	48	24	8	83	132	14	39	10	20	120	17
광주	19	27	18	6	7	32	187	-	17	3	4	45	8
대전	46	56	29	4	8	39	162	2	5	-	-	60	2
울산	13	33	18	4	13	45	93	-	11	1	1	20	6
세종	16	6	8	1	4	17	22	2	4	2	-	12	-
경기	393	426	186	70	56	357	734	23	130	33	70	434	74
강원	36	37	15	2	3	67	271	1	17	1	2	91	7
충북	32	55	9	10	13	56	152	2	11	4	4	71	8
충남	41	56	19	11	8	92	350	8	10	2	5	126	12
전북	31	38	12	2	5	82	502	-	29	2	6	61	11
전남	25	40	21	5	6	65	617	2	13	1	5	76	11
경북	46	32	21	5	7	87	415	3	12	-	8	89	13
경남	40	60	47	10	12	112	564	4	31	7	23	150	9
제주	14	15	23	3	1	47	84	4	2	1	4	34	2

<표 2-13> 외국인가정 자녀 지역별 부모 출신 국가별 분포(2020)

지역	소계	일본	중국	중국(한국계)	대만	몽골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합계	24,453	228	9,314	4,667	115	1,059	336	685	42	57	424	1,455
서울	5,645	129	2,484	1,966	25	322	76	108	5	11	65	42
부산	362	2	82	28	4	14	4	30	-	3	15	22
대구	431	2	76	33	1	30	11	21	-	2	50	46
인천	2,198	1	744	195	23	81	18	43	7	3	63	191
광주	635	1	39	20	2	30	9	25	-	-	13	97
대전	197	2	35	8	8	35	6	22	-	7	8	-
울산	348	-	199	64	1	16	6	17	-	-	5	5
세종	53	-	15	10	-	-	-	3	-	-	1	5
경기	9,823	54	4,578	1,919	20	320	136	212	26	16	147	407
강원	153	2	34	13	5	23	-	7	1	-	5	13
충북	761	26	136	60	4	33	6	21	-	-	2	87
충남	1,529	3	365	127	5	43	11	25	-	1	16	259
전북	208	1	50	19	-	33	10	18	-	1	4	4
전남	197	-	75	23	2	17	9	15	-	-	-	10
경북	706	2	73	72	4	37	10	34	2	5	16	126
경남	983	1	182	79	3	22	20	83	1	6	11	141
제주	224	2	147	31	8	3	4	1	-	2	3	-

<표 2-13> 외국인가정 자녀 지역별 부모 출신 국가별 분포(2020) -계속

지역	미국	러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기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	인도	서남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중남미
합계	195	1,930	154	321	23	364	48	6	96	80	318	2,504	32
서울	44	61	16	73	7	43	5	1	30	10	31	74	17
부산	10	69	4	1	6	8	1	-	3	1	10	44	1
대구	8	46	2	8	-	3	2	-	-	5	13	70	2
인천	3	262	21	60	1	75	3	1	31	5	85	281	1
광주	2	117	7	5	-	21	3	-	1	3	11	227	2
대전	9	4	5	7	-	9	-	-	2	6	18	3	3
울산	2	6	-	1	-	1	-	-	-	2	4	19	-
세종	2	6	-	2	-	2	1	1	-	-	-	5	-
경기	76	641	54	123	6	112	17	2	24	25	55	847	6
강원	4	8	-	4	-	14	2	-	-	3	3	12	-
충북	-	151	6	2	-	18	1	-	-	1	22	185	-
충남	6	290	16	2	-	10	-	-	-	4	5	341	-
전북	3	7	1	5	-	11	2	-	1	2	23	13	-
전남	-	9	10	7	-	1	3	-	2	1	3	10	-
경북	18	108	4	8	2	23	-	-	-	10	19	133	-
경남	3	144	8	9	1	7	8	1	2	1	12	238	-
제주	5	1	-	4	-	6	-	-	-	1	4	2	-

출처 : 국가교육통계센터(2020).

2. 코로나 이후의 가족 및 사회생활의 변화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으로 2021년 현재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생활양식과 문화까지 바뀌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경험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화로 표현되는 물리적인 시공간의 압축 현상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측면에서 세계적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전 세계 사람들과 자본은 국경을 넘나들었고, 각 나라의 거대도시들은 그 주요 장이 되었다. 팬데믹은 그 결과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규모가 큰 사회, 인구의 이동과 접촉이 집중된 사회는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순간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다.

가. 코로나 이후 사회의 변화

코로나는 인류 사회의 변화에 큰 획을 긋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삶의 여러 가지 제약이나 어려움은 처음에는 그저 곧 끝날 때까지 참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언택트, 온라인 등과 같은 언어의 일상화와 함께 비대면적 상황이 고착화되면서 이제는 무엇이 일상이고 정상이었는지에 대한 혼란을 가져오게 한다. 앞으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져 가면서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많은 석학들이나 논객들은 코로나 이후의 세상, 인류의 삶에 대해 다양한 예측을 제시하고 있다. 몇 가지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술혁신의 가속화

우리 사회는 코로나 이전부터도 이미 4차 산업혁명으로 언급되는 기술혁신(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로봇공학, 소셜 미디어, 3D프린팅 등)을 주목하여 왔다. 이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변화를 겪으면서 한편에서는 기술혁신으로 인한 미래 사회의 모습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는 이러한 변화에 더욱 속도를 더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기술혁신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와 목표를 더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생활 속에서 실시간 화상 강의나 회의 프로그램이나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부쩍 활성화, 대중화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기술의 발달은 비대면 상황에 필요한 맞춤형으로 더욱 가속화되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그간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람들이 이동하였다면, 이제는 자원과 서비스가 사람을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배달문화는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보편화되었고 정착되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차도와 인도 외에 배달 로봇이 따로 다닐 수 있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길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2) 정보격차로 인한 사회 불평등

코로나는 앞으로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는 시간을 단축시켜 나갈 것이나, 기술의 혁신이 긍정적 변화와 영향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기술의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발전의 이면에는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디지털 격차(정보격차)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정보격차는 경제적 상황이나 성, 연령, 지역별에 따라 지식 정보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불균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보격차의 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새로운 불평등의 요소가 될 것이다. 사회와 거대 조직은 기술의 발달로 긍정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속의 개인은 더욱 힘들어지게 되어 그 불평등의 정도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생긴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온라인학습은 교육의 격차, 교육의 불평등을 여지없이 드러내었다. 학교 교실에서 제공하던 평등화 효과는 온라인에서는 통하지 않게 되었다. 디지털 접속시설이나 교육 환경에 따라 교육 수용의 질이 달라지고 부족한 학습을 사교육으로 메울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한 개인의 미래의 삶을 결정짓는 예측요인이 되어간다. 온라인 교육은 그리 친절하지 않았고, 코로나19는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교육의 민낯을 들추어내었다.

3) 인간관계의 재해석

코로나 상황은 사람들 간의 관계 맺음 방식에 대한 재해석을 가져왔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식이나 접촉의 거부는 인간관계를 유지·향상 시켰던 방식인 악수, 포옹 등과 같은 신체적 접촉을 오히려 실례가 되거나 꺼려하는 행동으로 전락시켰다. 뿐만 아니라 만남의 목적성을 더 견고하고 분명하게 하였다. 꼭 필요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는다는 방식은 필요의 대상을 심리·정서적 영역 대신 경제·직업적 영역으로만 한정시켰다. 대인관계에서 사교, 취미생활과 같은 모임이 위축되면서 상대는 어느덧 만나지 않아도 좋을 그저 그런 대상으로 잊혀져 가기도 하였다. 사회적 지지망을 제공하였던 친척, 친구 등과의 관계도 소홀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한편으로, 필요에 의해 유지해야만 했던 그간의 사회적 관계는 코로나를 이유로 점점 축소되어 불필요한 감정 소모나 사회적 관계 유지의 노동은 줄어들기도 하고 있다. 이것이 점차 익숙해지면 우리는 ‘관계 맺기’를 다시 재정의, 재해석해 보아야 하고 어쩌면 인류는 오랜 시간 유지해왔던 관계 맺기에 대한 학습을 처음부터 새로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벌써 온라인 SNS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였는지도 모른다.

코로나는 업무 습관, 사회적 관계의 습관 등을 변화시켜 일상을 벗어났던 삶의 양태들이 새로운 일상이 되고 있다. 식당에서 혼자 밥 먹기, 혼자 취미 생활하기 등의

생활방식이 앞으로도 지속되어 또 다른 적응의 형태로 하나의 생활양식이 된다면 ‘인간관계 맺기’의 학습은 미래 교육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4) 온라인 의사소통 방식의 고착화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면 말은 점점 줄어들고 핸드폰, 인터넷상의 문자로 소통하는 인간 소통 시스템의 전반적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는 디지털 격차나 인간관계의 재해석과도 관련되는 부분이다. 인간 소통 시스템의 변화를 촉진하거나 유지시켜 주는 디지털 방식과 그것을 운영하는 총체적 운영 시스템은 인간 사회를 더욱 지배해나갈 것이다. 흔히 우리는 인간의 삶에 필요한 수단이라고 하면 의식주를 꼽지만 앞으로 이를 의·식·주·인터넷으로 바꾸어야 할지도 모른다.

게다가 현재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거대 인터넷 운영 시스템, SNS 소통 프로그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는 끊임없이 검색하고 접속하며 흔적을 남기고 있으며, 그 결과 모여지는 빅데이터의 자본은 우리를 다시 지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의 디지털 문명은 코로나 이후 인류가 소통하면서 함께 살아갈 하나의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미래 교육에서도 온라인 소통방식에 대한 학습은 교육의 중요한 대상이자 방법이 될 것이다.

5) 삶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성찰

학업, 직장 등 정기적으로 공간을 이동하면서 이루어왔던 삶의 모습은 이동시간이 줄어들면서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하였다. 활용할 시간이 많아졌으나, 사람들은 주로 집이라는 공간에 머물게 되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몰랐던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느낀다거나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돌보아야 할 대상이 늘어난 것으로 인해 예전에 없었던 갈등을 더 느끼게 되기도 한다. 코로나 이후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느끼는 양면의 감정 속에서 서서히 적응해 나갈 것이다.

혹자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현 세계를 떠받치던 4개의 기둥, 즉 산업의 지구화, 생활의 도시화, 가치의 금융화, 환경의 시장화라는 기둥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인류가 나아갈 길로서 시장근본주의의 극복, 포용적이

고 효율적인 민주주의 구축,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방역, 욕망에 대한 질서 부여, 인간 서식지 무한 확대 방지, 도시적 공간 집약화 해소 등을 제시한다(최재천 외, 2020: 104~125). 코로나로 인한 이러한 변화는 거시적으로 기후변화, 자원고갈, 불평등문제처럼 국가 사회적, 세계적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인류는 일종의 자정작용 의미에서 이성과 합리성에 집중되었던 가치와 기존의 정복, 경쟁, 권력과 같은 삶의 원리들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게 될 것이다. 개인 또한 그동안의 삶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자신의 생애를 재설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미래 교육은 삶에 가치에 대한 새로운 성찰의 내용을 담아야 할 것으로 본다.

나. 코로나 이후 가족생활의 변화

전 세계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는 다양한 장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 이후의 사회 변화는 사회구조나 기술의 발전, 인간관계와 같은 보다 거시적 측면에 대한 고찰이라고 본다면, 개인이나 가족의 삶에서도 의식주 생활만이 아니라 가정 내 기능으로 여겨졌던 자녀 돌봄, 양육, 자녀 교육의 측면에서도 변화의 양상을 보인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고찰하고 있다.

1) 자녀 양육 및 돌봄의 현황

코로나 팬데믹 상황의 자녀 양육 및 돌봄 현황을 연구한 최윤경(2020)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돌봄 공백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가구소득의 변화를 경험한 가구에서 그리고 아버지에게 비해 어머니가, 특별재난지역(41.8%), 맞벌이 가구(49.4%)와 취약가구(46.9%), 초등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돌봄 공백을 경험하는 돌봄 취약층의 특성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주요 육아 지원 인프라의 휴원 휴업 조치 이후 자녀 양육을 위한 서비스 이용에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이 59.0%, 없었다는 응답이 41.0%로 나타났다.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 중, 자녀를 기관에 보내지 않고 주로 가정 내 양육을 한다(73.3%)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조부모/친인척에게 도움을 받는다(24.0%)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초등 3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맞벌이 여부와 자녀 연령 별로 자녀 돌봄과 서비스 이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부모 직접 돌봄이 우세한 가운데 조부모/친인척 돌봄의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자녀가 혼자 있는 경우는 초등 자녀(12.8%)에서 많았으나 전체적으로 개별 가정에서의 돌봄 인력(아이돌보미, 민간베이비시터)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최윤경(2020)은 재난 상황에서 교육과 보육 기회의 단절을 방지하는 공공서비스 운영의 온·오프 라인 다변화 전략과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생활과 일 돌봄의 균형을 회복하는 정책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2020)가 발표한 연구에서는 초등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중 36.2%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휴원으로 돌봄 공백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맞벌이 가구는 49.4%, 외벌이 가구는 21.2%가 돌봄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영란(2020)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긴급돌봄을 이용한 비율이 영유아 46.9%, 초등학생 15%였다고 하여 자녀가 어릴수록 긴급돌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이후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 모두에서 여성의 자녀 돌봄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물론 맞벌이 여성의 67.9%와 외벌이 여성의 89.9%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시기에도 ‘자녀를 주로 돌본 사람은 본인’이라고 응답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돌봄을 위해 휴가를 사용한 임금 근로자는 전체의 12.9%로 매우 저조하다. ‘사용하고 싶었으나 업무 공백, 회사 사정 등 눈치가 보여서 미신청’한 경우가 34.5%였다. 돌봄을 위한 연차 사용 및 기타 자녀 돌봄 제도(재택 근무, 단축 근로, 시차 출퇴근, 무급 휴직 등)사용률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녀가 집에 혼자 있는 경우는 미취학 영유아가 6.2%(하루 평균 2시간 32분), 초등학생이 38%(하루 평균 3시간 54분), 중고등학생이 72.3%(하루 평균 5시간 31분)로 연령이 높을수록 그 비율과 시간이 증가하고 있으나, 절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도 혼자 있는 경우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김영란(2020)은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변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성평등한 상호 돌봄 문화의 조성, 안전한 긴급돌봄 체계 마련,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우울감 및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 마련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세원(2021)은 코로나19 이후 뉴스 분석을 통하여 코로나19가 장기화될수록 아동보호 시스템이 더 잘 작동 했다고보다는 문제 양상들이 더 많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고 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아동들에게는 감염병이라는 직접적인 위협보다 그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의 붕괴로 인한 위협이 더 절망적이었음을 시사한다.

성경하·고선강(202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조사대상 가족의 62.5%가 돌봄 공백 시간이 증가하였고 71.3%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어머니의 자녀 돌봄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보내는 절대적 시간 부족이 자녀 돌봄의 어려움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2020년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원 휴교 기간에 아동을 어떻게 돌보았느냐는 질문에 부모나 친척에게 아이를 맡겼다(42.6%)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부모가 직접 집에서 돌보았다(36.4%), 긴급돌봄을 활용했다(14.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보호자 없이 혼자 있거나 형제자매끼리만 있었던 아동이 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시간 이상 혼자 있는 아동도 40%가 넘게 나타나(박영숙, 2020) 코로나 이전 상황에 비해 혼자 집에 있는 아동 비율이 증가하였다.

한편, 자녀 양육과 돌봄을 수행하는 부모나 양육자의 입장이 아니라, 실제 돌봄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서의 자녀를 대상으로 코로나19가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연구한 결과도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1,0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평일 낮 시간대 보호자 없이 집에 머무른 초등학생은 46.8%에 달하였다(정익중, 2020a 재인용)

아동들의 일상과 관련하여 굿네이버스가 실시한 2020년 아동 재난 대응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8년보다 3끼 모두 챙겨 먹는 아동의 비율이 50.1%에서 35.9%로 낮아졌으며, 평일 5일 내내 아동끼리만 있는 나 홀로 아동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30.0%로 증가하였다(이봉주, 2020).

2) 자녀 교육 및 학교생활의 현황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교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였다. 아동이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면서 돌봄의 문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진행해야 하는 학교 수업, 즉, 교육의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이봉주(2020)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들에게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활동을 제한받는 것만큼이나(23.6%)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고 숙제를 제출해야 하는 것(20.0%)이 일상에서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아라(2020)는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작된 온라인학습은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더 극심한 교육격차를 낳게 하였음을 우려하였다. 부모의 학습지원이 가능한 아동, 공교육을 사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의 아동에게 온라인 수업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나 돌봄 공백으로 혼자 온라인학습을 해야 하는 아동,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학습결손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실제로 교사나 많은 교육 관련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학력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20)에서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원격수업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초중고 선생님들은 10명 중 8명이 원격수업으로 학생 간 학습격차가 확대되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초등 학부모 응답자 중 46%는 자녀 원격수업을 위한 도움을 주는 데 부담을 느낀다고 하고 있다. 이런 응답은 학교에서 담당하던 자녀의 학업 지도나 생활지도를 가정에서 대신해야 하는 부담감이 반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초등학생들 응답자의 32.6%는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소통 부족이 안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0)에서도 관련된 연구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장 힘든 점은 청소년들은 '친구들과의 관계 단절'을 들었고 보호자는 '자녀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런 결과를 보았을 때 원격수업의 어려움은 학습 면에서는 학습 격차가 가장 우려되지만, 한편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 친구 관계 문제, 즉 소통의 어려움이나 사회성 발달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원격수업은 학습 격차 뿐 아니라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집에서만 학교 수업을 듣게 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되니 무엇보다 사람들 간의 접촉을 염려하는 상황에서 사회성 발달에도 문제들을 염려하게 되는 상황이다.

한편,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가져온 문제는 학력 격차나 사회성 발달의 문제 외에도 다른 문제, 즉, 컴퓨터 등을 통한 온라인학습은 미디어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디어 환경에 노출되면서 미디어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켰다.

평소에도 아동들은 주로 부모가 집안일을 하고 있거나 차로 이동 중인 상황일 때 보호자가 맞벌이여서 홀로 있는 공백 시간이 길어질 때 등 부모가 자녀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없을 때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사용 비율이 16.1%에서 46.2%로 30.1%p 상승했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정익중 2020a)는 코로나19 이후 돌봄 공백 시간이 증가하고 집안에서의 놀이 활동이 부족하자, 아동이 핸드폰과 게임, 인터넷에 몰두하는 시간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온라인 수업은 컴퓨터라는 미디어에 접속해야 하므로, 접속의 상황이 일상적이고 친근해지면서 수업 외에 게임, 인터넷 접속 등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현상과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온라인 개학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초등학생이 증가하였고, 돌봄 공백으로 혼자 있는 초등학생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량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로 인해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의 과도한 미디어 사용은 일차로 비만과 수면이라는 건강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우울과 불안과 같은 정서와 공격성과 같은 행동이 나타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아동 미디어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향후 아동들의 미디어 중독은 더 심각해질 위험이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전후 아동의 일상 변화를 연구한 장익중 외의 연구(2020)에 의하면, 코로나19 전보다 코로나19 후 아동 청소년의 평균 수면 시간은 41분 증가하였고, 학원, 과외, 온라인학습, 혼자 공부하기 등의 공부 시간도 코로나19 전보다 코로나19 후에 56분 더 증가하였다고 하고 있다. 특히 사회계층이 높아질수록 증가량도 더 늘어났다. 반면, 아동 청소년의 운동시간은 코로나 19전보다 평균 21분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 전후로 시간 증감 변화가 가장 컸던 활동은 바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게임기 등의 미디어 사용 시간으로 코로나19 전보다 평균 2시간 44분가량 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사회계층 수준이 낮아질수록 전후 미디어 시간 증가량이 늘어 코로나 19전보다 하위 계층 아이들의 미디어 사용 시간은 중상위 계층보다 월등히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듯이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은 취약계층 아동, 학습 결핍이 누적된 아동, 장애를 가진 아동,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다문화아동의 학력 결핍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호 대상의 아동은 더욱 취약한 디지털 활용 환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Ⅲ

연구 결과

코로나 확산에 따른 충남 중도입국
자녀 돌봄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가. 대상별, 지역별 분포

면접자의 대상과 6개 지역은 다음 <표 3-1>과 같다. 고려인 중도입국 청소년은 6명, 아동은 16명이며 학부모는 총 18명이다. 교사 및 기관 담당자 등 돌봄 종사자는 모두 9명이다. 서산 지역에서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만 이루어졌다.

<표 3-1> 면접자 대상별, 지역별 인원수 (단위: 명)

지역	중도입국자녀 학부모	중도입국 청소년	중도입국 아동	중도입국자녀 돌봄 (학교, 기관) 종사자	합계
천안	5	0	3	0	8
당진	5	2	6	3	16
논산	1	2	2	0	5
서산	0	0	0	4	4
예산	4	2	2	1	9
아산	3	0	3	1	7
합계	18명	6명	16명	9명	49명

나. 일반적 특성 :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

<표 3-2>는 면접 대상자인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자녀)의 일반적 사항이다. 총 22명(청소년 6명, 아동 16명)의 연령은 평균 12.3세이다. 남자가 9명이며, 여자가 12명이다. 출신 국가로는 러시아가 9명, 우즈베키스탄 6명, 카자흐스탄 5명, 키르기스스탄 1명이다. 체류자격은 1명(F-4)을 빼고 모두 F-1이다. 한국 체류 기간은 평균 3.9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연구대상자: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의 일반적 사항

면접 대상자	성별 / 연령	출신 국가	입국시 연령	현재 학력	자녀입국 원인	체류 자격	체류 기간
A1	여/14	카자흐스탄	11	중등1	아빠 따라서	F-1	3년
A2	남/12	러시아	8	초등4	아빠 따라서	F-1	4년
A3	여/12	우즈베키스탄	3	초등4	공부하려고	F-1	9년
A4	여/16	러시아	14	고등1	할머니와 살고 싶어서	F-4	2년
A5	남/12	카자흐스탄	7	초등5	아빠 따라서	F-1	5년
A6	남/11	카자흐스탄	7	초등4	아빠 따라서	F-1	4년
A7	남/8	우즈베키스탄	2	초등2	부모동반	F-1	6년
A8	남/18	러시아	15	고등1	부모동반 입국	F-1	3년
A9	여/10	러시아	7	초등4	부모동반 입국	F-1	3년
A10	남/13	러시아	11	초등6	부모동반 입국	F-1	2년
A11	여/11	카지흐스탄	11	초등3	재입국, 모와 함께	F-1	1년
A12	여/10	러시아	6	초등4	부모동반 입국	F-1	4년
A13	남/8	우즈베키스탄	6	초등2	부모동반 입국	F-1	2년
A14	여/15	러시아	13	중등3	부모동반 입국	F-1	4년
A15	남/12	키르기스스탄	6	초등5	부모님 따라서	F-1	6년
A16	여/13	우즈베키스탄	7	초등6	부모님 따라서	F-1	6년
A17	남/11	러시아	모름	초등4	부모님 따라서	F-1	모름
A18	여/18	우즈베키스탄	15	중등3	부모님 따라서	F-1	3년
A19	여/7	우즈베키스탄	3	초등1	부모님과 함께	F-1	4년
A20	여/17	카자흐스탄	15	중등3	부모님 따라서	F-1	2년
A21	여/9	러시아	5	초등2	할머니, 부모님 따라서	F-1	4년
A22	남/13	우즈베키스탄	8	초등6	부모님과 함께	F-1	5년

다. 일반적 특성 :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 학부모

연구 대상자인 중도입국 학생 학부모의 일반적 사항은 <표 3-2>에 정리하였다. 18명 중 남성은 3명, 15명은 여성이다. 평균연령은 36.2세이다. 출신 국가로는 러시아 6명, 우즈베키스탄 8명, 카자흐스탄 2명, 키르기스스탄 2명이다. 현재 응답자들의 자녀 연령은 평균 11.3세이다. 이들은 대부분 F-1이나 F-4 비자 상태이며, 자녀의 입국 원인은 동반 상태를 답한 사람도 있고, 입국의 목적을 얘기한 응답자들도 있다.

<표 3-3> 연구 대상자: 고려인 중도입국 자녀 학부모의 일반적 사항

면접 대상자	성별/연령	출신국가	자녀 현재 연령	자녀 입국시 연령	자녀 현재 학력	자녀입국 원인	부모 체류 자격
B1	여/34	카자흐스탄	14	11	중등1	아빠 따라서	F-4
B2	여/28	러시아	12	10	초등2	부모 동반 입국	F-4
B3	여/33	우즈베키스탄	13	8	초등6	아빠 일자리 때문에	F-4
B4	여/30	우즈베키스탄	8	3	초등1	가족동반 입국	F-1
B5	여/35	카자흐스탄	9	7	초등2	입국-출국-재입국(동반 입국)	F-1
B6	여/30	우즈베키스탄	8	2	초등2	부모동반	F-4
B7	여/44	러시아	10	8	초등4	부모동반	F-4
B8	여/44	러시아	18	15	고등1	엄마 동반	F-4
B9	여/43	우즈베키스탄	10	8	초등4	엄마 동반	F-1
B10	여/39	우즈베키스탄	8	5	초등2	부모 동반	F-1
B11	여/30	러시아	13	7	초등4	부모 동반	F-1
B12	여/30	우즈베키스탄	12	6	초등6	아빠 일자리 없어서	H-2
B13	여/30	러시아	12	9	초등5	아빠 일자리 찾아서	F-4
B14	남/36	우즈베키스탄	12	7	초등5	엄마 동반	F-4
B15	남/48	러시아	11	7	초등4	부모동반 입국	F-4
B16	남/41	키르기스스탄	11/9	6/3	초등5/초등2	동반 입국	F-4
B17	여/40	우즈베키스탄	여7/남15	여2/남10	초등1/중등2	가족이 같이 살려고	F-4
B18	여/37	키르기스스탄	남18/여8	남12/여2	남고3/여중1	부모님 따라서	F-4

라. 일반적 특성 :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 돌봄 종사자(학교, 기관)

중도입국 학생 돌봄 종사자로서 학교의 선생님과 기관의 담당자가 있다. 면담은 초등학교 교사 4명과 생활복지사, 한국어 교사, 기관 원장, 이사장 등 총 9명이다. 성별로는 남자 3명, 여자 6명이며, 경력은 평균 7.2년이다. 초등교사는 서산의 차동초등학교 소속 교사이다. 차동초등학교는 중도입국 학생 우수교육 사례학교로 주목받아 오는 곳이다.

<표 3-4> 연구 대상자 :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 돌봄 종사자의 일반적 사항

면접 대상자	성별	소속	돌봄 종사 경력	직책	지역
C1	여	차동초등학교	2년	교사	서산
C2	여	차동초등학교	9년	교사	서산
C3	남	차동초등학교	9년	교사	서산
C4	남	차동초등학교	8년	교사	서산
C5	여	도담도담(지역아동센터)	9년	생활복지사	당진
C6	남	초록별교실 협동조합	3년	이사장	당진
C7	여	도담도담(센터원장)	18년	원장	당진
C8	여	염작초등학교/아산이민자센터	4년	한국어 교원	예산
C9	여	올리브브리지	3년	교사	아산

2. 한국 입국 전 생활 및 입국 배경

고려인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 국적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고려인 재외동포의 직계비속으로 대부분 방문 동거(F-1)의 자격을 갖고 생활하고 있다. 이들의 입국은 부모와 동시에 입국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 모두, 혹은 부모 중 한 사람이 먼저 입국하고 이어서 후에 다른 한쪽의 부(모)와 함께 입국하기도 한다.

이들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부모를 따라 타 지역, 타국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이므로,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들어와 사는 것에 대해 어떠한 감정을 갖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들의 부모들은 자녀가 한국에 들어와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국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가 자녀의 한국 생활의 상황이나 만족도 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고려인 중도입국 자녀들의 입국 이전 생활 및 입국 배경에 대해 자녀 스스로, 그리고 부모들이 인지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

입국하기 전 본국에서의 가정, 학교생활, 친구 관계와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고 했을 때의 느낌, 부나 모와의 별거 기간, 부나 모와의 별거 기간 중 어려웠던 점, 한국에 대한 정보나 감정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였다.

1) 본국에서의 생활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의 대부분은 대체로 본국에서의 가정생활, 학교생활, 친구 관계 등에 있어서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하였으며, 대부분 친구와의 관계도 좋았다고 하고 있다.

러시아는 초등 5학년까지 있어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년, 가족과도 친하게 지냈어요. 즐거웠어요. 친구하고 잘 지냈어요. 학교생활도 즐거웠어요. 엄마 누나는 먼저 한국에 왔어요. (면담자 A1)

할머니랑 있었어요. 그리고 형 있었어요. 지금 러시아에 있어요. 형 할머니가 밥 해줬어요. 중학교 1학년 다녔어요. 나 학교에서 계속해서 100점 맞았어요. (면담자 A3)

러시아에서 너무 좋았어요. 학교 들어갔고 친구들이랑 지냈어요. 중1, 중2....., 할머니랑 같이 같이 살았어요. 친구와 좋았어요. 엄청 잘 해줬어요. 수업 시간에 같이 앉았고, 수업 후에 같이 산책하고 놀았어요. 잘 지냈어요. (면담자 A9)

잘 지냈어요. 좋았어요. 어렵고 그래도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면담자 A10)

카자흐스탄에서 4학년까지 다녔고 성적은 우수상 받고 다녔어요. (면담자 A13)

조부모님 계시고 학교는 2~3년 다녔고 친구 관계 좋았습니다. 괜찮았어요. (면담자 A17)

부모님 여동생 있고 학교생활 친구 관계 좋았어요. (면담자 A20)

친아빠와 잘 지냈어요. 초등학교 9학년. 친구와도 잘 지냈어요. (면담자 A22)

2) 한국에 대한 정보 및 감정

한국으로 온다고 했을 때 한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궁금했지만, 한국에 대한 정보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렇다 보니 한국에 온다고 했을 때 별다른 느낌은 없었다고 한다.

한국이 어떤 나라 모르겠어요. 무서웠어요. 이거 어떤 나라....., (면담자 A1)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한국 몰랐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카자흐스탄 사람이에요. 아빠 키르기스탄 사람....., 안 들어봤어요. 엄마 아빠 말했어요. 러시아 가족이 한국에 가요. 좋았어요. (면담자 A2)

한국의 힙합, 드라마 좋아해요. 네, 아빠 얘기 들었어요. (면담자 A22)

그러나 처음에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고 했을 때는 싫었다는 반응도 있었다. 그 이유는 한국어 소통을 꼽았다. 한국 생활에서 한국어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생활이 어려워질 것을 미리 걱정하고 있었다.

나빴어요. 싫었어요. 한국말 몰랐어요. 많이 슬펐어요. 어려웠어요. 엄마와 2년 떨어져 지냈어요. 힘든 점은 없었어요. 좋은 나라, 좋은 생활 한다고 들었어요. (면담자 A9)

처음에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고 했을 때 기분 안 좋았어요. (면담자 A20)

너무 새로웠고 무섭고 많이 걱정했어요. 한국을 잘 몰라서 그런지 걱정 많이 됐어요. 선생님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는 한 단어만 가르쳐 줬어요 '몰라요'. 물어보실 때 몰라요, 몰라요 하면 된다고, 오늘 얘기 많이 했어요. (면담자 A22)

3) 부나 모와의 별거 기간 중 어려웠던 점

자녀들은 대부분이 부 또는 모와의 별거 기간을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의 별거 기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별거 기간 없이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도 있었다. 본국에서의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에 대한 질문, 다시 말해 부 또는 모와의 별거 기간에 대한 질문에서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체육을 집에서 많이 했어요. 종이접기도 많이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종이접기했어요. 종이접기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트 모양 종이접기했어요.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놀아요. 게임을 했어요. 점심 다 먹으면 점심시간에 친구들이랑 딱지 놀았어요. 여자 친구 남자친구 같이 놀아요. (면담자 A2)

아니 저는 지금은 조금 기억이 나요. 카자흐스탄에서 1학년 다녔어요. 다음은 1학년 끝나서 다음은 여기로 왔어요. 겨울에 친구들이랑 눈사람 만들었어요. 기분이 엄청 기뻐요. (면담자 A6)

한국에 올 때 괜찮았어요. 좀 어려웠어요. 아무 말을 모를 때 두려움이 있었어요. 2년 후에 왔어요. (면담자 A10)

언니랑 같이 살고 친구들이랑 만나고 친척이랑 놀았어요. 부모님이 한국에 먼저 와서 오라고 했어요. 언니랑 엘리나는 2018년에 왔어요. (면담자 A11)

엄마 아빠가 한국에 일하러 왔어요. 같이 왔어요. 아빠 엄마 일하러 다녀요. 엄마 아빠 저녁 7시쯤 퇴근해요. (면담자 A14)

6세 이전 러시아에서 생활했어요. 2018년 6세 때 한국에 왔어요. 부모님과 한국에 왔어요. 오빠는 러시아에 있어요. (면담자 A16)

한국에 가고 싶기도 하고 안 가고 싶기도 했어요. 아빠와 3달 이별하고, 엄마와 동생들, 나. 네 사람이 같이 들어왔다. 한국 전혀 몰랐다. 우즈베키스탄에 일할 데가 없으니 한국에 가자. 아빠의 형님이 여기 한국에 계신다. (면담자 A17)

엄마 아빠 같이 들어와서 떨어진 적 없어요. (면담자 A21)

동생이랑 엄마랑 같이 들어 왔어요. (면담자 A22)

부나 모와 떨어져 있는 동안 가장 어렵고 힘든 점은 부모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시간을 들였다.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긴 시

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심리적인 불안감과 외로움을 견뎌야 했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빠 생일 나 러시아에서 했어요. 엄마 핸드폰에서 봤어요. 나 친구들이 엄마 안 왔어요. 조금 많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에게 전화해 주세요. (면담자 A2)

어려웠던 것은 힘이 엄청 들었어요. 아빠가 한국에 가서 보고 싶는데 못 봐서..... (면담자 A6)

아빠가 없을 때 좀 힘들었어요. 그냥 생각했어요. 아빠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 학교에 있기 때문에 전화도 못 했구....., 한국에 대해 들은 거 없는 거 같아요. 없었어요. (면담자 A10)

언니랑 러시아에서 살면서 외로웠어요. 보통 혼자 집에 있었어요. 언니는 대학교 공부하고 늦게 와서 혼자 있었어요. 언니랑 살았고 처음에는 할아버지랑 할머니, 그리고 사촌 언니가 도와주었어요. 사촌 언니가 카자흐스탄 사람이예요. 집에 와서 도와주었어요. 엄마 아빠가 한국에 갔을 때 언니랑 같이 생활했어요. 언니 7학년까지 다녔어요. 1학년부터 11학년 다음에 대학교 다녀요. 언니 입학할 때 11학년이고 한국으로 치면 고등학생이예요. 졸업하고 대학교 가요. 대학교는 7년 다녀요. 언니가 대학교 졸업하고 왔어요. 언니 지금 한국에 와서 일해요. 한국에 고모가 있었는데 오라고 해서 왔어요. 고모는 다시 러시아로 갔어요. (면담자 A11)

동생(여) 3세, 아빠가 2020.10월 입국해서 한국에서 3년 있다가 다시 카자흐스탄에 들어갔다가 재입국했어요. 아빠가 보고 싶었던 게 어려웠어요. (면담자 A13)

반면,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안 힘들었어요. 아니요. 어머니와 자주 전화했어요. 힘든 점 없었어요. 고민 없었어요. (면담자 A3)

2년이요. 엄마와 2년 떨어져 지냈어요. 힘든 점은 없었어요. (면담자 A9)

1년 떨어져 있었고,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한국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면담자 A20)

나.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 학부모

입국하기 전 자녀의 본국 생활, 자녀의 입국 배경, 입국에 대한 자녀의 반응, 별거 기간, 별거 기간 중 어려웠던 점과 자녀 돌봄의 주체는 누구였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1) 부모들이 인식하는 자녀의 본국에서의 생활

부모들이 인식하기에 자녀 대부분은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에 본국에서의 가족관계, 가정 및 학교생활, 교우관계 등의 질문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본국에서의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는 좋았다고 했다.

공부 잘했어요. 친구 많아요. 부모님하고 왔어요. (면담자 B4)

괜찮았어요. 잘한 편이었는데 그래도 잘했어요. (면담자 B5)

키르기스스탄에서 자녀 2명 유치원 다녀요. 생활 잘했어요. 본국에서 월급이 적고 일자리 많이 없어요. (면담자 B13)

학교를 11년 다녔어요. 일자리가 없어서 왔어요. 엄마는 H-2, 아빠는 F-4, 엄마는 H-2 받아요. 여기서 2년 일하고 비자 받아요. 남편은 2015년에 왔고, 나는 3개월 후에 왔어요. 애기들은 F-1이에요. (면담자 B15)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만 네 계시고 네 초등학교, 네 성적 잘했어요. 네~ 네~ 잘 지냈어요. (면담자 B16)

2) 자녀 및 가족의 한국 입국 배경

자녀가 한국으로 입국하게 된 배경으로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는 답과 함께 한국이 안정적이고 불법이 없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왔다는 답을 하였다. 본국에서 가족 간에는 화목하게 생활하였으나, 일자리가 많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이들을 위해 한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일이 없어서....., 아빠가 먼저 들어오구. 우리는 슬펐구. 아빠한테 갔어요. 아빠가 없어서 슬펐구, 같이 있고 싶어서....., 아기가 둘이라서 힘들어요. (면담자 B5)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입국했어요. 한국에서 살기 편해요. 고향에 일이 없어요. (면담자 B15)

자녀와의 별거 기간 중 가장 힘들었던 점에 대한 대답은 외롭다거나 자녀가 보고 싶었다는 응답이었다.

음 왔을 때 처음에 왔을 때 조금 외로웠어요. 그리고 나서 살다보니 여기서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가족이 다 같이 살아야 해서, 남편은 먼저 와서 내내 2년 여기서 일하다가 그다음 우리 가족은 다 같이 H-2 비자로 왔어요. (면담자 B12)

한국에 가는 것 아이들도 '괜찮아요' 라고 했어요. 아빠 먼저 한국에 입국하고 아이들이 조금 늦게 한국에 왔는데 어려웠던 점은 아이들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국말 어려웠어요. (면담자 B13)

처음 6개월 거기서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있다가....., 저는 여기서 일을 했는데 마음이 너무 외로워서~ 외로워서....., 네네 음~~~부모님들을 보고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데리러 가서 네 음~~~ 6개월 만에 데려왔어요. (면담자 B16)

3) 부모 자신의 어려웠던 점

부모들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자녀와 떨어져 생활해야 했던 기간을 꼽았다. 부 또는 모와의 별거 기간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3년 이상의 별거 기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별거 기간 없이 가족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자녀만이 아니라 엄마 자신도 남편이 먼저 한국에 입국하고 엄마 혼자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하였다.

남편과 떨어져 있어서 외로웠어요. 아기 출생 전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직장도 다녔어요. 석유, 석탄 돈 계산하는 것 했어요. 한국에서 대체로 만족하나 비자가 F-1이라서, 돈이 부족해서, F-4 비자를 받지를 못해 어려움이 있어요. (면담자 A12)

임신 때문에 힘들어요. 한국어 몰라요. 그래서 어려웠어요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한국어 모르고 병원에 학교에 유치원에서 어려워요. 마트에서 괜찮아요. 사람들과 이야기 잘 못해요. 소통이 잘 안 되어서 어려웠어요. 일자리가 많이 없어서 한국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요. 같이 가자고 했어요. 한국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면담자 B14)

3. 한국 입국 후의 생활

한국 입국 후, 자녀들은 가족과의 재회로 인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찾기도 했지만, 한국어 습득이 충분하지 않은 채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야 하고, 학교도 다녀야 하는 부담감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입국 이후의 전반적 생활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입국 이후 한국에서 가장 좋은 점과 힘든 점, 한국에 와서 가족들과의 생활, 학교생활, 친구 관계,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받았던 교육 및 소감, 방과 후에는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입국 이후 가장 도움을 많이 준 사람에 대한 질문을 진행하였다.

부모들에게는 자녀 입국 이후 자녀의 학교생활 및 자녀 돌봄의 실태 등을 질문하였다. 아울러 중도입국 학생으로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자녀들은 학교나 기타 다른 기관에서 학업 등 생활을 하게 되므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교사, 기관 종사자들의 입을 통해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생활 전반에 대한 실태를 질문하였다.

가.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

1) 한국 생활에서의 좋은 점과 힘든 점

한국에 와서 가장 좋은 점과 힘든 점에 대한 질문에서 힘든 점으로 한국어를 꼽았다. 그러나 입국 후 가족 간에는 비교적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한국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하고 있다.

한국에서 서울 갈 때 에버랜드 갔어. 놀이기구 많아 좋아요. 러시아는 놀이기구 없어 소치 가봤어. 힘든 점 없어 모두 좋아. 엄마, 누나 가족 잘살고 있어. 러시아 안 가고 싶어. (면담자 A1)

여기서 한국말 때문에 힘들어요. (면담자 A3)

어려워요. 말이 어려워요. 한국말이 다른 거 불편한 거 없어요. 형하고 누나 같이 살아
요. 살기 좋아요. (면담자 A4)

좋은 점은 공부도 하고 학교 다녀서..., 힘든 점은 음~ 공부. 한국어 몰라서..., 그냥 잘
지내요. 아빠가 잘 챙겨줘요. (면담자 A8)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 다 좋았어요. 공부, 수학이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너무 좋아요.
(면담자 A9)

괜찮아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뭐 어떤 캠핑에 갔다가 센터 갔다가 재밌어요. 괜찮아요.
좋아요. (면담자 A10)

좋은 점은 없었고, 힘든 점은 한국말 못하는 것이요. 한국에 들어와서 가족들과 잘 지내
요. (면담자 A21)

한국은 평등해요. 학교 시험 볼 때 한국어 모르니까. 시험 볼 때 선생님한테 사전 찾아
봐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안 된대요. 한국 사람은 평등해요. 새로운 아빠 잘 이해해주고, 동
생과 싸우기도 하지만 잘 지낸다. (면담자 A22)

2) 한국어 습득과 학교생활

한국어 습득 및 교과 학습 등 학교생활에 대하여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말이 힘들
고 어렵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가 안 돼. 불편해, 한국말 불편해 이해가 안 돼. 친구들이 괴롭히지 않아, 사이좋게
잘 지내, 말이 안 돼서 불편해. (면담자 A1)

한국에 올 때 러시아인 친구 만났어요. 좋아요. 한국말 힘들어요. 저 지금 선생님이랑 공부
하고 있었어요. 덕산에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 공부해요. 월요일 토요일 공부해 하루 2시간씩
공부해요. 한국말 공부해서 좋아요. 친구 많이 있었어요. 친구하고 잘 놀아요. (면담자 A3)

체육만 재미있어요. 한국말이 힘들어서 어려워요. 어려워서 재미없어요. 친구 3명만 있
어요. 한국말을 할 수 없으면 힘들어요. 러시아 친구 두 개 있어요. (면담자 A4)

친구들(학교 친구들)이 수업시간에 한국어 못 알아들었을 때 알려줬어요. (면담자 A9)

심심한 수업이요. 잘못 알아듣구. 그래서 너무 심심했어요. 뭐 뭐 선생님들이 뭐 말하는

지 몰라서 심심했어요. (면담자 A10)

한국어 하는 게 어려워요. 친구들과는 잘 지내고 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잘 안 도와 줘요. 학교 친구들은 있는데 한국어 배우는 데 친구들 도움이 안 돼요. 초등학교에서 다문화 학생이나 재외동포 학생들만 따로 오전에 한국어만 공부해요. 9시부터 12시까지 한국어만 공부하고 오후에는 일반교실로 가서 수업해요. 러시아어로만 하는 학생들만 오전에 한국어 공부해요. 동포 학생들 같이 놀아요. 다른 프로그램 없어요. 센터에 한국어 배우는 프로그램 없어요. (면담자 A13)

학교생활 어려운 점은 국어(한국어)가 어려워요. 온라인 수업은 혼자 컴퓨터로 해요. 한국에 와서 한국말이 어려워요. 친구들 많아요. 한국말이 어렵고 용돈 부족해요. (면담자 A14)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아니요. 말도 안 하고 친구 조금 밖에 없어요. 제 반에서 친구는 한 명밖에 없어요. 우즈베키스탄. 중국 친구들과 친해요....., 와이파이 잘 되고 학교, 유치원 좋아요. 선생님들은 조금 나빠요. 한국 사람도 좋아요. 언어 때문에 힘들어요. 부모 형제들 잘 지내고 있어요. 같이 있어서 좋아요. (면담자 A17)

유치원에서 한국말 배웠어요. 학교에서 한국어교실 있어요. 여기에서 한국어 배워요. 한국어 공부하고, 친구도 만나고, 이 친구는 엄마는 한국인이고 아빠는 우즈베키스탄이에요. 한국어교실에서는 그 반 아이랑 한국어교실에는 친구가 있어요. 중국 사람인데요, 저랑 한국어로 말해요. (면담자 A18)

3) 방과 후의 생활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나 센터에서 받았던 교육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학교가 끝난 뒤의 생활에 대해 질문하였다. 학교가 끝난 뒤의 생활은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 학교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으나, 방과 후 별도로 학원이나 센터에 간다든가 하는 일은 거의 없고, 집으로 돌아온 후 부모님이 올 때까지 혼자 시간을 보낸다는 답을 하는 학생이 많았다.

학원에 안가. 집에 가. 집에서 놀아. 엄마 아빠가 집에 계셔. 엄마 아빠 한국어 못해 집에서 엄마 아빠 같이 있어. 집에 가서 핸드폰 해. 숙제해. (면담자 A1)

센터 안 가요. 나 센터 아무 데도 안 가요. 다른 친구들은 가요. 나 센터 안 갈 때 아빠 엄마랑 나 아직 학교 안 갔을 때 아빠가 한국어 수업 나랑 했어요. 엄마가 한국어 공부했

아요. 아빠 엄마가 한국어를 가르쳐 준 것이 도움이 됐어요. 학교 끝나고 수요일에 러시아 공부, 수학 공부해요. 한국어는 학교에서 해요. 학교에서 국어 해요. 돌봄 있어요. 방과 후 돌봄은 수요일에, 금요일에 수학하고 러시아 학원에서 공부했어요. 엄마 아빠 한국말을 조금만 알으니까 도와줬어요., 자전거 타기 도와줬어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도와줬어요. 아빠가 길을 많이 알아요. (면담자 A2)

학교에서 그냥 한국말 알려줬어요. 학교 끝나고 한 시간만 한국말 공부했어요. 좋아요. 학교에서 공부했어요. 한국말 도움 돼요. 학교 끝나고 그냥 집에 가요. (면담자 A4)

학교에서 방과 후에 영어랑 로봇 과학 재밌었어요. 다른 거는 재미없어요. 한국어를 몰라서 그냥 집에 있었어요. 엄마, 아빠 일하러 가서 집에 있었어요. 수업 끝나고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만 영어 있어요. 저는 학교에서 다하면 집에 가요. 다음에 조금은 쉬고 있어요. (면담자 A5)

말을 잘 한국어를 잘 못해서 어려워요. 학교 끝나고 나서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해요. 교실에서 학생들과 같이해요. 수업 한국 학생들과 같이 수업해요. 수업 끝나고 한국어를 배워요(1시간). 한국 선생님이 따로 와요. 학교 수업 중 역사가 어려워요. 이해하지 못해요. 한국 친구들 있고 잘 해줘요. 한국인 친구들이 잘 도와줘요. 이해 못 하면 설명을 잘 해줘요. (면담자 A11)

학교 끝나고 나면 친구들과 놀아요. 학교 끝나는 시간은 12시요. 학교 끝나고 돌봄센터에서 교육받는 거 없어요. 학교에서 집에 12에 와요. 집에서 놀고 핸드폰 갖고 놀고, 합기도 학원에도 가요. 합기도가 좋아요. 학교 끝나고 나면 친구들과 놀고, 집에도 있고 학교에서도 놀아요. 한국어 못해서 한국말이 제일 어려워요....., 부모님 직장 다니고,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있고, 집에 오면 혼자 알아서 저녁 먹어요. 엄마 퇴근 오후 8시, 아빠는 오후 6시 퇴근해요. 한국에 와서 한국말이 어려워요. 친구들 많아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없고 집에 와요. (면담자 A14)

적응하기 위한 교육, 러시아 교회에 다니면서 배웠어요. 학교생활과 학교가 끝나고 난 뒤 한국어 공부하고, 친구하고 놀아요. (면담자 A21)

한국말도 많이 배우고 좋아졌어요. 학원에서 드림 쳐요. 코로나 이후에도 응~ 드림 했어요. 영어 가르치는 분이 집에 오셔서 가르쳐 주세요. (면담자 A22)

4) 가장 도움을 준 사람

입국 후의 생활에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을 꼽았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센터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은 학교에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시간에 따로 통·번역을 해주는 도움 선생님(이중언어 강사)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고 있다. 또한, 친구들의 도움은 학교생활 적응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수학을 배우고 영어를 가르쳐 주는 등, 친구 간에도 상호 호혜적인 관계에 있을 때 학교생활의 적응이 원만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생님이 도와줬어, 말이 안 돼서.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줬어. (면담자 A1)

센터에서 도와주지 않았어. 한국말 선생님이 가르쳐줬어, 학교에서 러시아 선생님이 가르쳐줬어, 한국어를 잘할 수 없었어,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한국어 가르쳐줬어. (면담자 A2)

한국말 학교 담임 선생님이랑 한국말 해요. 담임 선생님이 한국말 설명 잘 해줘요. 한국에 오고 한국말 잘하는 사람 만났어요. (면담자 A3)

다우리반 선생님, 한국어 통역 선생님이 있어서 도와줬어요. 한국어 가르쳐줘서....., (면담자 A5)

친구들이랑 선생님들....., 음~ 학교선생님들인 거 같아요. (복지관선생님들)은 잘 안 하구 얘기하다 가구 애들이랑 얘기하고 놀고 그랬어요. (면담자 A10)

반 친구들하고 잘 지내요. 친구들은 수학 가르쳐주고 나는 영어 가르쳐줘요. 시험 볼 때 한국 언어가 잘 이해가 안 돼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고등학교 갈 때 문제가 있어요. 학교 가정통신문 받았을 때 통역도 해 주고 한국어도 도와줬어요. 도움을 받았어요. 학교 친구, 학교 친구한테 수학 배웠어요. 음. 센터에서 봉사활동으로 마스크 안 쓴 사람 마스크 쓰게 하기도 했어요. 대전에 진로 체험도 했어요. 모델 해봤어요. (면담자 A22)

다수의 고려인 중도입국자녀는 한국어를 알아들을 수 없어서 수업 시간이 지루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업을 계속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다. 학교가 끝나고 난 후의 생활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한국어는 이해하기가 어려워 수강료를 내면서까지 학원에서 배우고 있다고 답했다.

지금 한국어 많이 배우고....., 어려워요. 한국의 역사, 과학 어려워요. 같은 반 친구랑 잘 지내요. 같이 지내고 얘기하고 도와줬어요. 학교에서 해 준 거 없어요. 학원에서 한국어 배워요.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어 배우고 싶은 사람 돈 내고 배워요. (면담자 A8)

나.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 학부모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의 학부모 입장에서든 입국 이후 자녀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자녀의 입국 후 적응 실태, 학교생활 실태,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자녀가 받았던 지원 및 교육 내용, 방과 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등 자녀 입국 후 전반적인 만족도와 힘든 점을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1) 자녀 입국 후 생활 적응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입국 후 학교생활에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고, 학교생활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일부는 한국 친구가 없다는 것과 한국어 실력을 걱정하고 있었으나 대체로 부모들은 자녀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학교에서 재밌어해요. 한국어, 운동만 재밌어해요. (면담자 B2)

괜찮아요. 재밌어요. 카자흐스탄보다 재밌어요. 한국친구도 많고 잘 지내고 있어요. (면담자 B5)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며 만족도는 좋아요. 현재는 9시부터 12시까지 어린이집 다녀요. 한국어 조금씩 알아들어요, 카자흐스탄어도 조금씩 해요.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며 만족도는 좋아요. 한국어 조금씩 알아들어요, 카자흐스탄어도 조금씩 해요. (면담자 B12)

괜찮아요. 잘 지내요. 2016년에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어렵지 않아요. 아이들은 한국에 와서 잘 적응해요. 힘든 거 없어요. 둘째 아들 태권도학원 가고 싶은데 돈 없어 학원 못가요. 학교생활 잘하고 친구들도 많아요. 왕따 당하는 것 없어요. 학급 부회장(큰아들)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요. (면담자 B13)

아이가 한국에 오니까 좋다고 했어요. 집에서 한국어 안 해요. 한국에 친구가 없어요. 한국친구 1명 있어요. 2~3명 고려인 친구 있어요. 한국어 잘 안 해요. 한국어도 알고 우즈베키스탄어(러시아어)를 사용하고 한국어를 잘해야 학교 공부도 잘 할 수 있어요. 한국어....., 지금은 한국말 배워요. 지금 공부해요. (면담자 B14)

어어 아들 언어도 잘하고 아들은 기타 치는 것 촬영하는 것 좋아해요. 비디오 만드는 거 그런 거 좋아해요. 비디오 촬영 내내~~~딸 야냐 음~~~초등학교 1학년 네 유치원을 1년

동안 했어요, 네네네 아직 한국어를 잘 몰라서....., (면담자 B16)

2) 자녀의 한국어 학습 등 교육 및 지원에 대한 인식

자녀가 학교 또는 센터 등 다른 기관에서 한국어교육, 맞춤형 학습지도, 교우관계 형성 프로그램, 정서 지원 상담 등을 받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자녀의 한국어 학습은 학교나 지역아동센터에서 배우기도 하지만, 센터가 없는 지역도 있고, 센터가 있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 간다고 응답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한국어 학습이 아닌 일반 특기 적성과 관련된 교육은 학원에 보내서 교육을 받기도 하지만, 비싼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센터에 가요 센터에 갔다가 저녁까지 먹고 와요 (면담자 B2)

센터에 다니지 않아요. 자리가 없어서 센터에 못 가요. 혼자 집에 있어요. (면담자 B4)

복지관에 있어요. 복지관에 있다가 집으로 가요. 8시 30분쯤에....., (면담자 B5)

학교 끝나면 방과 후 한국어교육을 받고 있어요. 지역아동센터에 안 다녀요. 영어학원 미술학원 좋아해요. 미술 좋아해요. 아이가....., 60만원 벌어서 학원에 보내요. 영어, 태권도 필요해요. 러시아어 한국어 집에서 해요. (면담자 B13)

큰딸은 학교에 다녀요. 1주일 학교 다녀요. 그다음 온라인 수업해요. 회사에 있어서 모르겠어요. 제가 전화해요. 지금 온라인 수업해요? 다 했어요? 이렇게 해요. 하루에 핸드폰 2시간만 해요. 계속하면 안 돼요. 학원 안 가요. 돈이 없어요. 아동센터 안 나가요. 지역 아동센터 이런 거 어떻게 신청해요? 지역아동센터 제가 모르겠어요. (면담자 B14)

없었어요. 네네~~ 센터도 없고, 우리 지역엔 없어요. 학교에서만 한국어 선생님이 가르쳐줬어요. 외국인들은 한국어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네~ 한국 학생은 일반교실에서 공부하고, 우리는 한국어교실에서 따로 공부하고 2년 동안 공부하고 그다음 좋아지면 일반교실에 가요. (면담자 B15)

3) 자녀와 관련하여 힘들고 어려운 점

중도입국한 자녀와 관련하여 부모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일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적어서 매우 안타깝다는 답을 하였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자녀와 관련된 어려움으로는 자녀교육비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크다. 또한, 학부모 역시 한국어 사용이 서툴고 어눌한 발음으로 인하여 자녀의 한국어 학습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어렵다고 하였다. 이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직장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에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자녀와도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면 좋은데 한국어로 소통할 수가 없어서 많이 힘들다고 답했다.

학교에서 재밌어해요. 한국어, 운동만 재미있어해요. 일꺼리가 적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일 때문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요. (면담자 B2)

좋았는데, 학교에 입학해서 싸워서 선생님한테 혼나서 서운하고 야속하고 그랬어요. 한국어 잘 몰라서 아이들이 놀렸어요. 마음이 다쳤어요. 싸운 아이가 사과를 안 했어요. 센터 두 번 가고 집에 있어요. (면담자 B3)

한국에 먼저 왔을 때 한국어 못해서 어려워요. 말이 안 통해서....., (면담자 B4)

시간이 없고 한국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면담자 B5)

힘든 점은 언어를 습득해야 생활이 편해요 주말에도 일하느라 한국어 못해요 (면담자 B13)

회사 다녀요. 지금 다녀요. 2월부터 다녀요. 월, 화, 수, 목, 금 일해요. 하루 7시간 일해요. 유치원에 아기가 4시 반까지 다녀요. 애기 때문에 일찍 끝나고 집에 와요....., 유치원에 다니면 다 재미있어요. 친구들과하고 놀아요. (면담자 B14)

학원에 가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100만원 두 아이들이 100만원이 들어가요. 두명, 두명 네네~ 음~ 아! 네네 음~ 좋잖아요. 흠 어떻게 살아야 되는 지~ 제일 처음에 아들 10살 때 입학해서 친구들 없고, 언어 모르고 사실 말도 안 했어요. 마음속에만 그 걱정하고 요렇게 엄마 저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 네~ 딸은 잘 적응했어요. 유치원에서, 집에서, 학교 근처에 집이 있고 네네~~ 형제와 친구들과하고 밖에서도 놀고, 집에 친구들이랑 엄마랑 놀기도 하고....., (면담자 B15)

4) 자녀의 학교생활 인식 및 전반적 만족도

자녀의 입국 후 학교생활 및 방과 후 생활에 대한 만족도, 전반적인 한국 생활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본국에 있을 때는 일자리가 없어서 사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한국은 일자리가 많아서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잘 적응하고 있어요. 친구 많이 있어요. (면담자 B4)

네. 좋아요. (면담자 B5)

숙제하고 핸드폰하고 학교에서 놀아요. 한국생활 만족해요. 어려운 것 지금 없어요. 없어요. 특별히 어려운 것 없어요. (면담자 B13)= 합침

남편 계속 일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 보다 생활이 좋아요. 돈 계속 벌 수 있어요. 음식 살 수 있고, 옷도 사고 그래서 좋아요. 일하면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우즈베키스탄에서 혼자 일하면 힘들어요. 여기서는 괜찮아요. (면담자 B14)

한국에 사는 거 만족해요. (면담자 B15)

학교 끝나고 잘 놀아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오후 8까지 놀아요. 다 커서 자기가 알아서 놀아요. 한국 나이 11살이라 한국말 잘하고, 공부도 잘해요. 학원도 다녀요. 눈높이 학원도 다니고 다 컸어요. 다 알아요. (면담자 B16)

다.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 돌봄 종사자(학교, 기관)

중도입국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의 교사와 센터의 종사자는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학습, 기타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때로는 돌봄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돌봄 종사자들이 인지하는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들의 한국 생활 및 한국어 수준, 지원 프로그램의 수행 정도와 학생들의 반응 등은 중도입국 학생들의 한국 생활 적응의 실태 및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이자 정보이다. 각각의 질문들에 대한 응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들의 한국 생활 및 한국어 수준에 대한 실태

교사와 기관의 돌봄 담당자들은 충남 지역에서 살고있는 고려인 재외동포의 규모에 따라 그 자녀들이 학교에 들어오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합덕에 고려인 동포들이 700명 정도가 살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중도입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고 그래서 중도입국을 하는 학생들이 합덕 일대에 초등학교에서 학교 들어와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중학교, 고등학생까지 중도 입국해서 다니고 있어요. 그 숫자는 대략 50~100명 사이....., 그래서 50명 정도는 학교 다닐 정도의 연령이고 약 50명 정도는 3~4세 되는 애들이 입국해서 들어오는 경우지요. 중도입국인 경우 대체로 100명 정도 합덕에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면담자 C4)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 정도가 다문화인데 중도입국은 한 10명 정도가 돼요. 국가는 다양하기는 한데 아까 말한대로 러시아권인데 러시아에서 온 애들보다 고려인 세 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걸만 봤을 때는 차이를 못 느껴요. 우리 생긴 건 똑같으니까 언어로만 그런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고, 전교생이 103명, 고려인 이주 배경이 한 10명 정도....., (면담자 C6)

염작초등학교의 다문화교실에는 10명으로 우즈베키스탄 출신 4명, 중국 출신 5명, 베트남 출신 1명, 초등 2학년은 3명, 3학년은 1명, 4학년 1명, 5학년 1명, 6학년 4명이에요. 아산 이민자센터에는 카자흐스탄 5명, 우즈베키스탄 2명, 러시아 1명 정도예요. 센터의 친구들은 10대 이상의 학생들이예요. (면접자 C7)

2) 중도입국 학생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수행 및 학생, 학부모들의 반응

학교나 지역아동센터에서 한국어교육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한국 생활 적응과 흥미를 유발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의 이해 교육과 함께 악기 연주, 합창, 미술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면접에 응한 초등교사들과 센터 선생님들은 그간의 경험에 따라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모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다른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학부모와 학생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부모는 자녀의 한국어 학습뿐 아니라 영어, 수학 등 교과에 대한 학습뿐 아니라 음악, 미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육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입장에서는 학습에 관한 것은 회피하고 단순하고 즐거움을 주는 것만 원하는 경향이 있다. 일부 고학년 학생은 한국어 교육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지만, 그 외의 활동에서는 본인이 흥미 있는 것만 참여하고 그 외의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처음에 요구도 조사하고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했을 때는 나오잖아요. 우리 고려인 어머니이지만 똑같은 한국인의 피가 흐르잖아요. 내 자식한테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신경을 못 써주니까 영어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수학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음악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양하게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해 주려고 하는데 학습적인 거는 싫어해요. 안 하고 싫어해요. 저희 센터에서도 골고루 요일별로 시간표를 배정해서 그걸 해요. 큰 애들은 머리를 쓰고 싶지 않은 단순하고 즐거운 것만 하고 싫어해요. 월요일에 합창수업이 있고 창의 미술 수업이 있으면 창의 미술 수업은 들어가서 수업을 하고 있고, 합창 같은 경우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다 참여를 하고, 화요일 영어 수업 같은 경우는 안 할래요. 밖에 나가 아이들끼리 게임하고....., 보드게임 같은 것도 있고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게 핸드폰이지요. 그게 제일 위험하지요. 저희 센터가 주말에는 하지 않는데요, 일요일날 저희 학부모님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세요, 지역사회 연계로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일요일날 2시부터 4시까지 한글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한글 수업을 하고 있고, 센터 아이들이 참여를 해야만이 기관을 빌려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부모와 자녀, 그래서 2학기때는 시낭송 협회서 아이들 동시 같은 것도 외고 발표하고 시키면서 그런거 저희가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면접자 C1)

‘미소반’이라고 해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문화까지 같이 지원을 해서 중도입국 학생들이 새로운 문화 환경에서 적응하기 쉽게 하는 반이 있고, 또 선생님들이 그 반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 먼저 학급에 돌아와서 4학년이면 4학년에 왔을 때 강사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번역도 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러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면접자 C2)

한글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중도입국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게 좋겠니? 학습적인 건 다 싫다고 하고, 한글만 어쩔수 없이 하고 나머지는 요리 프로그램 같은 거 하고 미술 활동을 하고 있고....., 미술, 악기 이런 거를 원해서 지금 계속 찾고 있어요. (면접자 C3)

언어가 가장 큰 문제고 학교에서는 교육이 무상교육이니까 학교에서도 세상이 많이 변했고 하니까 적응하지 못하는 애들을 나머지 공부를 시킨다든가 이런 게 일체 안되고 그러니까 알아서 하는 거고 학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애들은 그 상태에서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면접자 C4)

3)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개선점

학교나 센터에서는 중도입국 학생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하려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진로 교육 같은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은 우선 한국어교육이기 때문에, 이를 더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함께 이중언어 교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응답자도 있었다.

이제 한국어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이중언어 교사가 있어야 돼요. 이중언어 교사가 많지가 않다는 거지요. 그 애들이 전부 기본언어가 러시아어인데 애들이 무슨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거를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애들은 이중언어 교사가 필요하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한국어교육을 제대로 된 학습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게 중요한 문제지요. 그런데 그 이거에 대한 교육 당국의 생각은 일반 선생님들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상 애들은 한 5개월 정도 열심히 학교를 다니면은 한국말을 알만한 정도면 방학을 주고 그러면 한달 반 정도 집에 가서 열심히 또 러시아 말을 하고 그럼 잊어먹지 잊어 먹어 가지고 학교에 오면 또 해매고 또 익힐만하면 방학주고, 그렇게 2~3년을 해야 어느 정도 이제 되는 건데 그러기에는 애들에 대한 고려인 동포들이 외국인인데 외국인도 한국에 와 가지고 그렇게 자원으로써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면 교육당국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데 가장 시급한 것은 우선 한국어 기관에서 필요한 것은 우선 기본은 한국어고....., (면접자 C4)

지금 삼성 꿈 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중도입국 청소년 한국어 수업하고 있고요. 한국어 수업이랑 같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이들 밖으로 나가가지고 정원에서 꽃도 심어보고 이런 활동도 한달에 한번씩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가을에는 애들 진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어요. (면접자 C5)

학교에서는 학습 코칭 및 정서 코칭이 필요한 친구를 지원하는 교육청 프로그램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코칭수업을 받고, 기초학력 부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주일에 두 번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고....., 다문화 학생 전체 학생에게 매주 수요일에는 독서프로그램이나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만들기 수업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어요. 센터에서는 매주 금요일 간식을 제공하고 매주 문화수업을 진행하고....., 코로나 전에는 문화 체험을 위해 외부 수업도 준비했지만, 코로나로 외부 전학 등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면접자 C7)

4. ‘코로나19’ 이후의 생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현재까지 약 1년 반 동안 한국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중 하나가 학생들의 등교 금지, 휴업 조치이다. 학교는 등교수업 대신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학생들에게는 학습의 상황이 갑작스럽게 바뀌면서 온라인학습이라는 새로운 방식에 적응해야만 했다. 학부모 입장에서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자녀가 학교에 가지 않음으로써 어린 자녀의 경우는 당장 돌봄의 문제가 발생했고, 고학년의 자녀는 혼자 집에 있게 되면서 여러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중도입국 학생과 그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학교 규모에 따라 등교나 온라인학습을 시행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응답자들이 밝히는 ‘코로나19’ 이후 생활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가.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

중도입국 학생이 놓인 특별한 상황은 다른 일반학생들과 달리 온라인학습에서도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 또한, 학교를 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감정적 상황도 고려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의 기분, 가족생활의 변화, 하루 동안 어떻게 보내는지, 학교 온라인 수업실태,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 시간, 장소에 대한 만족도, 돌봄으로 인한 부모님의 힘든 점, ‘코로나19’ 이후 가장 힘든 점 등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후의 생활에 대해 질문하였다.

1)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의 감정과 가족생활의 변화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일단은 학교에 안 가니까 좋다는 반응이 더 많이 나타났다. 면담자의 다수는 주말에는 가족과 지냈고,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놀기도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혼자 있을 때도 있었지만 현재는 학교에 가서 너무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코로나 초기에는 학교에 안 가서 좋았지만, 지금은

학교에 가서 좋다는 반응이다. 친구들과의 관계는 ‘최고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들의 생활이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좋아요. 학교에 안 가서 좋아요. 온라인 수업하고 집에 있어 좋아. 친구 못 만나서 조금 안 만나도 괜찮아 만나도 괜찮아....., (면담자 A1)

괜찮아요. 코로나 때문에 점심시간에 배구 할 수 없으니까. 학교에 계속 왔어요. 중학교 때 1주일 학교 가요. 1주일 학교 안 가요 했어요. 덕산중학교 덕산고등학교에서 계속 학교에 왔어요. (면담자 A3)

좋아요. 집에 있어서 좋아요. 집에 있으니까 힘든 거 없었어요. 형 같이 집에 있었어요. (면담자 A4)

2달 학교 안 가요. 신났어요. 그런데 친구를 못 만나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면담자 A18)

심심했어요. 친구 보고 싶었어요. (면담자 A22)

2) 등교하지 않았을 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누가 돌보아 주었는지

부모님은 안 계시고, 집에 혼자 있을 때 주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물었다. 면접자 대부분의 학생이 집에 혼자 있으면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던지,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보던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러시아 친구와 논다고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할 때 집에서 핸드폰으로 음악을 듣던지 채팅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끔 친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영화도 보면서 친구와의 정을 쌓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고학년의 경우 친구를 만나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한국어를 많이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만 집에 있을 때도 있어 반 정도. 놀아주는 사람 없어. 엄마가 집에 있어. 엄마하고 러시아 말로 해. 부모님이 집에 계시면 좋아. 엄마 아빠 없으면 핸드폰 해. 친구하고 통화 해. (면담자 A1)

집에 없어요. 아빠 일 해요.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는 안산에 가요. 혼자 집에 있을 때

라면 끓여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지 않아요. 엄마 허락받고 해요. (면담자 A2)

엄마 아빠 집에 없어요. 형하고 계속 집에 있어요. 좋아요. 형하고 놀아요. 형이 잘 해 줘요. 형하고 핸드폰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형하고 놀았어요. 아니요 안 힘들었어요. (면담자 A4)

안 좋아졌어요. 친구들이랑 안 만났어요. 말할 수 없어요. 다 달라요. 저는 먼저 일어났어요. 다음에 아침 먹었어요. 다음에 컴퓨터 게임을 했어요. 다음에 점심 먹었어요. 또 게임 했어요. 다음에 엄마랑 아빠가 들어왔어요. (면담자 A5)

그냥 밖에 나가 놀고, 친구하고 놀고 핸드폰 게임 해요. 식사는 엄마가 준비해 놓거 꺼내서 먹었어요. 사이좋게 지내요. 한국 친구들이랑 러시아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요. (면담자 A6)

재밌게 자유롭게 지냈어요. 센터에 가요. 학교 끝나고 12시에....., 받아쓰기 1시까지. 2시에 집에 와서 핸드폰 봐요. 고양이하고 놀고....., 친구들과 놀아요. 친구들과 핸드폰으로 같이 게임 해요. 게임하고 놀아요. 토요일은 7시에 엄마하고 저녁 먹어요. 평일은 언니하고....., (면담자 A7)

좋지도 않구. 나쁘지도 않구. 아무데도 못 놀러가구 그래서....., 아동센터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요. 텔레비전, 핸드폰 게임, 밥 먹어요. 학교에 잘 다니고 있어요. 가기 싫어요. 공부가 너무 많아서....., (면담자 A8)

슬펏어요. 어려웠어요. 연습이 없었어요. 이야기할 상대가 없었어요. 밥 먹고 인터넷에서 동영상 한국어 봤어요. 한국어 배웠어요. 가끔 친구랑 배웠어요. 인터넷 했어요. (면담자 A9)

심심했어요....., 우리는 집에만 있구 심심했어요. 집에만 있구. 뭐 핸드폰으로 게임하구 밥 먹구. 따른 거 안 하구 심심했어요. 부모님이 회사 가서 돌봐주지 않았어요. (면담자 A10)

집에만 있어서 불편해요. 밖에 어디를 나갈 수가 없어서 답답해요. (면담자 A12)

집에서 핸드폰 했어요. 핸드폰하고 동생보고, 청소도 하고, 평소와 달라진 것이 없어요. 교회에서 놀았어요. (면담자 A18)

2달 학교에 안 갔어요. 좋았어요. 엄마 간식해 놓으시면 혼자 알아서 먹어요. 혼자 있을 때는 집에서 핸드폰 게임하고, 공부도하고....., 스마트폰, 그리고 장난감으로 놀아요. 식사는 해놓고 나가요. 저녁 8시에 오시는데 알아서 하라고 해요. (면담자 A22)

3) 온라인 수업의 실태

‘코로나19’ 이후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지

에 대한 답변으로 온라인 기기 활용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온라인 기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답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할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부모님의 도움은 전혀 받지 못한다고 답하는 학생이 다수를 차지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려니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언어나 교과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어, 사회, 도덕이 가장 어렵다고 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으로 수학 수업을 할 때 혼자서 수업을 듣다 보니 정답을 확인할 수 없어서 불편함을 느낀다고 했다.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역사를 꼽았다. 사회적 배경이 다른 곳에서 생활하다가 중간에 한국으로 입국하였기 때문에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도 어려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핸드폰, 온라인 수업, 전년에 온라인 수업했어. 기기 사용 잘해. 핸드폰 해. 밖에 나가서 놀아. 돌아다녀. 친구 4명과 농구 해. 학교 가기 싫어. 그냥 힘들어. 힘들어서 가기 싫어. 말이 안 돼서 가기 싫어. 러시아 사람이야. 가기 싫어 가면 러시아 친구들이 있어 좋아. 친구들과 러시아 말로 해. 수학 도덕 힘들어 내가 생각하고 하고 있어. 국어. 도덕. 사회. 한국어를 잘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 한 시간 공부했으면 좋겠어.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공부했으면 좋겠어. (면담자 A1)

혼자 스스로 했어요. 학교에서 나에게 한 번만 가르쳐줘서 알아요. 부모님은 일했어요. 한국어로 선생님이 말할 때 잘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수학 불편했어요. 확인할 수 없어서....., 사회만 어려워요. (면담자 A2)

아니요 힘들지 않았어요. 온라인이 좋아요. 저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안 친했어요. 중학교때 혼자 있고 싶었는데요 지금은 아니에요. 어머니가 도움을 주었어요. 번역해줬어요. 번역을 해 주면 이해가 잘 됐어요. 어머니께서 배경 뜻 풀이를 해줬어요. 엄마가 번역을 못 해 주면 채팅 번역기를 이용해서 활용했어요. 많이 불편했어요. (면담자 A3)

핸드폰으로도 하고, 티비로도 했어요. EBS....., 스스로 잘 사용해요. 있어요. 국어 수학만 힘들어요. 힘들면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설명해 줬어요. 몰라요. 그냥 있어요. 없어요. 필요한 거 없어요. 한국말을 잘하면 선생님이 말하는 거 이해해요." 엄마도 한국말 못해서 도와주지 못해요. 형이 도와줘요. 아니요 장난 안 치고 공부 잘해요. 나와서 책책 책 해요. 공부 잘해요. EBS 공부할 때 도와줘요. 엄마도 한국말을 못해서 도와주지 못해요. (면담자 A4)

2주는 학교 가고, 1주는 온라인으로 수업해요. 그냥 온라인 수업하고 싶어요. 일찍 일어

나는 게 힘들어서....., 학교 안 가면 늦잠 잘 수 있어서....., (면담자 A6)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힘들어요. 핸드폰으로 수업을 들어요. (면담자 A8)

힘들었어요. 다 힘들었어요. 학교 가서 수업받는 게 더 좋았어요. 언어가 어려워요. 잘 이해하지 못해서....., 언어가 어렵고, 교과 내용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 어려웠어요. 그냥 들었어요. (면담자 A9)

저는요 그 어떤 선생님들이 온라인에서 비디오를 올려가지구. 우리는 그냥 비디오만 봤어요. 뭐 알아볼 때 알아들을 때.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너무 싫어하고 심심했구. 뭐 질렸어요. 아~아무것도 안 했어요. 부모님들이 수업을 할 때 뭐 일만하고 제가 온라인 수업을 혼자 봤어요. 도와주지 못했어요. 핸드폰으로 온라인 수업을 봤어요. 핸드폰으로 온라인 수업을 봤구 그래서 뭐 핸드폰으로 온라인 수업 보구 좀 있다가 자구. 일어났다가 처음부터 봐야되구. 아이패드로 해요. 컴퓨터 조작은 보통해요. 인터넷 잘해요. 온라인 수업중 불편한 점 없어요. 온라인 수업 혼자 해요. 게임 안 해요.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안 도와주고 혼자 해요. (면담자 A10)

원격수업을 듣는데 알아듣지를 못해서 힘들어요. 등교해서 수업해요. 언어가 안 돼서 온라인수업 어려워요. 핸드폰, 컴퓨터게임 안 해요. 한국어 프로그램 동영상 같은 거로 들으면 한국어 수업에 도움이 될텐데요. 엄마가 못하게 해요. 일주일에 핸드폰 사용 30분만 하게 해요. (면담자 A13)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온라인 수업했어요. 컴퓨터 잘 못해요. 게임 핸드폰으로 해요. 온라인 수업할 때 엄마 집에 있었어요. 회사 못가고 집에서 도와줬어요. 부모님, 형이 직장가서 늦게 오면 집에서 혼자 놀아요. 학교에서 수업 중간에 한국어 수업 2시간 받아요. 학교에서 수업할 때 2시간 따로 받아요....., 과목이 어려운 것 영어요. 국어는 조금 어려워요. 체육도 어려워요(배드민턴 어려워요. 구르기도 해요.). 부모님이 잘 도와줘요. 수학이랑 다 알려줘요. 학교생활 중 좋은 것 수학 잘해요. 수학 재밌어요. 친구들과 잘 어울려요. 술래 잡기하고 놀아요. (면담자 A14)

핸드폰, 테블릿 PC, 수학, 국어, 수학 익히기 어려워요. 로그인할 때 어려워요. 로그인할 때만 부모님이 도와줘요. 핸드폰으로 수업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모르는 것은 선생님한테 핸드폰으로 전화하거나 문자로 질문하면 문자 왔어요. 친구가 있었으면 같이 공부했으면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면담자 A18)

핸드폰요. 수학, 국어, 수학 익히기, 온라인 수업 줄려요. 원격 수업할 때는 졸렸어요. 지금은~~잘 알고, 역사, 국어 어려워요. 한국어 이해 잘 안 돼요. 테블릿 PC, 컴퓨터 고장.....,컴퓨터 중고 마-트 구경했어요. 아직 구매 못 했어요. 나는 새것이 좋은데. 아직 돈이 부족해요. (면담자 A22)

4)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가족생활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등을 질문하였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힘든 점은 역시 한국어가 서툴러서 한국 친구들과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었지만, 학교에 가지 못해서 친구를 만날 수 없는 것과 집에만 있어야 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것 역시 힘들어하고 있다.

코로나 있을 때와 없을 때 똑같아요. 또, 코로나가 있어서 슬펐어요. 친구들이랑 만날 수 없어서 슬펐어요. 엄마 아빠 한국말을 조금만 알으니까 도와줬어요. 마스크 때문에 힘들어요. 나는 마스크만 힘들어요. (면담자 A2)

마스크만 힘들어요. 아니요. 불편하지 않아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저 친구랑 학교에 가요. 그리고 놀아요. 공기 알아요. 공기해요. 그냥 놀이해요. 러시아에는 ‘공기’ 없어요. ‘러시아 놀이’ 친구에게 소개 안 해줬어요..., 있는데 한국말 못해서 가르쳐줄 수 없어요. 한국말 부끄러워요. 저 친구들이랑 농구했어요. 엄마는 일했어요. 집에서 혼자 밥 먹고 유튜브 봤어요. 러시아 말로 봐요. 한국말로 보고 외워요. (면담자 A3)

마스크 힘들어요. 다른 거 힘든 거 없어요. 아니요. 장난 안 치고 공부 잘해요. 나와서 책책책 해요. 공부 잘해요. 네, 잘 지내요. 네 잘 놀아요. 힘들어요. 말하고 있을 때 못 알아들어서 힘들어요. 아니요. 똑같아요. 형하고 같이 놀면 좋아요. 한국말 배워요. 한국 사람 선생님..., 금요일은 우즈벡사람 공부해요. 화요일, 월요일, 목요일 한국사람..., 마스크 힘들어요. 다른 거 힘든 거 없어요. (면담자 A4)

안 좋아졌어요. 친구들이랑 안 만났어요. 맨날 맨날 집에 있었어요. 다 달라요. 저는 먼저 일어났어요. 다음에 아침 먹었어요. 다음에 컴퓨터 게임을 했어요. 다음에 점심 먹었어요. 또 게임 했어요. 다음에 엄마랑 아빠가 들어왔어요. 저는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없었어요. 아빠가 도와줬어요. 저는 먼저 핸드폰으로 봤어요. 다음에 컴퓨터로 봤어요. 심심했어요. 학교 가서 친구들과 같이 들어야 되는 데 나 혼자 듣고 있어서..., 저는 이거다 보고 텔레비전을 봤어요. 수업이 다섯 날, 다음에 다섯 날 학교에 가요. 네. 친구들 만나고 싶어서 학교에 가고 싶어요. 잘 지내요. 마스크를 쓰는 거 힘들어요. (면담자 A5)

마스크요. 돌봄시간 없는데요. (면담자 A6)

그냥 집에만 있는거요. 집에만 있어서 불편해요. 밖에 어디를 나갈 수가 없어서 답답해요. (면담자 A8)

조금 불편해요. 엄마 회사 가서서 내가 다 했어요. 마스크 쓰는 거. 다른 불편한 점은

없어요. 러시아 말을 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좋겠어요. (면담자 A9)

괜찮아요. 네. 네.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한 친구들이랑 잘 못하구 있구.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다른 친구들이랑 잘하고 있어요. 뭐 말이 달라서 생각이 달라서 그게 아니라 생각도 다르구 말도 달라서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학교에서 캠핑이나 그거 못 가구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6학년 때 제주도 가야되구.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요. 네 너무 슬펐어요. (면담자 A10)

안 바뀌었어요. 다른 도시 못가요. 여행 못 가는 거 이거만 바뀌었어요. (면담자 A14)

그냥 학교 가요. 공부도 열심히 해요. 친구와도 사이가 좋아요. 러시아 친구들과 학교에서 잘 지내고 공부도 잘하지만, 친구는 다른 반 우즈베키스탄 친구, 중국 친구와도 친해요. (면담자 A18)

도움을 준 사람은 러시아 친구..., 말을 배웠어요. 코로나 확산 이후 계속 학교 다녔어요. 부모님도 직장 안 나가신 적 있지만, 변화는 못 느꼈어요. (면담자 A21)

힘들지 않아요. 어려운 것은 수학, 국어, 수학 익히기..., 음악, 친구랑 채팅, 역사 공부시간에 역사가 어려워요. 친구와 잘 지내요. 공부하는 것도 영어 수학 서로 도와주고 놀아요. 친구 만나면 카페 가서 먹고 얘기하고 애니메이션영화 보고 음악 들어요. 친구들과 얘기 많이 해요. 한국말 배우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네~ 네~ 친구 많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학교체육대회, 축제(춤도 추고) 재미있어요. 친구들과 축구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잘 지내요. 만족~~ 지금부터 생각해 볼 거예요. 러시아에 갈 생각은 없어요. (면담자 A22)

위에서 보듯이 면담자들의 대답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대답이 짧고, 주로 단답형으로 답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부분의 중도입국 학생의 면담 과정에서 나타났다. 이는 한국어 활용 능력의 부재로 인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어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직·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나.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 학부모

‘코로나19’로 자녀가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어 집에만 있게 되는 경우 맞벌이 가정의 경우는 돌봄의 문제가 발생한다. 돌봄은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만이 아니

라 집에서 온라인 방식으로의 교육이 진행될 때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는 것도 의미한다. 따라서 중도입국 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자녀의 생활을 중심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자녀의 온라인 수업 실태, 학교에 가지 않을 때 자녀는 주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또는 누가 돌봐 주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1) ‘코로나19’ 이후 가정생활의 변화

코로나 이후 가정생활의 변화에 대한 응답은 자녀 교육에 대한 것보다 우선 경제적 문제를 먼저 제시하고 있다. 자녀가 학교에 가지 않게 되면서 온라인 수업을 하지만 단지 재미없다는 반응이고, 이동이 어려웠다는 대답이다.

저기 일이 많이 없어서....., 월급이 적어서....., 밖에 산책하고 싶은데 못해서....., (면담자 B4)

밖의 생활을 못 하는 거요. (면담자 B5)

집에만 있어서 불편해요. 밖에 어디를 나갈 수가 없어서 답답해요....., 월세도 내고 부모님께 생활비도 보내야 돼요. 비자 때문에 나는 일을 할 수 없어요. (남편 월급 : 야간 잔업 해서 300만원) (면담자 B12)

작년에 코로나 있어요. 올해도 있어요. 아이들이 유치원가요. 빨간날 안 가요. 생활이 달라진 거 없어요. 남편이 코로나 때문에 일 많이 없어요. 월급 작아요. 코로나 때문에 외국 사람들 안산에서 하루 10만원 받아요. 한 달에 두 번 10만원씩 받았어요. 올해만 두 번 받았어요. 아산에 외국사람 많아요. 이런 거 할인 많이 있어요. (면담자 B14)

초등 1학년 매일 가요. 돌봄 교실 안 가요. 중학교 일주일 가고 일주일 원격수업....., 온라인 수업 재미없어요. (면담자 B15)

우즈베키스탄이나 러시아에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집에 있어요. 애기 때문에 집에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별 변화가 없어요. 고향에 안 가도 돼요. 왜냐면 한국에 엄청 오래 돼서 안 가도 돼요. 한국이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되었어요. 영주권 생각하구 있어요. 회사 계속 다니며 F5 얻으려고 노력해요. (면담자 B17)

2) 자녀의 온라인학습 실태

자녀의 온라인학습 실태에 대한 질문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응답을 들 수 있었다. 자녀의 온라인 학습기기 사용 능력, 언어 문제 등 온라인학습과 관련된 질문에 자녀가 혼자서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 집중을 잘하고 있는지, 수업 대신 게임하고 있는 않은지 믿을 수 없어서 불안하다고 했다. 또한, 한국어를 몰라 도움을 줄 수가 없어서 안타깝다고 하였다. 온라인 수업에 대해 두려움과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부모가 모두 일을 나가는 가정의 경우, 자녀들만 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작년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는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등교할 수 있게 된 것은 전교생의 수가 작아서 가능하다고 했다.

작년엔 온라인 했어요. 올해는 안 했어요. 게임 하는지 몰라서 우리는 걱정돼요. 온라인 안 좋아요. 잘 몰라서 못 도와줬어요. 한국어를 전혀 모르니까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라고 해서 학교에 가요. (면담자 B3)

온라인 수업 재미없어 했어요. 핸드폰으로 게임만 했어요. 누나가 있으면 공부하고 없으면 안 하고 놀았어요. 산만해요. (면담자 B4)

지금은 학교에 가고 있어요. (면담자 B5)

작년에 전부 다 온라인 수업했어요. 지금은 격주로 온라인 해요. 올해도 격주로 온라인 수업해요. 한국어가 잘 안 돼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집에만 있으니까 컴퓨터만 하고 있고, 엄마는 회사에 있어서 온라인 수업에 못 도와주고, 사회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친구들도 못 만나고 그러니까..., 큰딸한테 온라인 못 도와줘요. 제가 회사에 있어요. 조금 알아요. 제가 말해요. 수학이 괜찮아요. 그리고 국어가 어려워요. 수학은 잘했어요. 수학은 도와줬었어요. 지금은 못 도와줘요. 지금은 혼자 해요. 제가 선생님께 물어보면 어떤 공부해요? 선생님이 괜찮아요. 다울터가 있어요. 한국문화 그리고 한국어 배워요. 그리고 다울터에서 잘해요. 한국어 배울 때 도와줘요. 고려인 아이 5명 있어요. (면담자 B14)

수업방법이 다르고 키타하고 피아노하고 그림 그리고 전자 기타 베이스도하고 우리는 같이 수업해요. 그 수학 영어 같이해요. 온라인 끝난 후에 엄마랑 같이 해요. 다시 설명해요. 수학 영어 다시 설명해요. 아들은 네~네~ 말은 잘 해드라도 국어 이런 거 교과 너무 어려워서....., (면담자 B15)

3) 자녀가 학교에 가지 않았을 때 무엇을 하는지

‘코로나19’ 이후 자녀가 학교에 가지 않는 경우 주로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에 대하여 학부모들은 자녀가 집에만 있다고 하고, 경제적 문제 때문에 학원 등 다른 곳에 다니지 못한다고 하였다. 아동센터에 다니기도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는 응답도 있다. 집에만 있을 때는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집에만 있어요. 에세이, 수필, 대화하는 거 러시아말 대화 이야기 같은 거 많이 있었구. 러시아말을 한국말로 번역해줬어요. 개발이 없어. 집에만 있어서 배우는 게 없어. (면담자 B5)

지금 어린이집 다니는 거 좋아요. 아이들 운동하는 것, 태권도, 합기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학원비는 개인이 지출해야 돼요. 남편이 월급이 적어서 학원 못 보내고 있어요. 어린이집 학원비 40만 원 내요. (면담자 B12)

코로나 발행했을 때 아동센터 못 다닐 때 일도 못하고 아들 돌보았어요. 아동센터에 다니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이제는 직장도 잘 다녀요. 집에 컴퓨터 있는데 게임 해요. 온라인 수업할 때 아들 공부 잘 안 해요. 게임 좋아해요. 한국어 잘해요. 아동센터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면담자 B15)

공부하고 있어요. 네, 아니요. 음악 딸은 학교 가요. 그냥 그림을 그려요. 친구들과하고 지내는 것 없으면....., 친구들이 없어서 컴퓨터만 하고....., (면담자 B16)

4) 돌봄 서비스 기관 이용 정도

학교나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자녀를 위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서비스를 받는지 질문하였다. 돌봄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학교도 있으나, 대부분 학교는 돌봄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만족스럽지는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역아동센터 역시 돌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돌봄 시간이 짧아서 만족도는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였다.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 어렵다고도 했다.

학교 자체가 없어요. 지역아동센터에 가요. 한국어 배워요. 1시간 정도 있어요. 피아노치고 30분 배워요. 일주일에 두 번 가요. 센터가 만들면 세우면 한국어, 피아노 선생님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면담자 B3)

받고 있지 않아요. (면담자 B4)

학교에서 아이패드 받았어요. 복지관에서 과자나 맛있는 거 받았어요. 식사 제공도 받았어요. (면담자 B5)

코로나 발생 후 어린이집 안 다녔고, 2021년 4월부터 나이가 어린이집 다닐 시기여서 다니고 있어요. 돌봄센터에 나가지 않아요. 어린이집 2021년 4~5월은 9시부터 12시까지이고, 6 월달부터는 오후 5시 30분까지 다닐 수 있어요. (면담자 B12)

돌봄 없다, 학원 가면 100만원 든다. 아이들끼리 모여 밤늦게까지 논다. 아동센터, 교육 센터 있었음 좋겠어요. 아동센터 거기에서 에~네네 한국어 학습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면담자 B15)

어린이집 일단은 선생님은 '나이가 어려서' 일단은 같이 놀아주고 어린이집에서 2달까지 있다가 애기가 어려서 일단은 스트레스가 받아요. 어린이집에서 알림장에 써서 알려 와요. 엄마는 알림장 보고 체크 해요. 시간이 나면 아이하고 책도 읽고 글도 가르치고 엄마 아빠가 한국말을 하기 때문에 아기가 말 배우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면담자 B17)

어린이집에 2개월 다녔는데 교육비가 너무 비싸서 계속 다닐 수 없어 지금은 쉬고 있어요. 나탈리아. 외할머니하고 같이 있어요. (면담자 B18)

다.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 돌봄 종사자(학교, 기관)

‘코로나19’로 인한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들의 생활 변화는 학교 교사나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평소에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중도입국 학생들의 생활로서 이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학교나 기관에서 중도입국 학생을 위해 어떠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코로나19’ 이전의 프로그램에는 어떠한 것들이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 이후에는 진행되고 있던 프로그램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전반적인 생활과 돌봄 상황에 대해 질문하였다.

1) 중도입국 학생의 학교생활 및 생활 실태

많은 중도입국 학생들을 돌보고 지도해 온 선생님들은 이들에 대한 평소의 생활

모습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우선 언어적 어려움과 부모들이 모두 일을 하게 되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물질적으로 부족하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두분 다 일을 하시니까 가지고 오는 게 아니어도 여기서 일을 하니까 급여는 일정 부분 받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부분보다는 정서적인 게 조금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갖고 있어요. 심리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깐 더 안정감이 없는 거 같아요. 큰아이들이 더 심해요. 힘들어하고 참여 안 하려고 하고, 작은 아이들은 잘 받아들이고 참여해요. (면담자 C1)

우선 가정생활은 엄마따라 오는 거 같아요.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부모들 따라서 오는 건데 부모들이 일단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안정되면 애들을 부르는 데 안정됐다고 해도 안정된 게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장시간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난 게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일단 애들이 어린 상태에서 새로운 환경을 접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정서적 불안감 같은 게 없다고 보기에는 어렵죠. 그리고 언어가 통하지를 않잖아요. 여기 와 가지고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로부터 생기는 혼란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일을 해야되고 애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죠.

애들은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일부 안정적인 그런 집도 있을 테지만은 그 외국인 데다가 이혼을 했거나 그리고 부부가 다 오지 못해서 이산가족으로 떨어져서 사는 그런 애들이 많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가정생활이 이루어지는 거고 애들이 혼자서 학교를 다니는 정도.....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깐 마땅히 할 게 없고 학원을 간다든가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애들이 이제 뒤떨어질 수밖에 없고 할 수 있는 거는 오락 핸드폰 하나 그거 갖고 노는 거예요. 텔레비를 본다든가 그렇게 해서 한국문화에 대해 익숙해진다는 거 언어소통이라든가 이런 걸 못 해요. 엄마도 걱정이고 애들은 그런 거를 느끼지 못하니까 맨 게임만 하는 거죠. 그런 상태입니다. (면담자 C4)

언어의 경우도 일찍 입국해서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경험하는 경우는 잘 하게 되지만, 외국인 신분으로 지원을 받지 못해 어린이집에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있다. 초등학생들은 학교를 통해 어느 정도 교육을 받게 되지만, 중학생 정도로 중도에 입국해 오면 학습이나 적응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가정생활의 연장이라고 해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친구들은 가정에서 뒷받침이 되는 학생들이고,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가정에서 소홀한 경우예요. (면담자 C2)

아이들 비중을 봤을 때 중학교, 초등 고학년 아이들은 언어소통도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융화하기가 힘들어요. 저학년 1, 2학년 아이들 더 밑에 아이들은 굉장히 잘 지내요. 와서 배우는 것도 빨리 습득하고 말도 배우려고 하고 아이 때 온 아이들은 저희 문화를 배워나가려고 하고 가르쳐 주는 것도 하려고 하고 적극적이고 그런데 초등 고학년 아이들부터 중학교 아이들은 거기 말을 훨씬 더 많이 하고 그쪽 문화가 더 많이 정착해서 그런지 굉장히 적대적이고 잘 저희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네 말로 계속 장난을 치고, 우리가 말하는 건 듣지 않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더라구요. (면담자 C3)

학교같은 경우는 언어가 일단 문제가 있고 학습에 이제 뒤쳐질 수밖에 없잖아요. 조금 일찍 온 애들은 유치원을 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데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언어는 많이 나아지죠. 그런데 이제 보육 같은 경우는 외국인에 대해서 외국인 신분이니까 그 지원을 못 받아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거기를 갈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명확하게 없는거죠. 학교생활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거죠. 일단 어린애들이니까 학원을 다닌다든가 이것도 이제 학원에서 이걸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이고 그래도 초등학생들은 괜찮은 편인데 문제는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중학생이 되서 중도입국해서 들어오면은 일단 학습수준이 더 높잖아요. 애들이 적응하기 더 어려운거죠. 학교를 공부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때우러 다니는거죠. 중학생들은 더 큰 문제다라고 생각돼요. 중고생들도 초등학생들이나 똑같죠. 지들끼리 몰려다니는거지 그래서 여기저기 몰려 다녀가면서 지들끼리 머리 꺾으니깐 이런 아동센터나 이런 데 나오기 싫고 해 떨어지면 우리르 몰려 다니는 거지요. (면담자 C4)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는 몇 명 못 봤는데 좀 과격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인 친구들 중에 이 친구들이 더 과격해요. 그래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뛰는 것도 많이 뛰고 우리나라 말이 통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불러서 막 얘기도 하고 이걸 못하게 하는데 애네들은 선생님하고도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마’ 이거 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네들이 ‘네’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을 불러서 왜 그러는지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상담 자체가 거의 안되고 저희가 러시아로 통역해 주는 선생님이 계시기는 하는데요. 상주해 계속 계신 게 아니라 오전에 계셨다가 가시고 이렇기 때문에 오후에 사고가 나고 이러면 담임 선생님이 한국어 선생님이고 러시아 애들이 많으니깐 거의 러시아 선생님이 학년을 돌아가면서 오전에 선생님이 옆에 앉아 가지고 통역을 해줘요. 수업을 하면 옆에 앉아서 이제 계속 통역을 해줘요. 시간표가 배정이 돼 있어요. (면담자 C6)

2) 중도입국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교육 및 기타 프로그램 운영 실태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은 학년별로 진행은 하지만, 학생의 한국어 수준이 낮으면 한국어 수준에 따라서 반 편성을 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어 습득에 대한 의욕이 보편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한국어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이는 곧 학업으로 연결됨과 동시에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으며, 심리적 불안감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저학년 때 온 아이와 고학년이 되어서 온 아이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어린 나이에 한국으로 온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중·고등학년이 되어 온 아이들은 학습 수준은 높지만, 언어소통이 안 되고, 한국어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나이 어린 친구들과 같이 수업을 들으려니까 적응하는 데에 더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노력하지 않았다. 또한, 중·고등학년이 되면서 고려인 아이들 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였다.

한국어가 전혀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학년은 되는 데 큰애들은 안 되더라고요. 선생님이라 1대1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구. 지금 저희가 세한대학교에서 봉사자들이 매주 화요일날 오기로 해서 학생들 한글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활동을 저희가 지금, 악기는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오카리나를 하고 싶어서 왜냐면은 지속적으로 애들이 계속 가는 악기가 있으면 좋은데, 악기구입 비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카리나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지역사회에 부모님과 같이 연주활동이라도 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 학교 수업도 포함한 한글도 있고 수준별로 따라서 기초부터 하는 친구도 있고, 일대 다수로 하면 효과가 없어요.

1대1로 놓고 또래에 비슷한 실력이 있는 아이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우관계나 상담 같은 경우는 보건소, 정신부서 관련, 재활아동센터랑 다 같이 회의를 하고 저희 아이들 설문지를 통해서 아이들의 심리라든지 검사서를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보건소랑 연계해서 예를 들어 '미술 심리치료'라든가 등등 다양한 활동을 지금, 보건소에서 와서 직접, 청소년 문화에 집이랑도 연계해서 매주 수요일 나와서 거의 비슷한 수업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합덕읍에 있는 고려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애들끼리는 자연스럽게 러시아어로 소통을 하다가 보면 꼭 한국말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못 느끼지요. 센터에 와서 하니까, 선생님들이 물어볼 때는 한국어로 대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모들이나 집에 돌봄을 해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는 거의 배울 의사가 없고.....(면담자 C1)

가장 큰 거는 언어죠. 당연히 저희들은 문제가 이런 여러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많이 오

다보니까 러시아어를 쓰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중앙아시아랑 러시아에서 온 애들이 되게 많아요. 애네들 10분의 1이 그렇거든요. 이 친구들끼리 서로 러시아어로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안 배워요. 왜냐하면 한국어를 안 배워도 친구들 관계가 어렵지가 않으니깐 그래서 이제 지가 고립이 돼서 어쨌든지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 하는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소수국가 중국 아이들이 그 반에서 한 명밖에 없으면 막 배울려고 해요. 그래야 친구들하고 어울리니까 그게 아니라 그 반에 한 명만 러시아 친구가 있으면 애랑 얘기하면 되니까 그래서 안 배울려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를 저희가 전 학년이 쓰고 있는데 복도에서 러시아 말이 엄청 크게 들려요.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쉬는 시간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해 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그 걸로 이제 너무 시끄럽다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한국말을 안 배울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희반 친구도 좀 하는 친구 안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제가 전달하는 것을 통역을 해줘요. 애가 막 배울려고 안하는 거예요. 안해도 전달이 다 되고 지네 친구들하고 소통하고 하니깐 그게 가장 어려워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반마다 두 명 있는 데도 있고, 3명 있는 데도 있고, 한 명 있는 데도 있는데 학년마다 다 있어요. 그래도 친구 관계가 좋은 거예요. 일단은 자기 언어 통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일반친구들하고도 애네들이 좀 오래된 애들은 잘 지내는 언어가 안 되는데 저희반 애들은 중국말 하는 애들도 있고, 러시아 말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애네들이 서로 말이 안 통하잖아요. 서로 안 통하는데도 서로 말이 안 통한다는 공통점 때문에 서로 가깝게 지내고 그러면서 영어로 얘기 서로 안 통하면서 한국말로 하든지 영어로 하든지 자기들끼리.....

그런 아이들을 모여서 한국어 수업을 해줘요. 그러니까 개네들이 같은 반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학년별로 하는데 수준별로 6학년이라도 수준에 따라서 4개 반으로 나눠서 나 이 상관없이 개네들끼리 잘 놀아요. 다른 학교보다 훨씬 빠르게 편하게 적응하는 그래서 더욱더 많이 오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소개 받아 가지고 고려인이 서산에 왔으면 소개 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90명쯤 초반이었는데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면담자 C6)

3) ‘코로나19’ 확산 이후 온라인 수업의 실태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도입국 학생의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었다면 온라인 수업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혼자서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집중을 잘하는지 등을 질문하였다. 학교에서는 ‘코로나19’ 초반에는 EBS로 수업을 진행하고, 11월부터는 줌을 이용해서 화상 수업을 진행하였으나, 2021년에는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통하여 정상적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온라인 수업 중에는 컴퓨터가 없거나 사용하기 어려워 수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어렵고, 통역을 해주는 사람도 없어서 실제 온라인 수업의 어려움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다.

작년에 1학년 친구들 세 명이 중도입국 학생이었는데 그 친구들은 알아듣는 건 알아듣고 적극적인 친구들이라서 생각이 있으면 말도 하고 해서 중도입국 학생이라고 해서 따로 하진 않았어요. 1학년 때는 EBS로 했었구요. 11월달부터는 줌을 이용해서 같이 접속해서 화상으로 했었는데 적극적이었어요. (면담자 C2)

초기에 온라인 이제 학생들이 개학이 늦어지면서 그 4월달쯤부터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을 했는데 이제는 애들이 집에 컴퓨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없는 애들 조사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컴퓨터 지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수업을 해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을 해서 되겠냐고 말이 안 되는 애가지. 그래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해 가지고 어쨌든 지금은 여기는 학교가 규모가 작으니까 매일 학교를 다녀요. 그나마 다행스럽게 2달을 온라인으로 하고 수업이 안되는 거죠. 애들이 컴퓨터도 없는데다가 있어도 그걸 사용 안 해봤으니까 수업을 하는지 받는지 알길이 없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 약자들한테는 이게 완전히 된서리라고 된서리..... (면담자 C4)

제가 온라인 수업은 학생들이랑 초등학생들이랑 안 해보고 중고등학생들이랑은 했는데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은 줌 활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익숙하고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온라인 수업이어서 더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수업했을 때는 이미 아이들이 학교에서 훈련이 돼 가지고 어렵지는 않았어요. 학교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는 힘들었겠지만..... (면담자 C5)

온라인을 하기는 했어요. 초반이랑 마지막에 했는데 초기에는 부모님이 대부분이 한국 말을 못 하시기 때문에 가정에 전달하는 알림장을 쓰든 아니면 이게 잘 안 돼요. 안내문 받는 것도 잘 안 되고 저희도 전달은 하지만 이제 그분들이 번역기 써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번역이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엉뚱한 말로 하니까 온라인 수업을 하려면 아이들 같은 것을 알려주고 하는데 그거를 몰라가지고 러시아 선생님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도 못하니까 그 친구들이 출석 안 하는 친구들이 있죠. 작년에 할 때는 출석을 러시아 친구들이 개만 작년에는 언어 때문에 그 아이들이 결석을 했어요. 수업 자체도 못 듣고 그걸로 수업을 하는데 언어 때문에 수업을 못 하니까 저학년 애들은 통신기기를 만지는 것이 어려우니까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한데 도와 줄 수 없어요. 여기 있으면 그래도 하는데 집에 있으면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더 일반가정 아이들보다 더 심하게 학습 격차가 심하죠. 대부분 부모님들이 맞벌이여서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죠. 격차가 심해지는 거 같아가지고 올해는 작년보다 온라인 한 번도 안 해가지고 방과 후도 계속 했거든요. (면담자 C6)

사실 온라인 수업하면서 저도 하죠. 계속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 오는 경우가 많아서 안 들어 오면 출석 인정이 안 되니까 저희가 이제 떨어지죠. 출석 인정이 안 되게 프로그

램이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어쨌든 출석때문에라도 들어와야....., 출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참여도 저조하고 참여를 한다해도 언어소통이 안 되니까 어렵고, 현장에서는 이중언어 강사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한국어 수업을 들어오기도 하는데 온라인 수업 중에는 통역선생님이 없으니까....., (면담자 C7)

수업은 작년이 어려웠어요. 원격수업을 전면으로 하면서 e학습길 쓰던가 줌을 쓰기도 했는데 이거를 인터페이스라고 해야 하나 연결해주는 그거를 환경, 처음 초기환경 구축하는데 어려웠어요. 아이들이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언어도 어려우니까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는 이중언어 강사라는 게 있거든요. 중국어나 한국어를 또는 러시아어나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이중언어 강사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중간에서 계속 통역해 주고 그러면서 어렵게 구축했었던 거 같아요. 게다가 외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가입이 안 돼서....., 지금은 등교수업하는 데 큰 학교들은 교차로 등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면담자 C8)

학교는 이중언어 강사가 일주일에 두 번 출근하여 담당 교사가 원하는 전달사항과 의문 사항을 중간에서 통역해 주고, 학부모 또는 학생과 직·간접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안내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지도하는 과정에서 연습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기기 다루는 법부터 언어소통에 이르기까지 한계가 있기도 하였으나 2학기부터는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도 면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센터에서는 ‘코로나19’ 초반부터 면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4) ‘코로나19’ 확산 이후 돌봄 및 지원 프로그램의 실태

학교나 혹은 기관에서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이전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중에서는 한국어교육이 가장 중심이었고, 그 외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프로그램이 중단되기도 하여 지속성을 갖지 못하다 보니 프로그램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등교 수업을 못할 때는 가정에서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

한글 프로그램, 미술 활동, 요리 활동 등 지금은 약기 강사님을 모집하고 있고....., 영어도 하고 댄스, 체육도 하고 있는데 큰 아이들이 참여를 하지 않아서 힘들어요. 참여했다가 또 말없이 나가요. 말이 통하지 않아서 소통이 어려워요. (면담자 C3)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하지 못했지요. 하지 못해 가지고 애들은 갈 데가 없고 한 6개월간 그랬으니까 그 뒤로 이제 다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재개를 해서 올해 지역아동센터를 개설을 한건데 애들은 모든게 그렇잖아요. 지속적으로 이거를 해야 꾸준히 거기를 나오는데 중간에 한 6개월 쉬니까 나오고 싶지 않지....., 지들은 놀고 싶은 사람들과 놀으니까 그게 애들이 모은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시간이 걸리고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도 부모입장에서 애들을 집에서 있어봐야 게임이나 하고 그러니까 여기 나올 수 있게 하지요. 급식은 아동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음식은 기호라고 할까? 애들이 음식을 가리지요. 엄마가 해 주는 거하고 다르니까 여기서는 학교에서 해 주는 거 그대로 해 주니까 애들한테는 자기 입맛에 100% 맞는다고 보기 어렵지요. 봐가지고 지들이 좋은거만 먹지 어떤 것은 많이 남게 되고 그래서 부모들한테 애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또 그거만 다 줄 수도 없고, 조사는 하는데 그게 이제 애들한테는 어찌됐든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은 아니지요. (면담자 C4)

여기는 진짜 심할 때 연말에 안 하고 학기 초에 안 하고 교육부에서 알아서 하라고 할 때는 저희가 소규모 학교니까 저희는 계속 나오다가 마지막에 2주만 안 하고 나머지는 다 했어요. 방과 후는 안 하고, 겨울 방학에 이제 저희가 2020년에 다 끝내기로 했는데 12월 말에 끝나기로 했는데 이제 1월까지....., (면담자 C6)

저희는 일단 등교수업을 전면 하거든요. 그래서 괜찮은데 작년에 등교수업 못할 때 가정방문을 가보면 그냥 개네들만 집에만 있어요. 직장 때문에 부모들이 안 계시니까, 한국어도 안되니까 밖에도 못 나가고, 코로나 때문에 그냥 갇혀 있는거죠. 안타까웠습니다. 등교 수업하니까 방과 후에도 무조건 하니까 좋습니다. (면담자 C8)

5) 현재 교육 및 돌봄의 실태

현재는 코로나로 인한 방역체계에서 거리 두기가 완화되기도 하고 학생들의 등교 수업도 많이 정상화되면서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앉아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진행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어 발음을 지도하는 경우 발음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고학년 학생들의 참여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언어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는 소규모 학급이라서 계속 거의 나왔지요. 작년에도 심할 때 빼고는 거의 계속 나왔어요. 대신 그때와 다른 점은 마스크를 쓰고 어느 정도 거리를 확보 해야 되니까 같이 어울려서 하는 모둠 활동 프로그램이나 같이 음식 만들어 먹거나 하는 좋아하는 것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떨어져서 일대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코로나 이전이랑 비교해서 여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는 가림판을 급식실에서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점은 같이 어울리고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친구들 교우관계 좋게 하고 이런 프로그램은 대부분 직접 어느 정도 스킨십도 있고 친밀한 관계에서 해야 되는 데, 지금은 마스크도 쓰고 떨어져 있으라고 하니까 그런 점이 어렵지 않나 합니다. (면담자 C2)

마스크 쓰고 수업하니까 힘들고 일단 아이들을 입 모양 같은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 쓰면 더 답고 소리가 더 안 들려요. 그래서 그것도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게 제 판단이었고 지금은 사실 뭐 칸막이를 한 곳에서 수업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칸막이를 하는 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더 아이들이 공부하느라 불편하고 힘들기만 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어려움이 있고 급식, 간식 주는 것도 같이 먹고 하면 좋는데 그런 것도 조심스럽고 싸서 준다해도 같이 먹고 즐거움도 있는건데 사실 그런 걸 못하니까 아쉬움도 있죠. (면담자 C5)

지금은 작년보다 나아졌어요. 사실은 마스크만 쓰고 있지 웬만한 것은 다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훨씬 나아졌죠. 작년에는 방과 후도 반밖에 못했어요. 코로나가 심해지면 중단하고 그래 가지고....., 방과 후를 돌봄이랑 연계해서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애들은 방과 후 비를 안 내고 돌봄비로 방과 후를 다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하면은 1학년 같은 경우는 한 1시에서 4시, 고학년은 3시-4시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지금은 4시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버스 타고 다 집에 가요. 시골이니까....., (면담자 C6)

마스크를 쓰고 발음과 소리를 들려주는 데 한계가 있어요. 특히 초등 저학년을 지도할 때나 센터의 초급학습자를 지도할 때 입 모양을 보여주고 발음을 지도하는데 어려워서 가림막 밖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입 모양을 보여주고 했어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내리고 소리를 내보라고 지도할 수가 없어서 제대로 발음을 하는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수업시간과 쉬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학생들이 겹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등교시간도 격차를 두고 등교하며, 수업시작 시간도 학년마다 달라요. 그런데 다문화교실 학생들은 학생들이 골고루 섞여 있어서 수업 중간에 들어오기도 아니면 수업하다 말고 원적 학급에 돌아가기도 해요. (면담자 C7)

6) ‘코로나19’ 확산 이후 학생들의 변화

‘코로나19’ 이후에 학교생활에서 중도입국 학생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변

화가 생겼다면 어떤 면에서 변화가 생겼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아이들은 가뜰이나 언어 문제만으로도 힘든데, 거리 두기로 친구 간에도 좀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아이들이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 정서적으로도 좀 안 좋아진 것 같고 배우고자 하는 의욕도 좀 떨어진 것 같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코로나 이전에는 학교에 다니면서 수업을 하니까 조금씩이라도 배우고 했는데 그게 변했어요. 코로나 이후 아이들이 미디어 등 핸드폰에 노출이 많이 돼서 정서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대면 수업을 해야 배우고 그러는데 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틀어 놓기만 하고 수업은 안 하고 핸드폰으로 게임을 해요. 돌봄도 코로나 이전에는 많이 오고 프로그램 참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부모님들도 꺼려해서 안 보내시는 경우도 많고, 아이들이 하루종일 마스크 착용을 하니까 힘들어 하기도 해요. (면담자 C3)

여기는 특별한 변화는 없어요. 애들한테는..., 부모들한테 경제력과 관련이 된건데 뭐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코로나 대응을 잘해서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잔업이 준다든가 이런 거는 있어요. 전반적으로 놀던 사람들도 취업이 되는 경우가 있고, 부분부분 산업에 따라서 일감이 줄어들고 소득이 준 경우가 생긴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분란도 많이 생기고 그런 것이 애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생각은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특별하게 애들한테 학습이라든가 돌봄에 특별한 문제가 없긴 한데 애들도 자기들끼리 조심하는 분위기는 있지요. (면담자 C4)

식사는 못 하면 지역아동센터 가서 하더라고요. 그분들도 거기가 좋아서라기보다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데 저희 있는 쪽은 그쪽으로 다 몰려가지고 하더라고요. 그쪽 부모님들도 서로 아니까 우리 쪽에 와서 하고 고학력 애들은 사실 본인이 해결할 수도 있고 그런 거 같아요. 저학년 애들은 그게 안 되니까 그런데 보내고....., (면담자 C6)

거리 두기로 인하여 학생들 사이도 멀어진 듯해요. 다문화교실에서 성격이 좋은 친구도 원적학급에 가면 친구가 없다고 해요. 가뜰이나 언어 문제로 힘든데 거리두기로 인해 더 멀어진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어 수업이 끝나면 '교실로 가세요'라고 했을 때 '가기 싫어요'라고 할 때는 많이 안타깝죠. (면담자 C7)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큰 변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교사도 있다. 다만, 새로운 현상이라고 하면 이제는 마스크 사용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방과 후 돌봄도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라서 대부분 등교를 한 상태에서 중도입국 학생들에 대한 돌봄이 잘 진행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크게 변화가 없고, 이와 함께 불안해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며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거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 아이들에 자유의지에 의해서 온 거가 아니잖아요. 여기 온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단 부모님에 의해서 내려온거고, 큰아이들은 다 온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는거 같아요.” (면담자 C1)

이전 이후 별로 변화가 없어요. 다른 거라면 마스크 사용하는 것. 지금은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들 있어요. 당연히 하는 걸로....., 학교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등교를 많이 했구요. 학교 특성상 중도입국학생들에 대한 케어가 잘되는 학교이다보니 아이들이 크게 변화가 있거나 크게 불안하거나 한걸 최소화시켰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걸로 인해 크게 달라진 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면담자 C9)

7) 중도입국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

중도입국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도입국 학생이 오면 바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쳐주는 데 학생들에게 효과가 높다고 하였다. 또한, 적응 기간으로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기간만 잘 견디고 노력하면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아이들이 참여하는 것도 순조로운 편이고 나이가 어릴수록 적응의 정도가 빠르다고 하였다.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이 더 필요하지만, 이런 공간이 저소득층이 다니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하였다. 또 프로그램도 중복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구성,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응답도 있었다.

반면에 아이들의 수준이 다르고 학습자들 변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효과는 일부 학생에게만 있다고 보는 응답자도 있다. 그러나 중도입국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을 문제점으로 밝혔다.

저는 지금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소반’ 이라고 해서 중도입국 학생이 오자마자 한국문화나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래사회를 대비해서 이 학생들을 위해서 좋구 효과가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학급에서 2년 정도 공부를 하고 통화가 되면 들어오는데 대부분 잘 적응을 해요. 효과가 굉장히 높고 예산이....., (면담자 C2)

어린이들을 보면 굉장히 습득이 빠르고 배우는 것도 빨라요. 참여하는 것도 순조롭게

받아들이고 누구든 같이 어울리고 배우려고 하고...어릴수록 적응을 잘합니다. (면담자 C3)

일단은 애들이 학교교육, 학교생활만으로는 한국생활을 100% 안다고 볼 수 없지요. 학교 밖에서 어떻게 애들을 돌볼거냐 그 문제지요. 그러면 보통 이제 일반 학원에 다닌다든가 애들이 영어는 잘하니까 영어 능력이 뛰어나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애들 영어 같은 거 애들 적성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부모의 학력 수준이나 소득에 따라 그런 노력을 하는데 대부분 애들이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학원에 못 가면은 할 게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이 필요한 거고 이런 시민사회 도움이 필요한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아동센터는 애들한테는 아주 좋은 그런 시설이고 교육, 돌봄 보육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데 애들한테는 자기들끼리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애들한테 좋은 거고 보통 지역아동센터가 차상위 계층 이하의 애들이 다니는 것으로 인식돼서 한국 애들한테는 거기 다니는 게 부끄럽다는 게 전반적인 생각이잖아요. 애들은 그런 건 없어요. (면담자 C4)

여기저기서 프로그램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고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힘들고 전체적으로 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것도 다문화센터에도 아이들이 수업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이주민센터도 하고 저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저도 시작할 때 다문화센터에서 이주민센터에서 가지 않는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그중에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어~ 한 기관에서 올해는 여기 가고 내년에는 저기 가고 이렇게 하면 사실 배운 거 또 배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차라리 누구는 어디가 배치가 되고, 누구는 어디가 배치가 되고 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를 기관에서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면담자 C5)

일단은 언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애들이 의사소통이 될 정도로 하거든요. 수업 내용까지 알아듣는 것은 어려운 거고, 기본적인 자기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을 정도, 빠른 애들은 한 학기면 1학년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한 학기 만에 자기 아픈 거 다 얘기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고, 1년이 지나도 안 하는 친구가 있고, 편차가 달라서 1-2년이면 웬만하면 다 하는 거 같아요. 진짜 안 하려고 하는 애들 말고는..... (면담자 C6)

아이들의 수준이 다르고 학습자들 변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효과는 일부 학생에게만 있다고 봅니다. (면담자 C7)

5.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돌봄 정책에 대한 요구

학교나 지역의 아동센터 등에서는 중도입국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과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있는 중도입국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육과 프로그램을 담당하여 운영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각각 어떠한 요구사항을 생각하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가.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

중도입국 학생들 자신에게는 한국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 학교 공부 중 가장 어려운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중도입국 학생의 안정된 한국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장래 희망, 부모나 가족에게 바라는 것 등을 중심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1) 한국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과 학교 공부에서 어려운 점

중도입국 학생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한국어교육이라는 이야기를 모든 학생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교육은 중도입국 학생들이 한국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1차적인 문제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학교 공부에서 어려운 점은 수학, 사회, 과학 등의 교과목을 들었다. 또한, 가족과 친구가 있으면 한국 생활이 안정적일 것이라는 답을 했다.

새로운 말 한국어를 잘 가르쳐줬으면 좋겠어. 한국어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 이해가 잘 안 됐어. 한국어 선생님이 이해가 잘 가게 가르쳐줬으면 좋겠어. (면담자 A1)

사회과목이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사회가 없으면 좋겠어요. 한국어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내 교실에 두 명 친구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친구가 어떤 쪽 알아요. 어떤 쪽 몰라요. 한국친구하고 친해요. 한국친구하고 한국어로 말해요. (면담자 A2)

어려워요. 체육 빠고, 미술 빠고 어려워요. 한국말 잘하도록 도와주면 좋아요. 어~ 어렵운데 좋아요. 수학, 과학 어려워요. 한국말 못하니까 어려워요. 수학, 과학 어려워요. 사회, 국어 어려워요. 좋은 친구 많아요. 같이 한국말 연습하고 산책하고 배구하고 그냥 얘기해요. 친구들이 한국말 설명해줘요. 수업시간 때 핸드폰 사용하면 좋겠어요. 모르는 단어 검색하려고....., (면담자 A3)

수학 조금만 알아요. 사회 도덕 어려워요. 학원에 보내주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어를 집에서 너무 많이 해요. (면담자 A4)

국어예요. 국어가 힘들어요. 몰라요. 형이 도와줘요. 한국말을 잘 몰라서 이해를 못해요. 몰라요. 아직 몰랐어요. 한국어 잘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면담자 A5)

필요한 것이 없어요. 다 있어요. 한국말을 잘하면 좋겠어요. 어려운 것은 한국말 몰라서....., (면담자 A9)

더 잘 지내면 좋겠어요. 가족 모임 많이 하면 좋겠어요. (면담자 A10)

한국어 공부하고 한국문화와 역사를 가르쳐주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생활은 좋아요. 한국 사람들은 착해요. 모르는 거 있으면 잘 알려줘요. 한국요리, 전통문화를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어요. 논산 다문화가족센터, 처음에는 한국어 배웠어요. 그리고 통역을 받았어요. 조금 어려웠어요. 카자흐스탄 사람인데 러시아어로 통역해 주었어요. (면담자 A11)

만족해요. 어려운 점은 한국어가 안 돼서 힘들어요. (면담자 A13)

가장 필요한 것은 한국 언어, 어려운 것은 한국 언어, 수학, 영어, 사회....., (면담자 A19)

한국어가 가장 필요해요. (면담자 A20)

필요한 것은 한국어 능력, 어려운 것은 역사, 국어요. 한국어 한국문화 가르쳐 주면 좋겠어요. (면담자 A22)

2) 장래 희망과 가족에게 바라는 점

장래 희망에 대해서는 요리사, 체육 선생님, 경찰관, 게이머, 회사원, 통역사 등 다양한 답변이 나왔지만, 공통적인 한 가지는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여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아직 꿈을 정하지 못하였다는 응답도 있었다.

요리사가 되고 싶어. 미국 요리사가 되고 싶어. 미국에서 아시아 요리 만들고 싶어. 다른 사람들이 음식을 많이 먹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 같아. (면담자 A1)

체육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공 사기, 공을 사쳤으면 좋겠어. (면접자 A2)

지금 몰라요.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농구 잘해요. 농구 선수 되기 위해서 많이 연습해야 돼요. 체육 선생님 되고 싶어요. (면담자 A3)

아직 몰라요. 체육 선생님 되고 싶어요. (면담자 A4)

경찰관. (면담자 A5)

게이머(유튜브 만드는 사람). (면담자 A6)

대학교 졸업 후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면담자 A9)

통역사가 되고 싶어요. 어떤 고등학교에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께서 인터넷고등학교에 진학하라고 했어요. 외국사람들 많고 여러 가지 특별활동도 하고 공부 잘하면 고향에 가서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고 고향에 가서 친구들이랑 만나고 인터넷 고등학교에서 러시아 학생들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여기 학교 좋아요. 여자 중학교, 여자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서 좋아요. 러시아에서 한 책상에 두 명이 앉아요. 여기는 혼자 앉아요. 여기는 사물함이 있어서 좋아요. 러시아에서 사물함 없어요. 집에 책 안 갖고 가도 돼요. 체험 활동, 그리고 여행 가서 좋아요. 지금은 코로나 땀에 못해요. 취미활동 많이 해요. 작품활동 많이 해요. 뜨개질, 바느질해요. (면담자 A11)

장래 희망 몰라요. 없어요. 하고 싶은 거 없어요. (면담자 A15)

꿈요? 아직 못 정했어요. (면담자 A19)

모델, 의사가 되고 싶어요. (면담자 A20)

통역사, 영어교사. (면담자 A22)

부모나 가족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였다. 부모가 아프지 않고 가족 모임을 좀 많이 하지 않고, 자신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다. 부모와 함께하는 한국 생활에는 비교적 만족하고 있고,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하고 있다.

없어요. 지금이 너무 좋아요. (면담자 A3)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면담자 A7)

음~ 아프지 말라구요. 아빠가 아프지 않음 좋겠어요. (면담자 A8)

가족 모임 많이 하면 좋겠어요. 더 잘 지내면 좋겠어요. (면담자 A9)

집안일 안 시켰으면....., 일하기 싫어요. (면담자 A19)

엄마는 내 마음을 이해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면담자 A22)

나.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 학부모

고려인 중도입국 자녀를 돌보고 있는 부 또는 모의 대부분은 재외동포(F-4) 비자와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지고 있다. 자녀 입국 후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자녀를 위해 희망하는 지원 내용, 자녀 돌봄에서 가장 필요한 것, 자녀의 진로 희망, 바라는 점 등을 중심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1) 자녀교육이나 돌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자녀와의 한국 생활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체류자격으로 인하여 남편만이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그런 이유로 자녀가 원하는 것을 모두 충족시켜줄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의 다수가 집과 돈이라고 응답하여 경제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주거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불편하지만, 집세가 비싸서 옮기는 게 쉽지 않다고 답하기도 하고, 자녀의 교육을 위한 학원비나 어린이집 보육료 등과 같은 경제적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집이 작아서 좀 넓으면 좋겠어요. (면담자 B1)

어린이집 보육료가 비싸지 않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다 OK. OK.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어린이집이 있으면 좋겠어요. 학교도 따로따로 있으면 좋겠어요. 천안에는 하나도 없어 병원도 없어 어린이집도 못 가는 어린이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면담자 B18)

선생님들과 놀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배울 수 있는데 어린이집이 너무 비싸서 다닐 수 없어서 2개월 다니고 지금은 집에 외할머니가 돌봐줘요. 외할머니한테 맡겨 놓고 인터뷰 나왔어요. 집에 있어요. 다른 어린이집 자리 있으면 보내야 해요. 알아보는 중이에요. (면담자 B19)

중도입국한 자녀들을 위해 학교나 사회에서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등의 질문에 경제적인 지원이 우선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현재 가장 시급한 지원으로는 학습지원을 꼽았고, 센터 등에서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돌봐 주기를 원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의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녀의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학원도 다니지 못하는 상황을 가장 힘들어했다. 학원을 보낼 수 있거나 피아노와 같은 악기, 수영 등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기도 하다.

대학교 무료로 입학하고 싶어요. 우리 애기한테만 해주면 좋겠어요.” 학원처럼 하는 거 있으면 좋겠어요. 고려인 센터가 있으면 좋겠어요. 학교 끝나고 아이들이 나가버려서 거리에서 놀고 있어요.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있으면 좋겠어요. (면담자 B2)

어려워요. 먼저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국어가 먼저예요. (면담자 B4)

지금은 다 있어서 괜찮아요. 캠핑이나 여행 같은 거 있으면 좋겠어요. (면담자 B5)

아이들 학원 태권도학원 등 무료로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수업을 못 해서 한국어 수업을 못 받고 있어요. (면담자 B12)

우쿨렐레 배우고 싶어요. 하지만 유치원에서 가요. 금요일 3시부터 해요. 시간이 안 맞아서 못가요. 큰딸은 이런 거 없어요.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아니요. 제가 하고 싶어요. 테니스 이런 거 하고 싶어요. 피아노 조금 하고 싶어요. 바이올린은 조금 하고 싶어요. 이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직업학원 이런 거 없어요. 너무 멀어요. 유치원에 지금 비싸요. 어린이집 돈 안 내면 좋겠어요. (면담자 B14)

수영하기 좋아해요. 수영장 없어요. 수영장이나 스포츠센터 같은 시설이 있으면 좋겠어요.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해요. 방과 후 아동센터 교육센터 악기를 치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거기에서 네네~~ 한국어 학습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학교 근처에 많은 외국인 학생들 방과 후에 학원에 안 가고 밤늦게까지 밖에서 놀아요. 네네~~ 학원이 있긴 있는데 부모님들이 네네 아이들이 밤까지 놀아요. 한국 아이들은 없어요. 한국 아이들은 학원에 가고....., (면담자 B15)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는데 프로그램 센타 등이 필요해요. (면담자 B18)

2) 자녀의 장래 희망 및 한국 생활의 어려움

한국 생활의 만족도와 자녀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한국 생활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답을 했다. 이와 함께 부모가 원하는 것은 자녀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노력하여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주기를 바라고 있다.

네. 좋아요. 건강하게 잘 자라면 좋겠어요. 율리아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좋겠어요. (면담자 B5)

90% 만족해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한국생활 만족도....., 한국에서 아이들을 가르키고 한국인 아이들과 똑같이 키우고 싶어요. 비자승격을 위해서 돈이 부족해요. 남편 혼자 일 해서 연봉, 연봉이 3,700만 원이 안 되고 있어요. (면담자 B12)

앞으로 자녀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떠한 일을 하면 좋겠는지 자녀의 진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부모들은 희망하는 자녀의 직업에 대해 화가, 건축가, 의사, 요리사, 경찰관, 선생님 등 다양하게 응답하고 있었다. 이들 직업은 공통적으로 안정적이고 전문적 직업인 것으로 보여 자녀의 안정된 미래를 원하고 있었다.

화가, 건축가. (면담자 B1)

치과의사 되고 싶어 해요. (면담자 B2)

요리사가 되면 좋겠어요. (면담자 B4)

경찰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면담자 B12)

자기마음에 자신이 마음에 드는 일,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면담자 B15)

교회 어린이들 가르치는 일. 선생님. (면담자 B18)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물었다. 중도입국 자녀의 학부모 역시 한국어 소통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며 살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국어지만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여 경제활동을 하느라 한국어 배울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아기에 게 마스크를 씌워야 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다.

한국어.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거, 하루 돈 못 벌면 부담이 있고, 언어를 배울 수 있게 직장에서 시간을 주면 배우고 싶어요. 52명이고 조선족이 5명, 언어가 안 돼서.....,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해주면 좋아요. (면담자 B4)

애기는 마스크 쓰는 게 어려워서 외출하는 게 어려워요. 조금 더 크면 애기에게 마스크 쓰고 다녀야 한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코로나 전에는 외출 많이 했어요. (면담자 B12)

의무적으로 언어를 배우도록....., 찾아가는 한국어 수업,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교육 그런 거 있어요. 직장생활하면서 두 가지 일하는 거 어려워요 한두 시간이라도 찾아가서 해주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언어능력이 떨어지니까 서로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워요. 회사나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것을 해주면 좋겠어요. 근무할 때 못 알아들어서 잘못해서 하루는 일 그만두라고 했어요. (면담자 B15)

네, 처음에 왔을 때 그 일이 너무 힘들었어. 우리나라에서 일을 했는데 은행에서 일을 우즈베키스탄에서 했어요. 12년 동안 은행에서 일을 했는데 여기 와서 처음에 유리공장에 들어갔어요. 너무 힘들어 못 했어요. 그다음 공부 시작했어요. 지금은 작년부터 6개월 계약해 놓았어요. 러시아 말을 가르키기로....., 언어 때문에 러시아 학생들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언어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 학생들에게 그 일이 공장에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공부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그리고 그때 우즈베키스탄에서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네 지금도 농협은행에서 금요일마다 출근하고 있어요. 네 통역하고 있어요. (면담자 B16)

다.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 돌봄 종사자(학교, 기관)

중도입국 자녀를 돌보는 학교와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돌봄의 실태는 어떠한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돌봄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지, 돌봄 프로그램의 앞으로의 개선점은 무엇인지, ‘코로나19’를 고려한 특별 프로그램을 계획한다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지원에 따른 요청사항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1) 이중언어 강사 등 지원 인력 필요

중도입국 학생을 돌보는 학교 선생님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가 공통으로 꼽은 것이 이중언어 강사의 필요성이다. 이중언어 강사의 개입으로 학생들의 학습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즉, 통역사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통역사가 중간에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면 중도입국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무엇보다 적응할 때는 언어가 제일 우선이니까 지금 지원해주시는 돌봄교실 할 때도 오시는 선생님들이 시간대별로 나가시다 보니까, 개선점이라고 하면 예산지원만 되면 시간을 더 늘려주면 좋겠어요. 언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면담자 C2)

통역사가 있어야 해요. (면담자 C3)

이중언어 교사 지원 중도입국 시기가 늦을수록 필요한 거지요. 뚝뚝한 애들이고 일단 언어습득이 돼야 되니까....., 그만큼 늦을 수밖에 없지 시작이 늦으면 끝도 늦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중언어교사가 있어야 개들한테 학습 인식할 수 있는 그리고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적으로는 이중언어 교사가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면담자 C4)

언어에서 어려움을 느끼니까 저희는 한 선생님이 다 하니까 한 학년이 한 시간 두 시간 밖에 못 들어와요. 좀 적죠. 이런 게 늘어나면 늘리든지 한 분의 사람을 늘린다든지 또 필요한데 그것을 또 지원 받아야하고 그러려면....., (면담자 C6)

저희는 지금 하이클래스 이런 것들을 쓰고 있어요. 알림장 같은 것들을 쓰고 있는데 번역도 되고 번역시스템이 있는데 학교에서 공지를 하면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고 이중언어 강사님께 번역을 부탁도 하고 급하면 다누리콜센터를 이용해서 동시통역 같은 걸 이용하기도 하고 획기적인 프로그램이 있는 게 필요한 것 같고 뭔가 전환할 만한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가정과 학교하고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게 필요한 거 같아요.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도 연결이 안 되면 어렵더라고요. 시스템상으로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낸다던가 학생들을 통해서 가정에 보내는데 아이들이 메모해서 부모님께 보여드리기 전에는 까먹잖아요. (면담자 C8)

학교에서는 '한국어 수업' 시간에 협력 강사님들이 중도입국 학생들만을 위해서 투입되고 있습니다. (면담자 C9)

2) 돌봄 공간 환경의 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

중도입국 학생을 돌보는 교실의 기자재나 환경 문제를 지적한 응답자도 있다. 아울러 한국어교육도 한국어교육만이 아니라 다른 교육과 접목해서 이루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반은 소수정예예요. 그렇다해도 한 반당 한 교실이 배정되어야 하고, 학습기자재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다른 교실(한국어 수업교실)은 기자재가 부족하고 환경이 열악합니다. 작년에는 한 교실에서 3반 수업이, 올해는 2반 수업이 따로따로 진행해서 수업에 방해가 되기도 해요. 따로 떨어져 나간 교실은 음악실이나 학습준비실 같은 곳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교 사정상 교실을 옮겨 다닐 때도 있어요. (면담자 C7)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교육방법을 좀 더 한국어보다는 한국어에 초점을 두되 그러한 음~ 세계의 변화와 요구가 있잖아요. 거기에 접목한 한국어교육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어교육이 코딩수업과 연결될 수도 있구요. (면담자 C9)

또한,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상담사가 상주해 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학교에 적응 못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부모님들도 관심이 없고, 연락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상담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이와 함께 중도입국 학생의 부모가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의 생각부터 개선되어야 함을 이야기했다.

또 부모님부터 개선되어야 해요. 부모님이 거리를 두고 마음을 열지 않고, 자격지심이 있어요. (면담자 C3)

그리고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적응 못 하는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도 관심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연락이 안 돼서 그래서 더 필요한 거 같아요. 의사소통이....., (면담자 C8)

3) 지자체의 적극 개입, 법적 근거 마련, 인식개선

이러한 요건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지자체의 개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외국국적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학교 선생님이나 지역아동센터 교사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행정적으로는 자치단체의 관심인데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자치단체가 외국인 동포라고 해도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요. 결국,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관리대상에 불과하거든요. 그거 갖고는 뭐가 되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당장 중요한 건 행정당국에서 이 사람들은 지역 주민으로 인식하고 인정해 주고 그거에 대한 뭐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행정 당국에서 자치단체 이 사람들의 존재를 모르고 파악이 일단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뭐를 한들 되겠느냐는 거죠.

결국은 제도적인 보완이 우선 절실하게 필요하고, 여기는 일단 잘 나오게 하는 거죠. 지역아동센터에서 특별히 크게 바뀌겠어요. 결국은 거기서 거기지만은 애들한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유지되고 거기다가 이제 나름대로 이러저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지원이 아직은 부족한 상태지요. (면담자 C4)

또한, 지역 주민을 포함하여 일반 한국인과 사회 지도층 인사까지 인식개선이 필요함도 함께 토로하였다.

그 뭐 재정적인 문제 그런 어려움이죠. 자원봉사자들 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인식을 개선하고 참여 할거냐 그게 관건입니다. 일반 보통 우리 주민들이 외국인에 대한 생각이 같은 지역에 같이 사는 동료로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생각하는 '외국인으로 잠깐 돈 벌고 간다. 애네들은 사회적으로 아무 기여도 하지 않는다. 돈 벌고 지원 받을거 받고 떠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인식개선부터 돼야 되겠다.

한국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백해무익하다고 생각하는거거든요. 외국인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기여 하는 바가 없다 오직 받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건데 사실관계를 따져봐도 그게 말이 안 되는 애긴데 문제는 그런 용도의 인식이 일반 보통 사람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지도층 인사들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면담자 C4)



IV 쟁점별 논의 및 돌봄정책 방향 탐색



코로나 확산에 따른 충남 중도입국
자녀 돌봄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1. 충남 중도입국 학생 돌봄 실태 및 요구에 대한 결과 요약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 재외동포비자(F-4)와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 출신국은 대부분이 러시아를 비롯한 중앙아시아권이며, 심층 면담에 참여한 중도입국 학생들의 한국 입국 후 생활 실태, 코로나19 이후의 생활 실태, 한국 생활의 안정적 적응과 성장을 위한 요구 사항들에 대한 질문의 응답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중도입국 학생의 한국 입국 후 생활 실태

중도입국 학생의 한국 입국 후의 생활 실태로서 학생과 학부모는 모두 전반적으로 한국 생활에 만족하다고 하고 있다. 다만 어려운 점은 부모와 자녀 모두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생활 문제를 제시하고 있고, 특히 학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돌봄 제공자로서 교사와 기관 종사자는 중도입국 학생의 생활 실태에 대해서 한국어교육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인식하는 만큼 이들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생활 만족과 달리 이들 중 일부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들의 생활 실태를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게 한다.

1) 한국 입국 후 생활에 대한 인식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들의 응답 내용을 살펴볼 때, 한국 입국 후 생활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중도입국 학생 대부분은 비록 경제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았지만 대체로 본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였으며, 친구와의 관계도 좋았다. 부 또는 모와의 별거 기간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 떨어져 있다가 중도입국하였으나, 별거 기간 없이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도 있었다. 입국하기 전 본국에 있을 때 부나 모와 떨어져 지내는 기간 동안 부모님이 그립고 보고 싶어서 많이 힘들었다고 하였다.
- 한국에 온다고 했을 때 한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궁금했지만, 한국에 대한 정보도 없고, 별다른 느낌도 없이 입국하였다. 처음에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고 했을 때는 한국 생활에서 한국어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워질 것을 미리 걱정하고 싫었다는 반응도 보였다.
- 한국으로 입국 후 가장 좋은 점은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것이고, 힘든 점으로 한국어 소통을 꼽았다. 이들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센터에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은 지역아동센터에 가지 않고 학교에서 방과 후 돌봄 시간에 교과목에 대한 보충수업과 함께 한국어 수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어 수업 시간이 한 시간 내지 짧은 시간만이 주어지기 때문에 한국어를 습득하는 데에 매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가 끝난 뒤의 생활은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보이며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가 끝난 뒤 집에서 혼자 지낸다는 답을 하는 학생이 많았다.
- 입국 후의 생활에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을 꼽았다. 그러나 한국어를 알아들을 수 없어서 수업 시간이 지루하다고 말했다. 또한, 수업을 계속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다.

2) 중도입국 학생들의 한국 생활 실태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 학부모들이 인식하는 자녀들의 한국 생활 실태를 요약해 보

면 다음과 같다.

-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에 본국에서의 가족관계, 가정 및 학교생활, 교우관계 등에 있어서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자녀가 한국으로 입국하게 된 배경으로 가장 큰 이유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고 하였으나, 이 외에도 한국이 안정적이고 불법이 없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라고 응답하고 있다. 본국에서 가족 간에는 화목하게 생활하였으나, 일자리가 많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이들을 위해 한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자녀와 떨어져 생활해야 했던 기간을 꼽았다. 입국 후 자녀들은 비교적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고, 학교생활에 흥미를 갖는 것으로 보이나 일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적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하였다.
- 자녀의 한국어교육은 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규교육 시간임에도 정규교육을 받지 않고 한국어교실에서 2년간 한국어 공부를 한 다음에 한국어로 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면 일반교실에서 정규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에는 지역아동센터를 찾는 경우도 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한국어 공부도 하고 저녁까지 먹고 집으로 오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 수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 학업 보충을 위해서는 학원을 보내기를 원하지만, 부모의 적은 수입으로 자녀를 학원까지 보내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자녀 중에 영유아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그 자녀가 어린이집에 가야 하지만, 한 달에 40~50만 원씩 내야 하는 교육비를 부담할 수가 없어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고 부모가 돌보고 있다고 하였다.
- 중도입국 자녀의 부모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에 더하여 중도입국 학생 학부모 역시 한국어 사용이 서툴고 어눌한 발음으로 인하여 2차적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도 직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에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 중도입국한 자녀와 부모님이 공통으로 꼽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은 한국어 의사소통이다.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입국 후 함께 살게 된 것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국에서 생활할 때는 일자리가 없어서 사는 데 어려움이 많

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일자리 찾기가 어렵지 않아서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3) 중도입국 학생들의 생활 실태에 대한 교사나 기관 종사자들의 인식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을 교육하고 돌보는 교사나 기관의 선생님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들의 생활 실태, 그리고 평소 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

■ 학교나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이들을 위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외에도 지역 대학교에서 봉사자들이 매주 와서 한국어교육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한국 생활 적응과 흥미를 유발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이해 교육과 함께 악기 연주, 합창, 미술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 학교에서 진행되는 한국어 수업은 일반적으로 학년별로 진행되지만, 학생의 한국어 수준이 낮으면 한국어 수준에 따라서 반 편성을 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어 습득에 대한 의욕이 보편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한국어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 일부 고학년 학생은 한국어교육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지만, 그 외의 활동에서는 본인이 흥미 있는 것만 참여하고 그 외의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 저학년에 한국으로 입국한 학생과 고학년이 되어서 입국한 아이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린 나이에 한국으로 온 학생들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가 하면 고학년이 되어 온 청소년들은 학습 수준은 높으나 그에 반해 언어소통이 안 되고, 한국어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나이 어린 친구들과 같이 수업을 들으려니까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

■ 이로 인하여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이는 곧 학업과 연결됨과 동시에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게 되며,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기도 하다. 중·고등학년이 되면서 고려인 아이들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일부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의 코로나19 이후의 생활 실태

코로나19 이후의 생활 실태에 대해서 학생들은 집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았고, 온라인 수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도 이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 이를 알면서도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 및 학부모 스스로 한국어를 몰라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어 돌봄과 교육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교사나 기관 종사자들은 코로나 이후에도 돌봄이나 교육 지원 프로그램에는 큰 변화는 없으나, 온라인 수업이 한국어가 부족한 상태에서 효과를 거둘 리 만무하다고 보고 있어 이들의 한국어 부족은 코로나19 이후의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교육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염려하고 있었다.

1) 코로나19 이후 생활 실태에 대한 인식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들의 응답 내용을 살펴볼 때, 코로나19 이후 학교나 가정 생활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학교에 안 가니까 좋다는 반응이 더 많이 나타났다. 아마도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은 좋으나 수업 시간에 한국어 소통의 부재로 인해 흥미를 잃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는 매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가지 않았던 경우라도 대부분은 주말에는 가족과 지냈고,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놀기도 하였다.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등교가 시작된 후 학교에 가게 되어 너무 좋다는 반응도 있었다.
-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 기기 활용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온라인 기기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의 도움은 전혀 받지 못한다고 답하는 학생이 대부분이었다.
- 특히 교과 중, 국어, 사회, 역사, 도덕이 어렵다고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학 수업

을 할 때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 답을 확인할 수 없어서 답답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집에 혼자 있게 될 경우, 대부분의 학생이 집에 혼자 있으면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던지,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던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친구와 논다고 하였다. 집에서 핸드폰으로 음악을 듣던지 채팅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고도 하였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고 하였으나, 학교에 가지 못해서 친구를 만날 수 없는 것과 집에만 있어야 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였다.

■ ‘코로나19’로 인해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집에서 혼자 지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고학년의 경우 가끔 친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영화도 보면서 친구와의 정을 쌓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친구를 만나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한국어를 많이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중도입국 학생의 코로나19 이후의 생활 실태와 돌봄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의 학부모들은 ‘코로나19’ 이후 자녀의 돌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녀가 학교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걱정을 호소하였다. 특히 온라인 학습기기 사용 능력이나 언어소통 문제 등 온라인학습과 관련해서 걱정이 많았다고 하였다.

■ 자녀가 혼자서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 집중을 잘하고 있는지 믿을 수 없어서 불안해 하였으며, 한국어를 몰라 도움을 줄 수가 없어서 안타깝다고 했다. 학교에서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매우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모두, 학교나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자녀를 위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고는 있으나,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만족스럽지는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기도 하지만 돌봄 시간이 짧아서 만족도는 떨어진다고 하였다.

- 자녀와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체류 자격 별로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하고 있다.
- 자녀를 잘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대부분 집과 돈과 같은 경제적인 내용을 들고 있다.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주거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불편하지만, 집세가 비싸서 옮기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 학부모 스스로도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한국어 소통을 들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며 살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국어지만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여 경제활동을 하느라 한국어 배울 시간을 낼 수가 없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3) 중도입국 학생들의 ‘코로나19’ 이후 생활 실태에 대한 교사와 기관 종사자들의 인식

한편, 학교 교사나 기관의 담당자들은 ‘코로나19’ 이전 프로그램과 ‘코로나19’ 이후 학교나 혹은 기관에서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는 큰 변화는 없다고 하고 있다.

- ‘코로나19’ 이후에 수업 등 학교생활에서 특별히 변화된 것이라면 항상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야 하는 점을 꼽았다. 중도입국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과는 다르게 한국어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발음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을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덧붙였다.
- 학년 급으로 보면 고학년의 한국어교육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고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언어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에 더하여 교실이나 급식실에서 가림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다 보니 사회성도 많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었다.
- ‘코로나19’ 확산 이후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중도입국 학생들에게는 초기환경을 구축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한국어도 제대로 안 되는 아이들에게 전면적인 원격수업은 아무 의미도 없는 시간 낭비일 뿐이고 외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등교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는 말을 덧붙였다.

- ‘코로나19’ 이후 수업의 형태를 살펴보면 초반에는 EBS로 수업을 진행하고, 11월부터는 줌을 이용해서 화상 수업을 진행하였으나, 2021년에는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 ‘코로나19’로 2020년에는 한국어 수업도 온라인으로 하여 과제와 국립국어원 영상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도하는 과정에서 연습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기기 다루는 법부터 언어소통에 이르기까지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가능한 한국어 수업은 면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면 수업이 확대되면서 2학기부터는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코로나19’ 초반부터 면대면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 방과 후 돌봄도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는 대부분 등교를 한 상태이고, 중도입국 학생들에 대한 돌봄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크게 변화가 없고, 이와 함께 불안해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다.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돌봄 정책에 대한 요구

돌봄과 관련된 정책적 요구로서 학생과 학부모는 모두 한국어교육을 들고 있다. 한국어는 일상생활의 어느 상황에서도 가장 필요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정책적 요구에서 가장 우선이 되고 있다. 아울러 학부모는 자녀의 학습지원과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까지 요구하고 있었다. 교사와 기관 종사자의 요구는 훨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들로 제시되고 있다. 즉, 이중언어강사의 도입, 한국어교육 기간 확보, 예산, 심리상담 제공, 지역 주민들의 인식 변화 등이다.

1) 중도입국 학생들의 돌봄 정책에 대한 요구

전반적으로 중도입국 학생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의 각 대상별 요구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모든 응답자 중도입국 학생들은 자신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한국어교육이라고 하

고 있다. 한국어교육은 자신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1차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보고 있다.

- 이들은 장래 희망을 다양하게 밝히고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여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 한국어교육과 함께 가족과 친구가 있으면 한국 생활이 안정적일 것이라는 답을 했다. 특별히 부모에게 바라는 것은 없고, 부모와 함께하는 한국 생활에는 비교적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중도입국 학생들의 돌봄 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 학부모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 학부모들이 학교나 사회에 요구하는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경제적 지원과 학습 지원을 꼽았다. 부모 스스로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녀의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학원도 다니지 못하는 상황을 가장 힘들어했다.
- 그러나 학부모들도 전반적으로 한국 생활을 만족해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자녀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노력하여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이며, 자녀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3) 중도입국 학생의 돌봄 정책에 대한 교사와 기관 종사자들의 요구

한편, 교사와 돌봄 담당자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교사들은 전일제 이중언어 강사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학교는 이중언어 강사가 일주일에 두 번 출근하여 담당 교사가 원하는 전달사항과 의문 사항을 중간에서 통역해 주고, 학부모 또는 학생과 직·간접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안내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이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어서 매우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도입국 학생이 오면 바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쳐주는 데 학생들에게 효과가

높다고 하였다. 적응 기간으로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그 기간만 잘 견디고 노력하면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수준이 다르고 학습자들 변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적잖은 차이를 보이는 면도 있지만, 학생들의 참여율도 순조로운 편이고, 나이가 어릴수록 적응의 정도가 빠르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을 문제점으로 밝혔다.

■ 중도입국 학생 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 통역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통역사가 중간에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면 중도입국 학생들이 학교생활 적응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중언어 강사의 개입으로 학생들의 학습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도 하였다.

■ 또한, 중도입국 학생의 부모가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들의 사고가 개선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 중도입국 학생을 돌보는 학교 선생님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가 공통으로 꼽은 개선점은 체계적이면서도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한국어교육이다. 한국어교육이야말로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한국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한국사회의 일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일이라고 보았다.

■ 이와 함께 이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함께 하는 심리·정서적 상담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낯선 환경에 속해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심리상담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전했다. 학교에 적응 못 하여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상담사가 상주해 있으면 좋겠다는 반응도 보였다. 부모님들도 직장 일에 쫓기다 보니 관심도 없고, 연락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학생들을 위하여 상담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 선생님이나 지역아동센터 교사 모두 비록 이들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의 동포임이 확실한데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름만으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행동은 옳지 않다고 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들을 지역주민으로 인정해 주고 그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인식개선과 함께 제도적 보안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토로했다.

■ 중도입국 학생 돌봄의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요건이 개선되기 위해서

는 행정적으로 지자체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2. 결과 분석을 통해 나타난 쟁점별 논의

가. 중도입국 학생으로서 재외동포, 고려인의 대상 특수성에 대한 고려

다문화학생의 유형 중 중도입국 학생을 별도로 구분하여 이들을 위한 차별적인 교육 정책, 즉, 학습, 상담, 진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수행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이 가진 대상으로서의 특수성 때문이다. 현재 중도입국 학생은 주로 국제결혼한 다문화가정에서 국내출생 자녀 외로 입양 형태로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국제결혼한 어머니의 본국에서의 자녀가 대부분인데, 이들이 한국으로 중도입국할 수 있는 조건은 재혼한 어머니의 한국인 남편(새아버지)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 들어오게 되는 경우이다. 교육부나 법무부에서의 중도입국 학생 증가 추이 등의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중도입국 학생의 수는 주로 이 경우로 산정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 취업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게 되면서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도 함께 입국하게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들 자녀는 입국의 시점으로 보면 중도입국의 상태이나 앞에서 서술한 국제결혼가정의 중도입국 학생으로 명확히 포함되지 못하게 되면서 여러 정책이나 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 서비스의 대상에서도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가정은 당연히 국적이 다르고 기본적으로 타인종, 타민족으로서 우리와는 ‘다르다’는 인식이 우세하여 자연스럽게 ‘외국인’의 범주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이 구분에서 예외적인 경우가 바로 ‘재외동포’이다. 이들 중에는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상호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갖게 되는 집단이다. 2019년 기준 해외로 이민하여 살고 있는 재외동포는 모두 7,493,587명이다(외교부, 2021). 이는 2019년 대한민국 인구수인 5,100만 명의 약 14%에 해당하는 수이므로 결코 적은 수라고 할 수 없다.

재외동포라는 말의 정의는 ‘재외동포재단법’(2020. 11. 27. 시행) 제2조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20.2.4.) 시행) 제 2조에 정의되어 있다⁶⁾. 이 정의에 해당 되는 집단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와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재외동포가 있다.

‘고려인’은 1800년대 가난을 피해 청나라 동북 지방, 즉 만주로 이주하였던 ‘조선족’과 달리 1890년 이후 일제의 압력을 피해 연해주로 이주한 독립운동가와 상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다. 1900년도에는 수가 급증하여 연해주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기에 이르렀고, 고려인 마을과 고려인 농장까지 있을 정도로 부유한 편이었다고 한다. 고려인 마을은 군대의 보충을 비롯한 민족주의자들의 근거지가 되었으나 독립운동을 하는 것을 두려워한 스탈린에 의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 이주되었고 수십 년간 한국어를 금지시킨 결과, 그다음 세대는 한국어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려인의 정체성을 쉽게 특정하기는 어렵다. 외관상으론 한국인과 흡사하지만, 사고방식은 일반적인 러시아인에 가깝고 현재 대부분의 고려인 4세, 5세 등은 한민족이라는 정체성만 가지고 있고 한국을 ‘할아버지의 나라’ 정도로 여기고 있을 뿐 그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현대 젊은 층의 경우는 러시아에 완전히 동화되어 모국어가 러시아어고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민족이 한국인(고려인)이라는 자각은 하고 있다(위키피디아).

이 같은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고려인에 대해 갖는 한국인의 정서는 다른 재외동포에 비해 비교적 친화적이다. 최근에는 한국으로 일하러 오거나 유학 오는 고려인 케이스도 많아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 수가 증가하고 있다. 가족 단위로 함께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자녀가 다문화학생으로서의 외국인 가정 자녀이며, 실제로는 중도입국 학생의 면모를 띠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단지 외국인 가정의 자녀로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소외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외모

6) 재외동포는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에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 2)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 생활하는 사람
- 3)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에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함)
- 4)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 동포라 함)



가 보통의 한국 사람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외적 동질성으로 인해 외국인이라는 인식이 덜 하다 보니 적극적인 정책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나 판단도 부족하다.

그렇다면 다문화 학생을 위한 여러 교육 정책이나 자녀 양육이나 돌봄을 위한 여러 사회적 지원에서도 이들을 보다 적극적이고 표면적인 정책대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다문화 관련 정책에서 이들은 외국인이면서도 한민족의 동질성을 갖는 특별하고도 차별적인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들의 문화적 정체성에서 ‘한국인’을 강요할 수는 없고 그러할 필요도 없겠으나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가기 위한 역량을 길러 주는 것이야말로 한국 사회가 이들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의미있는 관심과 지원이 될 것이다.

특히 충남은 이들이 집단을 형성하여 사는 지역이 많고 이들의 수는 전국에서도 우위를 차지한다. 따라서 충남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이들을 정책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자녀가 교육과 돌봄에서 안정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대한 타당성과 책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나. 교육과 돌봄을 통합한 프로그램과 정책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들의 돌봄과 교육에서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이들은 돌봄과 교육에서 더욱 ‘취약계층’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들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들은 학교가 끝난 후에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아 돌봄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 이들은 지역의 돌봄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영유아의 경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내기에도 비용이 발생하여 접근이 쉽지 않았다. 게다가 교육 장면에서도 한국어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아동이나 청소년 학생들은 학업을 따라가기가 어렵고,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전개되면서 많은 교사나 교육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교육격차’에서의 제 일선에 서게 되었다. 실제로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들과 학부모는 코로나19로 인해 돌봄과 교육에서의 문제가 더 어려워졌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요인으로서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한국어의 부족

을 듣고 있다. 자녀들은 한국어를 더 빨리 잘 하고 싶다는 욕망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이들 학생들은 학교에서 한국어교육을 받고 있으나, 수업 중 한국어 수업을 받기 위해 정규 수업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정규 수업에서의 학업 내용 습득 자체 뿐 아니라 수업 중 다른 한국인 학생과의 교류가 단절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국어 능력이 빠른 시간내에 습득된다면 이러한 어려움은 오랜 시간 지나지 않아 해소될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한국어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못하고 한 반당 한국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많다 보니 수준별 혹은 맞춤형 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들은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중도입국 학생들과는 달리 가정에서는 가족끼리 본국 모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어가 쉽게 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이들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돌봄과 교육은 별개의 장면이나 활동으로 접근하기보다 돌봄과 교육이 통합된 형태로의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돌봄과 교육의 통합이라는 개념은 ‘방과 후 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서비스에서 그 의미를 엿볼 수 있다. 교육부는 2016년도부터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과 ‘돌봄교실’을 연계하여 방과후 학교를 가지 않는 시간이나 요일에 별도로 마련된 학교 내 교실에서 숙제 및 독서 등의 개인 자율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물론 학생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교사가 관리하고 있다.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은 취지는 달리 시작되었지만, 결국 이것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는 형태이다.

‘방과 후 학교’란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과 같은 비교과 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는 학교 프로그램이다. 교과 수업이 모두 끝난 뒤에 이루어지므로 ‘방과 후 학교’(after school program) 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방과 후 학교는 2006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기본 취지는 ‘학력 향상’과 ‘사교육비 절감’에 있다. 즉, 교과를 심화,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거나, 또는 특기 적성 영역 등에서 수요자 즉 학생과 학부모가 요구하는 맞춤형 강좌를 개설하여 외부 사설 학원 등에 가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내용을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시작된 것이다. 학교에 중도입국 학생이 많은 경우에는 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한국어교실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한편, 돌봄교실은 방과 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별도로 마련한 교실에서 학생들을 안전하게 돌보도록 한 것이다. 주로 저학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만이 아니라 보육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무래도 돌봄은 저학년일수록 더 필요하기 때문에 돌봄교실은 1-2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다. 물론 1-2학년의 아동을 모두 수용하고도 추가 수용인원이 있다면 3학년 아이도 우선순위에 따라 수용가능하기도 하며, 시설을 늘려 원하는 아이는 거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도 있다. 돌봄교실은 크게 아침돌봄(오전 6시반~9시), 오후돌봄(방과후~6시), 저녁돌봄(6시~10시), 방과 후 연계형 돌봄교실로 여러 유형이 있다. 이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오후 돌봄이며, 부모님이나 정해진 보호자, 양육자가 데리러 오시는 대로 아이는 귀가하게 된다. 학부모님들의 수요에 따라 방학이나 휴업일 중에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수요에 따라 토요 돌봄(오전 8시~오후 1시)에 개설하는 학교도 있다.

그런데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으로 돌봄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학교의 돌봄교실 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등장하였다. 우선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지역의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여가부에서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기도 한다. 또 지자체마다 지역사회복지관이나 따로 돌봄센터를 운영해서 초등돌봄교실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도 돌봄교실을 따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볼 때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돌봄 서비스는 ‘방과 후 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의 개념과 유사하게 교육과 돌봄을 통합한 형태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학교 수업을 마친 후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성격을 띠되 일반적인 교과 학습이나 특기 적성과 같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보다 한국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어 교실’을 마련하고 돌봄교실이 저학년을 중심으로 한 것이라면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돌봄 서비스는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단순히 아이들을 그냥 안전하게 그 공간에 있도록 놔두고 돌보아 주는 것에서 학생들이 돌봄의 대상이자 주체가 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주도록 하는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즉, KSL 교육과정을 준용하되, 주어진 한국어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들이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내용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자료를 개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한국어 학습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돌봄

이 통합된 특화된 프로그램으로서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다. 한국어교육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방안

한국어교육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때는 여러 조건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은 현재도 여러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나 우선 이들은 다른 중도입국 학생에 비해 한국어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 자체가 다르다. 즉, 학교에서 한국어 학습을 했다 하더라도 가정에 돌아가면 곧 그들의 모국어로 생활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한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적다.

또 다른 문제는 학교에서 한국어 교실에 참여하는 방식에서의 문제이다. 학교의 정규 수업에서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은 별도로 한국어 수업 시간에 모여 한국어 수업을 받고 다시 반으로 돌아가 다른 한국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다. 물론 한국어 특별학급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이 다수 집중되어 있는 학교에만 해당될 뿐, 일반 학교에서는 별도의 특별학급이 아니라 정규 수업 시간 중 별도로 한국어 수업 시간을 배정하여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주일에 한국어 수업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방식으로는 언어소통이 가능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해진다. 이처럼 한국어 수업을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들은 한국어에 대해 흥미를 잃게 될 것이며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의 수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한국어 수업은 한국어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국어 실력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실제 면담을 한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들은 입국 후 2-3년이 지났음에도 언어사용에서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에 대한 한국어교육 시간이 짧을 뿐 아니라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분기별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방학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수업을 쉬기 때문에 한국어를 익힐 만 하면 쉬게 되는 상황이 반복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어 강사의 근무 조건도 또 하나의 원인이 된다. 현재 한 사람의 한국어 강사는 일주일에 14시간 이상 수업을 할 수 없게 되므로 한국어 강사 한 사람이 다수의 학



생을 지도하다 보면 한 아이가 교육받을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1~2시간에 불과할 정도로 절대 시간이 적다. 또한, 학생 수가 많아지면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보다 한국어 강사가 수업할 때 한 반에 학생 수가 많아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특히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학교 교사나 기관의 돌봄 담당자들은 이중언어 강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한국어 학습을 위해 통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배우고자 하는 그 언어 외의 다른 언어는 배제하고 온전히 그 언어만의 환경에만 놓이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모국어로의 통역을 겸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는 아직까지 특별히 검증된 바는 없다. 초기에는 통역이 필요하고 중요할 수 있겠으나,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통역이 있는 것과 아닌 것 어느 쪽이 더 빠르고 효과적인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면담 내용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이중언어 강사의 활용을 확장한다면 이중언어 강사의 자격이나 조건까지도 검증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학교에서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들을 위한 통역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중언어 강사는 러시아어를 전공한 한국인이나 국제결혼한 러시아 출신 이주 배경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진 후 학교에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어를 전공한 한국인은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말하지 못하여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사전을 찾아서 보여주거나 단어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이는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 당사자가 한국어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한 국제결혼한 사람이 이중언어 강사의 자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들의 한국어 능력도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다면 통역 과정에서 한국어의 발음이나 뜻에 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문제를 고려할 때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교육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함을 논의할 수 있다. 우선 현재 학교 정규 수업 시간 중의 일부를 한국어 수업으로 대체하면서 정규 수업을 대신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당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수업 결손이 계속 누적될 뿐 아니라 수업에서의 친구들과의 교류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한국어 교실 운영 방식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돌봄과 동시에 한국어 수업을 더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과후 학교 수업 형태라면 매일 2시간 이상씩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한국어교육이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이루어질 수 있다. 요는 한국어교육 시간을 어떠한 방식이든 늘려서 짧은 기간 내 집중적 교육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중언어 강사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국제결혼한 사람이든, 한국으로 유학 온 한국어교육 전공 학생이라 하더라도 이중언어 강사의 역할을 하려면 TOPIK 4급 이상의 실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TOPIK 4급 이상자를 대상으로 이중언어 강사에 대한 전문교육과 보수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이 한국어 교실을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생 멘토링활동과 연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대학생 멘토와 함께 다양한 대화를 나누며 교과 학습에 대한 지도, 정서적 유대까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한국어 습득은 시너지 효과를 통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으로 한국어교육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할 수 있다.

라. 코로나 이후의 교육격차, 정보격차의 문제

면담을 통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들은 부모님이 모두 일을 하고 있으며 야근으로 저녁 늦게 집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부모들은 일 때문에 혹은 한국어의 부족으로 자녀의 학교 교육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한국의 초등학교 시스템이나 교육문화에도 익숙하지 않을뿐더러 한국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의 학습이나 학교 공부를 직접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 학부모들은 자녀가 본국에서 공부도 잘하고 잘 지냈다고 하고 있어 자녀에 대한 사랑이나 자부심은 크나, 실제 한국에서의 교육에는 직접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 자신의 한국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른 한국 학부모들과의 교류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논산 등의 지역은 주로 고려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므로 그들끼리만 서로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이나 학교생활과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프라나 네트워크가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한국에서의 교육비가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뜻 학원이나 다른 공부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돈은 본국과 환율 차이가 많기 때문에 아이에게 몇십만 원을 들여 학원에 보내거나 다른 교육을 시키기에 망설임이 있는 것이다. 다만 1주일에 한두 번씩 이루어지는 학습지 교육은 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으로라도 아이가 많이 향상되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을 크게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습지도 자녀가 한국어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어진 경우에 가능하고 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습력을 키우는데 사실 많은 도움은 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걱정하고 있는 만큼 이들은 한국교육에서의 교육격차에서 일선에 서게 되었다.

한편, 이들이 겪는 정보격차의 문제도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도로 발달한 시대에 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의 수준이 사회적 경제적 격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정보격차라고 한다. 기술발전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을 빨리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경제적 불평등과 계층 분화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인터넷과 같은 가상공간에 접근할 수 있게 하여 누구든 그 안에서 자신의 삶에 필요하고 관심 있는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넷의 출현은 정보에 대한 접근만이 아니라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단지 정보를 얻고 수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보 생산자로서 활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오늘날 우리는 정보 접근의 보편성, 개방성, 평등성 속에서 그 필요조건을 충족하면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이 사회적, 경제적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정보격차라는 사회적 불평등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인터넷은 세계나 타인과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러한 방식에서 배제되어 정보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또 다른 경제 불평등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은 발달하였으나 그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정보 불평등이 발생하여 오히려 정보통신기술이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도구이자 장이 되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들은 학교가 끝난 후에

집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았고 혼자 있는 경우도 많았다. 집에서는 주로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경우 인터넷 게임중독 상황까지 올 수 있게 된다.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인터넷에 접근한다 하더라도 그 활용의 수준으로 인해 정보격차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정보통신 기기가 갖추어지지 못하였거나 접속 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을 경우, 정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할 경우, 정보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질 경우 등에는 정보에 접근조차 어려울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여가부, 법무부, 교육부 등 정부 부처에서도 다문화가정이나 다문화학생을 위한 정보화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 이들은 그 자체에 대한 정보의 부족과 이로 인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우선 정보격차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이들의 요구나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보전달 및 지원관리체계가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외국인, 재외동포 등은 정보전달 및 지원관리체계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결혼이주자들은 결혼하여 그 지역에 들어오는 동시에 지역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이들에 대한 정보를 갖고 교육, 관리, 지원하는 시스템에 들어오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들은 그 같은 중간 전달체계가 없다. 고려인, 외국인의 거소 신고는 지역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는 이들을 관리, 지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없다고 하겠다.

이같이 교육격차나 정보격차는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의 삶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격차나 정보격차가 경제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메카니즘이 된다고 할 때, 이들의 교육격차나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3. 충남 중도입국 학생 돌봄 정책의 방향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요약과 논의를 통하여 충남의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돌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된 방향을 토대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현된다면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가. 충남의 다문화학생 유형의 특징에 따른 맞춤형 교육정책 전개

첫째, 충남의 다문화학생 유형의 특징에 따른 맞춤형 교육 정책을 전개한다.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 정책은 다문화학생의 한국 사회에서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나, 다문화학생의 유형을 기본으로 생활 실태와 교육적 요구에 따라 차별성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교육은 국내출생 다문화학생보다는 중도입국 학생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필요한 교육 내용이다. 또한, 청소년기의 다문화학생에게는 진로 교육을 포함한 정서 심리상담 등의 정책이 더 요구되고 있다.

충남에는 다문화학생 유형 중 특히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출신의 외국인 가정 자녀이면서 외모로는 우리와 큰 차이 없는 학생들, 즉,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표 2-13> 참조). 이들은 재외동포로서 한민족이라는 동질적 정서를 갖고 있으며, 가족 단위로 지역 내에서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고려인’ 집단은 한민족의 해외 이주의 역사로 인해 발생되었다. 한반도 밖으로 한민족이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일이다. 당시 흉년과 가뭄으로 곤궁에 빠진 조선의 농민들이 비옥한 간도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만주에 이어 러시아 영토였던 연해주 지역도 한인들의 이주 대상지가 되었다.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하였던 한인들은 이후 러시아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하게 되었다⁷⁾. 이들이 근 100여년 후 현재 3세대, 4세대가 되어 한국 사회로 다시 이주해 온 것이며, 특히 충남 지역에 많은 고려인들 가족이 자리 잡고 거주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충남의 다문화정책은 이러한 유형적 특징을 적극 고려하여 고려인 중도

7) 기근을 피해 간도로 이주하던 하인들은 1870년 전후 연해주로도 이주하기 시작하였으며, 일제 강점기에는 신한촌이라는 한인 집거 지역을 형성할 정도로 성장했다. 연해주의 한인 공동체는 1917년 무렵 8만 1,825까지 성장했는데, 이는 전체 연해주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연해주로의 이주는 이후 중앙아시아로의 강제 이주로 이어졌는데 소비에트 혁명 이후 소련 정부는 1937년 8월 21일 극동 지역의 한인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집단 이주시키기로 결정했다. 명분은 극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일본인 정보원들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그 추진 과정은 잔혹하기 이를 데 없었다. 한인 지도자들의 상당수가 처형당했고 한인들은 일주일 내로 짐을 싸야 했다.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까지 이주하는 장거리 이동 중에 어린이의 60%가 사망할 정도로 처참한 이주였다. 이들이 고난 속에 성장시킨 것이 중앙아시아 국가의 고려인 공동체인 것이다(구도완 외, 2021).

입국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이 충남 다문화정책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집단 인식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나. 공교육 진입 단계에서부터 한국어교육을 우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둘째,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정책은 한국어교육을 우선으로 하여 공교육 진입 단계부터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중도입국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서 원활하게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적 요소가 한국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한국 사회를 경험한 적이 없거나 그 기간이 짧은 학생들은 기본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미숙하여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교과 학습을 하는데도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는 곧 학업능력 저하, 자신감 결여, 정서적 불안, 사회에 대한 불만과 소외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도입국 학생들은 공교육에 진입하게 되는 초기부터 그 시기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충분히 한국어교육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어교육은 한국어가 주류 언어인 한국에서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일정 수준에 이르게 하기 위한 일체의 교육 행위를 말한다.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의 대표적인 예가 중도입국 학생이다.

중도입국 학생들에게 한국어교육은 일상적 의사소통만이 아니라 학습을 위한 도구가 된다는 점에서 외국인 성인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과 차이가 있다. 일반 외국인 성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은 주로 일상생활 속에서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초점을 맞추지만, 학령기 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은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을 해 나가는데 기초가 되는 학습 도구로서의 한국어 능력과 각 교과 학습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까지도 함께 길러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교육부, 2017). 이들에게 한국어는 의사소통, 학습 수행, 성장과 발달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삶에서 일종의 디딤돌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충남의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교육 정책에는 한국어교육을 가장 우선적이고 기본 과제로 하되, 그 시기와 비중까지 고려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함으로써 실효성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 교육과 돌봄을 통합한 형태와 내용으로 전개

셋째,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정책은 교육과 돌봄을 통합한 형태와 내용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중도입국 학생이 많은 학교의 경우 별도의 특별학급을 설치하고 별도의 교사 인력을 배정받아 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학교에서는 정규 수업 시간에 따로 한국어 수업을 받도록 하고 있거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중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 교실을 담당하는 인력은 한국어 교사이다. 한 학교에 투입되는 한국어 교사 수와 근무 조건을 고려할 때 중도입국 학생이 정규 수업 시간 중 개별 한국어 수업을 받는 경우는 주당 시간이 1-2시간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있어 그 효과가 매우 미흡하고, 방과후 학교 형태로 운영할 때는 한 반당 지도해야 하는 인원이 많아지는 등 실제 운영의 어려움이 존재하여 이 역시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정책에서 한국어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이 한국어 수업은 기본적으로 ‘방과 후 돌봄교실’과 같은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 3회 이상의 ‘방과 후 교실’에서의 집중된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방과 후 시간을 학교나 기관에서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교육과 돌봄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시간적으로 돌봄을 제공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내용적인 통합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방과 후 돌봄교실’에서는 학생들이 돌봄 시간에 과제를 한다던가 때로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이와는 다른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한국어교육을 중심으로 하면서 돌봄의 형식과 내용을 충족시키는 별도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정책(프로그램)은 한국어교육을 중심으로 하면서 방과 후 학교의 형태로서 교육과 돌봄의 통합이라는 의미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전개하여야 한다.

라. 자립적 생활력 향상을 위한 생활역량 교육의 강조

넷째,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정책은 한국 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힘을 기르기 위한 생활역량 교육을 강조하여 전개한다.

교육과 돌봄을 통합한다는 의미가 한국어교육을 하면서 시간적 돌봄을 동시에 해결한다는 것 그 이상의 것이 되려면 한국어교육에서 다루는 콘텐츠의 내용과 접근 방법에서도 차별성을 찾아보아야 한다.

현재 한국어교육은 한국어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2017-131호)에 의거하여 그 성격과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을 운용하고 있다. 내용 체계는 생활 한국어와 학습 한국어로 구분하고 초·중·고급의 숙달도에 따라 주제와 장면, 과제와 기능, 언어 단위, 어휘, 언어조정 능력, 문화조정 능력으로 구성된 범주에 따라 교육을 계획하고 수행하고 있다. 특히 언어의 재료로서 주제, 의사소통 기능, 어휘, 문법, 텍스트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이 돌봄과 통합될 수 있는 접근은 한국어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과정의 구성이나 운영의 틀을 준수하되 중도입국 학생 대상의 특징에 맞추어 재구성, 재조직함으로써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고 교육과 돌봄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이루어진다면 비로소 통합의 의미를 찾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어교육에서 다루는 콘텐츠의 내용과 접근을 중도입국 학생들의 '생활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재구성, 재조직하여 제시하고 운영하는 것은 의미 있는 접근이 된다. 한국어교육 내용에 돌봄의 콘텐츠를 포함하여 자립적 생활 능력의 확대까지 의도하는 것이다. 자립적 생활 능력 향상이라는 돌봄의 콘텐츠는 아동이 성인의 돌봄 없이 혼자서 의식주의 생활을 자립적으로 수행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돌봄의 과정에서 돌봄의 의미를 알고 현재와 미래의 삶에서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생활역량을 키워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가족과 서로 배려하는 것, 시간 관리의 의미와 방법, 용돈 관리, 주변 정리 정돈, 올바른 식사, 때와 장소에 맞게 옷을 입는 것 등의 내용을 한국어교육의 콘텐츠로 계획하여 각 주제별로 어휘, 문법, 텍스트 유형, 문화에 이르기까지 주제에 따른 일관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어 능력의 향상뿐 아니라 자신

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자립적 생활 능력을 길러 주고자 하는 것이다.

중도입국 학생에게 자립적 생활 능력을 길러 주고자 하는 것은 이들이 돌봄의 필요한 시급한 대상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립적 생활 능력이야말로 학교나 가정교육을 통해서 아동기 학생들에게 길러 주어야 할 보편적 역량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는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진행되고 있다. 다만 중도입국 학생들이 한국어의 미흡함으로 그 교육의 기회나 효과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가정에서의 교육도 불리한 상황에 있을 것으로 미루어 한국어교육 안에서 생활역량 강화 교육을 함께 의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의 정보 소양 교육 포함

다섯째,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정책에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정보 소양 교육을 포함한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동들은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통해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수업을 해결해 나갔지만, 반대급부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어 수업 외에 인터넷으로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연구에 의하면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들은 집에서 혼자 있을 때 TV를 보거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한다고 했는데,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는 주로 인터넷을 이용한 게임, SNS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있다. 이 문제는 학부모들도 인지하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TV, 게임과 SNS 자체를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것보다 TV나 게임, SNS를 과도하게 사용할 때 그 불균형에서 오는 중독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는 아동들의 학습, 지원, 놀이를 유지하는 데 중심이 되었지만, 이는 또한 사이버 폭력, 위험한 온라인 행동, 디지털 성 착취에 대한 노출도 증가시키고 있다. 아동들이 가정, 친구, 학교, 사회가 제공하는 안전한 공간과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게 될 때 그 상황은 더 악화된다. 위기는 취약한 고리를 훨씬 더 파고들기 때문에 난민, 이주민, 가정 외 보호아동, 길거리와 도시 빈민가에서 사는 아동 등 가장 취약한 아동들이 특히 위험에 처해 있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정익중, 2020b).

지식 정보의 소유가 사회경제적 자원이 되는 정보화시대에는 돌봄의 취약성 여부

에 따라 아동의 미디어 사용의 양과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 격차는 어른이 된 후 사회적 지위 격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돌봄이 부족한 가정의 자녀에게 올바른 미디어 활용방안을 위한 지도가 더욱 필요해 지고 있는 것이다. 일상을 조율해 주는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아동의 놀이는 대부분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한 대인관계에 더 집착할 수 있으므로 아동이 친구들과 온 오프라인에서 건강한 소통과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콘텐츠 개발과 함께 정보 소양 교육이 필요하다.

정보 소양이란 다양한 미디어에서 나오는 정보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다. 즉, TV, 컴퓨터 등 여러 매체에서 전달되는 정보를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활용하거나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적절히 다루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포함한다. 정보격차라는 것이 정보의 활용 수준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볼 때 중도입국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발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예방 차원에서도 올바르게 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 소양을 기르는 교육이 바로 정보 소양 교육(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다. 정보 소양 교육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게임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스스로가 강한 내적 규제의 수단과 통제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중도입국 학생들을 위한 정보 소양 교육은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역량, 교육 환경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비해서 실행력이 부족한 영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도입국 학생들의 돌봄 실태에서 처한 여건과 실재를 고려할 때 이들을 위한 정보 소양 교육은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부분이다.

따라서 충남의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정책의 방향으로서 정보 소양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는 설득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다만 방법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숙고가 필요할 것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안에 일부라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보 활용 능력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생활역량이 되므로 생활역량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포함하여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V 충남 중도입국학생 돌봄 프로그램 모델 개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충남 중도입국
자녀 돌봄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이 연구에서 얻는 연구 결과와 이를 토대로 추출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논의, 그리고 이를 근거로 충남의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돌봄 정책에서의 방향을 모색하여 보았다. 돌봄 정책의 방향을 총체적으로 고려한다면 실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해 보는 실험도 가능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충남의 중도입국 학생 돌봄 프로그램으로서 하나의 모델을 개발하여 그 계획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프로그램 명 : **나는 나의 매니저**

1. 프로그램 제목의 의미

자기 삶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므로 자신의 삶을 관리하는 주체도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자신의 성장과 발달에 스스로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의미이다. 궁극적

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생활역량을 기를 수 있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 프로그램 개발의 취지

충남에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가정 중, 특히 고려인 재외동포 자녀의 돌봄과 교육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들이 처해 있는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들여다보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충남은 상대적으로 다문화가정 학생 중 중도입국이나 외국인 자녀 학생 수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외국인 자녀의 수는 더 두드러진다. 충남의 외국인 자녀는 많은 부분 재외동포로서 우리가 흔히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한민족의 후예들이 많다. 이들은 주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출신이다.

충남의 아산과 당진은 특히 이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 그 수가 더욱 많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들의 삶의 문제는 도의 정책적 측면에서도 시급히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이다. 이들은 한민족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정서적 동질감을 갖고 있고 외모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가족 집단의 이주로 인해 그들끼리는 특히 가정에서는 본국의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한국어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실력이 빠르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학교 현장에서는 한국어 강사의 근무 조건 등으로 인해 이들에게 제공되는 한국어 수업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이들의 부모는 대부분 모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과 후 이들은 혼자 집에 있게 되면서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고, 2020년부터 이어지는 코로나 사태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이들은 우리 사회구성원 중 돌봄과 교육에서 더욱 더 취약한 집단이 되고 있다.

이들에게 한국어는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수단일 뿐 아니라, 학습과 사회성, 정서적 측면에서도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시급히 요구되는 조

건이다. 따라서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을 대상으로 돌봄과 교육이 통합된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이들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어교육과 돌봄을 통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한국 사회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역량을 키워주고자 한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사회혁신적 의미를 갖는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사회문제로 본다는 것은 우선 현 상태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며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각 개인의 차원에서 볼 때는 개인적인 문제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유사한 고민이나 문제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더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회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어떠한 새로운 방식이 요구될 때, 그 방식에 새로운 가치를 담아낼 때 ‘혁신’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첫째, 그간 정책대상으로서 특정한 집단 내 차별성을 간과하여 주목받지 못하는 대상, 둘째,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 셋째, 새로운 가치를 담아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사회혁신으로서의 의미를 담아 접근해 보고자 한다.

우선, 고려인 중도입국 자녀는 교육부나 법무부의 다문화학생의 유형 정의에 따르면 한국인 가정의 자녀로 편입된 ‘중도입국 학생’에 속하지 않고 ‘외국인 가정의 학생’이며, 외국 국적의 학생이기 때문에 다문화학생에 대한 정책이나 교육 서비스 대상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른 외국인 가정의 자녀와 달리 ‘고려인’이라는 한민족의 정서적 동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종, 민족적 차별성과는 다른 인식을 갖고 있기도 하다.

중도입국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 서비스는 한국어교육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어교육에 돌봄을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한국어라는 의사소통 수단만을 습득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에 필요한 역량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삶의 역량이란 한국어교육과 더불어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새로운 관점과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가치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국제이주는 노동력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오늘날 한국은 이주민을 수용하는 이주의 목적국이 되

있다. 이주민의 유입은 불과 20여 년 만에 한국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주민의 규모만이 아니라 체류 형태도 더 다양해지고 있다. 이제 한국사회의 구성원은 단일민족에서 다민족으로 변화하게 되어 ‘한국인’에 대한 재인식과 재구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제 한국사회의 문화적 전망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새롭게 재구성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이들에게 멤버쉽을 부여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가치를 담고 있다고 본다.

3. 프로그램의 타당성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그 중요성과 타당성을 찾아볼 수 있다.

가. 대상의 타당성 : 왜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인가

한국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조건이 맞물리면서 외국으로부터 한국사회의 일 자리를 찾는 이주노동자도 증가하고 있다. ‘고려인’ 재외동포의 이주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들은 역사적으로 일제 식민 통치의 압제를 피하거나 민족해방운동을 위해 연해주 지역으로 이민한 후 구소련으로부터 많은 억압을 받았던 우리 선조의 후예로서, 다른 여타 외국인 가정의 경우와 달리 한민족이라는 정서적 동질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이주해 온 ‘고려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특히 자라나는 자녀 세대에게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최소한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우리들의 태도이자 자세라고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충남은 고려인의 이주가 가장 많은 곳이므로 다른 어느 지역보다 선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 내용의 타당성 : 왜 한국어교육인가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의식주로서 이는 일차적으로 음식과 옷과 주

거지라는 물질적 조건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사회화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도구인 언어는 삶에서의 또 다른 필수도구가 된다. 사람들은 언어를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생각과 요구, 감정을 표출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살아간다. 따라서 고려인 중도입국 자녀에게 한국어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며,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 아동의 발달단계에서 한국어란 학습과 의사소통의 도구라는 1차적 의미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사회성을 길러줄 수 있는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되므로 한국어교육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다. 접근 방식의 타당성 : 왜 교육과 돌봄이 통합되어야 하는가

돌봄은 돌봄 제공자가 돌봄이 필요한 대상과 한 공간에 함께 있으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지켜보는 것 이상의 것이다. 아동의 경우 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 주는 것이 돌봄의 기능이다. 돌봄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의 영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회는 최대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들은 대부분 집에서 혼자 있거나 한국인 친구들 간의 교류도 적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돌봄은 일차로 누군가의 보살핌으로 인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또 다른 측면에서는 생활의 역량을 길러주도록 교육적 돌봄의 성격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한국어교육과 함께 통합될 때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으므로 교육과 돌봄을 통합시킬 수 있는 특화된 콘텐츠로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4.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본 프로그램은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과 돌봄을 통합한 교육 내용을 개발하고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자신의 삶을 돌보는 주체로서의 생활역량을 길러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가. 의사소통 도구로서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나. 한국어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학교 및 가정생활에의 적응력을 기를 수 있다.
- 다. 교육의 주제로 다루는 내용을 통해 주체적 삶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볼 수 있도록 생활역량을 기르고자 하는 태도를 갖는다.

5. 프로그램의 내용 선정 및 조직

프로그램 내용 선정과 조직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프로그램의 목표와의 연관성을 갖는다.
- 둘째,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하되 생활역량을 기를 수 있는 생활 속의 주제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 셋째,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2017 한국어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중 언어 재료의 틀을 따라 일관성과 체계를 갖도록 구성, 조직한다.
- 넷째, 한 주제당 4차시 분량의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내용의 적절성을 고려한다.
- 다섯째, 언어 재료의 수준은 초급 2단계 수준을 고려하되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여섯째, 생활역량의 범주는 나와 가족, 식생활, 의생활, 시간 관리, 용돈 관리, 공간관리, 안전, 미디어 교육, 진로 교육으로 한다.

위의 원칙에 따라 구성된 내용은 다음 <표 5-1>과 같다. 내용 체계의 일부를 예시로 제시하며, 상세한 내용의 완성은 별도의 연구로 한다.

개발과정에서 세부 내용은 추후 수정 가능하다.

<표 5-1> 프로그램 내용 체계 예시 (일부)

월	주	요일	차시	주제	어휘	문법	텍스트 유형	문화	언어 기능		
8	1	월	1-2	소중한 나	<예시> 눈 코 입 얼굴, 머 리, 손, 발, 키, 마음...	<예시> -(으)니까 -(으)ㄹ 것 같다.	<예시> 생활문 설명문	<예시> 나의 생일 : 귀빠진 날, 웃는 얼굴에 침뱉으랴 등	말 하 기, 듣기, 읽기, 쓰기		
		화	3-4								
		수	5-6	멘토와 함께							
		목	7-8	다정한 친구	이하	추후	개발	예정			
		금	9-10								
	2	월	1-2	가족 사랑							
		화	3-4								
		수	5-6	멘토와 함께							
		목	7-8	건강한 음식							
		금	9-10								
	3	월	1-2	단정하고 멋 진 옷차림							
		화	3-4								
		수	5-6	멘토와 함께							
		목	7-8	시간 관리							
		금	9-10								
	4	월	1-2	용돈 관리							
		화	3-4								
		수	5-6	멘토와 함께							
		목	7-8	인터넷 바로 사용하기							
		금	9-10								
9	1	월	1-2	미디어 교육							
		화	3-4								
		수	5-6	멘토와 함께							
		목	7-8	안전한 생활							

2	금	9-10					
	월	1-2	내 주변 정 리 정돈하기				
	화	3-4					
	수	5-6	멘토와 함께				
	목	7-8	나의 진로				
	금	9-10					

6. 프로그램의 전개 방법

개발된 프로그램을 어떻게 전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과 이의 평가에 대한 계획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의 전개 방법은 교육 대상자의 규모, 예산의 규모, 교육 인력 공급의 여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 학습자 : 고려인 중도입국 초등학교생 약 40~60명
수준별 구성 (한국어 초급 2단계 수준 기준)
한 반당 3~4명으로 총 8개 반 운영
- 강사 인력 : 1) 한국어 교사 자격자 8명
2) 이중언어 강사 4명
3) 대학생 약간 명
- 학습자 관리 : 학습자의 출결 관리, 학습 진도 계획 및 학습 수행 관리
- 진행 일정 : 약 6주 주 5일 수행, 하루 2시간씩 총 60시간
주 4회, 1회당 2차시 : 한국어 학습
주 1회, 1회당 2차시 : 멘토링 방식의 생활교육의 실제
- 교육 장소 :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의 수가 많은 아산과 당진 지역의 학교나 지역

아동센터 등 기관에서 실시

- 교육 형태 : ‘방과후 돌봄교실’의 방식으로 한국어교육과 돌봄을 통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함.
- 지도 방법 : 1그룹 - 한국어 교사, 이중언어 교사가 팀으로 진행
2그룹 - 한국어 교사 단독으로 진행
교육 수행 전에 강사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프로그램 수행에 대한 안내 및 유의점 숙지
- 매체 및 자료 :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내용 체계에 기반하여 워크북 형태로 자체 제작. (필요에 따라 교사용 매뉴얼 제작)

7. 프로그램의 평가

프로그램의 평가 계획은 다음과 같다.

-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 비교집단을 통해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수행 방식의 효과성 검토
 -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룹과 참여하지 않는 그룹 간의 한국어 능력과 삶의 역량에 대한 태도에는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실시
 - 한국어 강사만 참여하여 교육한 집단과 한국어 강사와 이중언어강사가 함께 참여하여 교육한 집단 간의 한국어 능력과 삶의 역량에 대한 태도는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프로그램 수행 방식의 효과성 평가

- 비교집단 20~30명 :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그룹
 - 실험집단1 20~30명 : 한국어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은 프로그램 참여 그룹
 - 실험집단2 20~30명 : 한국어 교사와 이중언어 강사 팀으로부터 지도를 받은 프로그램 참여 그룹
-
- 표준화된 한국어 수준 검사지를 활용하여 사전검사를 통해 동질성을 확보한 세 그룹 (비교집단과 실험집단1, 2) 간에 프로그램 수행 후 동일한 검사지의 사후검사를 통해 한국어 수준을 평가하고,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등을 통해 프로그램 내용구성이나 운영 방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
-
- 평가 시기 및 방식 : 프로그램을 마친 후 표준화된 검사지로 사후 검사 및 만족도 조사 인터뷰 실시
-
- 평가 결과에 대한 해석 및 활용 방법 :
비교집단과 실험집단 간의 성취도의 차이 유무, 수행 방식에 따른 성취도와 만족도 차이 등의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정교화해 나가며, 개발된 프로그램(자료 포함)은 추후 충남의 중도입국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돌봄이 통합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그 실행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함.

VI

결론

코로나 확산에 따른 충남 중도입국
자녀 돌봄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1. 연구 요약

이 연구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충남의 중도입국 자녀 돌봄의 실태와 요구를 살펴봄으로써 정책적으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를 탐색하여 이를 토대로 실제적 지원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연구이다. 특히 한국에 중도입국하여 생활하고 있는 많은 중도입국 학생들 중 충남에 거주하는 집단적 분포 특성을 고려하여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을 집중적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핵심 키워드는 ‘코로나19’,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자녀)’, ‘돌봄’이다. 충남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재외동포 가족 중 중도입국 학생들은 ‘코로나’라는 일종의 재난 상태를 맞아 ‘돌봄’이라는 일상의 문제가 어떠한 위협을 받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은 이들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과도 연관되는 것이다. 특히 충남은 전국에서 고려인 재외동포의 수가 많은 지역이며,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이들을 위한 정책 구상의 타당성과 현실성을 갖게 된다.

결국 이들의 돌봄 실태를 코로나 상황과 연결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돌봄을 위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그 지원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검토한 후, 설정된 방향에 근거하여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탐색해 보아야 한다. 이 같은 일련의 논리적 절차와 근거에 기반하여 정책이 마련될 때 정책의 실효성은 물론, 정책대상자의 실태 및 요구와 정책 실제 간의 간극이 좁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그 간극을 좁히고자 하는 시도와 노력을 담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전개, 구성하였다.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밝히고 연구 문제를 설정하여 이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한 연구 방법과 분석 틀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연구수행 인력 및 추진 일정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고려인 중도 입국 학생들의 규모나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법무부, 교육부 등의 자료를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충남 체류 외국인 현황, 다문화학생 현황, 충남의 다문화학생 현황을 살펴보았다. 외국인 현황의 연도별 추이, 지역별 분포, 다문화학생 유형별 특징 등에 대한 검토는 상대적으로 충남의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의 현황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다양한 통계자료를 통해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대상 선정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고자 하였다. 또한, 코로나 이후의 가족 및 사회생활의 변화를 다양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인용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아동의 돌봄의 문제에 주목한 다양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코로나 이후의 가족생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수행한 인터뷰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인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 학부모, 그리고 돌봄 종사자(학교, 기관)의 일반적 특성을 밝히고 설정한 4개의 연구 문제에 대하여 각 질문에 응답한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즉, 한국 입국 전 생활 및 입국 배경, 한국 입국 후의 생활, ‘코로나19’ 이후의 생활, 돌봄 정책에 대한 요구에 대해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과 학생의 학부모,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교사와 기관 종사자들별로 세부적 질문에 대한 그들의 응답 내용을 체계화하여 정리,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3장에서 다루었던 각 질문들의 방대한 응답 내용을 연구문제 별로 재구성하여 요약 제시한 후, 연구 결과를 통해 중요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 4개의 쟁점을 도출하여 각각 논의하였다. 그 내용은 중도입국 학생으로서 재외동포인 고려인의 대상 특수성에 대한 고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과 돌봄을 통합한 프로그램과 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 한국어교육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방안, 코로나 이후의 교육격차와 정보격차의 문제이다. 이 쟁점들에 대한 논의는 충남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돌봄 정책의 방향으로 설정될 수 있는 논리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전개하였다. 이

를 기반으로 충남 중도입국 학생 돌봄 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충남의 다문화학생 유형의 특징에 따른 맞춤형 교육정책을 전개하도록 한다. 이 부분은 같은 중도입국 학생이라 하더라도, 같은 외국인 가정 자녀라 하더라도 충남의 정책에는 다른 지역과 차별적으로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과 같은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다 촘촘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공교육 진입 단계에서부터 한국어교육을 우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다. 중도입국 학생들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조건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한국어이다. 따라서 어떠한 교육 서비스나 정책보다도 한국어 교육이 모든 지원에서 가장 일선에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어 습득은 중도입국 후의 적시성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공교육 진입부터 의무적으로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셋째, 돌봄 정책으로는 교육과 돌봄을 통합한 형태와 내용으로 전개한다. 이다. 교육과 돌봄이 각각의 기능을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돌봄 과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육의 목적과 내용에 돌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교육에 돌봄이 포함된다는 의미는 돌봄을 보는 시각을 보다 확대하여 중도입국 학생에게 장기적으로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넷째, 자립적 생활력 향상을 위한 생활역량 교육을 강조한다. 이다. 돌봄의 가치는 아동의 건강이나 안전한 성장 및 발달과도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은 당연히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성장하면서 돌봄은 외부의 성인으로부터 무조건 지속해서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야 한다. 아동이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어 자립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든 아동의 발달과업이다. 따라서 중도입국 학생에게도 자립적 생활력 향상을 위한 생활역량 교육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정보 소양 교육을 포함한다. 이다. 중도입국 학생의 돌봄 문제에서 밝혀진 실태 중 하나가 혼자 집에 있을 때 스마트폰이나 TV와 같은 매체에 그대로 오랜 기간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도입국 학생들에게 정보 활용 및 정보 소양을 길러 줌으로써 발생하는 정보격차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돌봄 정책에는 어떠한 형식이나 내용이든 정보 소양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5장에서는 충남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돌봄 정책의 방향은 앞으로 다양한 돌봄 서비스 및 정책을 디자인할 때 하나의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실제로 이를 고려하여 충남 중도입국 학생 돌봄 프로그램을 하나의 예로 구안하고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충남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생활역량 중심 한국어교육’이라는 부제를 포함하여 ‘나는 나의 매니저’라는 제목으로 프로그램 개발 구성의 체계에 따라 프로그램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를 제시하였다. 특히 프로그램 내용은 한국어 교육 과정에 준하여 생활역량 강화 및 정보 소양 교육을 위한 주제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방법을 안내하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평가 방안도 제시하였다.

2. 결론 및 제언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 사회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미 교육 불평등, 건강 불평등 등을 경험하고 있다. 정보격차 속에서 공교육 이외의 대안이 없던 집단에게 온라인 수업은 교육격차를 더 벌어지게 하고 있으며, 코로나 상황에서도 생계 때문에 나쁜 환경의 일자리라도 받아 들여야 했던 취약계층에게 건강 불평등도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일상 변화와 균열은 더 심각해졌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일상 격차가 코로나 이전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와 같은 재난은 아동의 일상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육과 영양 섭취, 문화와 여가활동, 심리적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아동기의 이러한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일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아동 발달의 위기 요인으로 작용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공교육 공백, 보호자의 돌봄 부재, 돌봄 서비스의 중단 등 돌봄 공백 사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다 보니 아이들의 일상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재난 상황에서 아동의 일상에 대한 관심과 개입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관심과 개입은 중도입국 학생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들은 재외동포로서 국내 입국하여 상호 ‘한국인’의 정서를 기대하거나 공유하고

있으며 매해 입국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사회는 이들 가족의 자녀를 위한 돌봄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때는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들을 단순히 얼마간의 양적 시간 동안 돌봄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 돌봄 수혜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삶의 질을 보장받는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하며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려하여 이를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필수적 요소를 한국어교육으로 보았다. 그러나 기존의 한국어교육의 방식과는 다른 관점에서 한국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방안은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 돌봄의 실태와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토대로 설정한 돌봄 정책의 방향을 기반으로 하여 논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어 교육과정의 체계에 따라 생활과 관련된 주제로 콘텐츠를 구성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 재조직함으로써 교육과 돌봄이 통합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즉,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생활역량 중심의 한국어교육이라는 차별적 접근을 제안하였다. 한국어교육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은 자신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영역의 내용이나, 특별히 정보 소양 교육을 포함하여 중도입국 학생들이 코로나19 시대에 교육격차뿐 아니라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럼으로써 중도입국 학생들의 한국어 습득을 통한 한국 사회 적응력 강화, 학습 능력의 향상을 꾀하고 아울러 생활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처한 아동 돌봄의 문제, 특별히 중도입국 학생과 같이 한국 사회에서 취약한 계층의 돌봄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즉, 우리 사회가 아동 돌봄의 가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돌봄의 주체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어서 특히 중도입국 학생들의 돌봄과 관련된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법과 제도의 정비도 필요하다. 현재 고려인 재외동포는 외국인 국적으로서의 체류 신분이기 때문에 이들의 영·유아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닐 때, 내국인과 같이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영유아 자녀를 둔 고려인 가족은 부모 중 한 사람은 집에서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이유로 중도입국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욱더 가중되는 실정이다. 적어도 돌봄에 관한 정

책은 이들도 교육비를 지원받아 사회로부터 어린이집과 같은 적절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고, 더불어 한국어의 습득도 공적 체계 안에서 어린 나이일 때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한편, 이들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대부분 부모가 모두 일을 하게 되고 자녀는 혼자 집에서 방치되다시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중도입국 자녀 돌봄에 관한 정책도 공적 영역에서 더 촘촘히 마련되어야 한다. 중도입국 학생들이 경험한 돌봄 격차가 교육격차, 정보격차와 같은 또 다른 사회격차로 연결되지 않도록 지역사회는 더욱더 공적 체계 안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각 가정 내에서 온전히 해결할 수 없는 중도입국 자녀 아동의 돌봄 영역은 사회에서 공적인 체계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교육과 돌봄의 콘텐츠, 돌봄 인력 확보 및 관리, 운영 및 평가 방식 마련 등 일련의 돌봄 지원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어교육 시스템과 돌봄 지원 시스템을 통합하여 제시할 때 그 정책적 효과는 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 전달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돌봄은 물리적 시간으로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 서로의 밀착된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과 돌봄은 중도입국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이 된다. 무엇보다 국가와 사회는 인간발달의 초창기에서부터 건강한 발달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아동의 일상적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중도입국 학생 아동이 불균형, 부적절함에서 벗어나 균형을 회복할 수 있고 나아가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삶의 역량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에게 성장과 발달의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일은 사회적 당위성을 갖는 일이며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건강성에도 연결되는 일이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20). 가족 돌봄 휴가 활용 설문조사(4월 1일)
- 교육부(2017). 한국어 교육과정. 교육부고시 제 2017-131호 [별책 43]
- (2020). 2020 교육 기본 통계
- (2021).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 구도완 외(2021). 한국사회문제. 방송대출판부.
- 김영란(2020)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변화와 정책 과제. KWDI brief. 60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남부현·김지나(2017). 고려인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화 적응 과정 경험 연구. 지역과 문화, 4(1). 63-90.
- 박성옥(2016). 중도입국 청소년의 조기 적응 프로그램 운영실태 사례 및 발전방안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9(3). 83-105.
- 박영숙(2020). 아동권리보장원 코로나19 대응 활동 기록서, 아동권리보장원.
- 법무부(2021).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4월.
- (2021). 출입국 통계
- 성경아 고선강(2020).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요구 : 서울시 강북구를 중심으로. 2020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온라인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자료집. p.214
- 어경준·이미정(2018).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복지서비스의 실제와 방향성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21, 9(2). 229-241.
- 우복남(2010). 다문화가정 자녀 정책의 대상과 교육지원의 방향. 민족연구, 44. 한국민족연구원. 48-70
- 육아정책연구소(2020). 코로나19 육아 분야 대응체계 점검: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 장기화에 따른 자녀 돌봄 현황 및 향후 과제. [육아정책 Brief]. 2020년 제 81권.

- 은기수(2020). 코로나19 팬데믹과 자녀 돌봄의 변화. 노동 리뷰, 11. 35-49.
- 이봉주(2020). 아동 재난 대응 실태 현황과 개선 과제 : 코로나19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731-749.
- 이세원(2021). 빅카인드를 활용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아동 삶 분석. 인문사회 21, 12(1). 2941-2954.
- 전세경(2013). 가족생활교육. 양서원
- 정익중(2020a). 코로나19 전후 일상 변화와 아동 행복. 제 17차 아동복지포럼 자료집.
- 정익중(2020b).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돌봄 문제에 대한 해외 대응과 그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2020 여름호 vol.13 47-59.
- 정익중·이수진·강의주(2020).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일상 변화와 정서 상태. 한국아동 복지학 69(4). 59-90.
- 최아라(2020). 코로나19, 아동 돌봄 쟁점과 과제. 인문사회 21. 11(4). 1379-1389.
- 최윤경(2020). 코로나19와 아동의 교육보육 돌봄 전략. 보건복지포럼(2020.12).
- 최재천·장하준·최재봉·홍기빈·김누리·김경일·정관용(2020). 코로나 사피엔스. 인플루엔셜
- 최현임·손가현(2021). 아동권리적 초등돌봄 서비스 발전방안 탐색-다함께돌봄정책 공공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3). 761-770.
-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센터(2020). 교육통계 서비스.
-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20.09.21.) covid-19대응 1학기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조사 분석 결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보도자료.
- 위키피디아 한글판 ko.wikipedia.org/